

II. 본 론

1. 기존 한일 양국 기업간 협력

1965년 양국의 국교정상화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양국의 무역액은 연평균 20여% 가까운 성장률을 보였으며, 전략적 제휴를 비롯한 기업간의 협력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활발하게 이루어진 양국 기업간 협력은 분업화된 기업 협력이라는 특징을 띄어 왔습니다. 수직적 분업 형태를 갖는 한일 양국 기업간 협력이 90년대 중반 이후에 반도체, 가전, 자동차 등 일부 산업분야에서 맺어진 소수의 공동 기술개발 목적의 제휴를 제외하고는 양국간 기업협력의 기초가 되어왔습니다. 기술 이전이라는 말로 특징지을 수 있는 한국-일본 기업간 협력은 일찍 산업화되어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일본 기업과 해당산업에서 선진화된 기술을 sourcing하기 위해 적합한 파트너를 찾던 한국 기업들 사이의 협력으로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기술이전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35년간의 한일 기업간 협력은 몇 가지 고질적인 문제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첫째, 한일 무역 불균형, 즉 무역역조 현상입니다.

기술 수출의 주체인 일본기업과 이를 수입하는 주체인 한국기업 사이에는 수직적 분업 형태의 협력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기계장치산업 등에서 핵심기술을 이전 받지 못한 한국 기업들은 수출량의 증가에 따라 더욱 많은 부품과 장치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해야 하는 구조를 갖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수직적 분업 형태의 민간 기업간 협력은 꾸준히 무역 불균형을 재생산하게 되었고, 양국간 무역수지 불균형의 폭을 확대시켰습니다.

둘째, 소비재 분야에서의 교역 억제 효과입니다.

양국간의 산업별 교역비중을 살펴보면 소비재는 한국에서 일본으로의 이동이, 화학, 기계, 전자 등에서는 일본에서 한국으로의 이동이 많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발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원부존 상태 및 지정학적 여건이 유사한 한국과 일본은 원재료를 수입가공하여 재수출하는 가공무역중심의 산업구조를 발달시켜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양국의 산업구조는 상당한 정도의 유사성을 띄게 되었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기술을 이전 받아 사용하던 한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 육성하려는 목적으로 수입선 다변화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고, 수입선 다변화 정책은 실제적으로 일본으로부터 소비재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양국 기업간 불신의 분위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수직적 분업구조는 양국간 기업협력에 소비재 교역의 억제, 기계,

부품, 장비 분야에서의 무역 불균형이라는 문제를 만들어 내면서 양국 기업들이 서로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관계에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일본측 기업들은 기술이전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얻지 못했다는 피해의식을 갖게 되었고, 한국측 기업들은 충분한 기술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무역역조 현상이 발생한다는 불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론하면, 초기 한일 양국 기업간 협력 관계는 기술이전이라는 씨앗을 동해서 태동했지만, 기술이전 과정에서 생겨난 수직적 분업구조는 양국 기업들간 협력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2. 인터넷을 활용한 기업간 협력의 추세

1990년대 이후 인터넷의 발달이 만들어낸 경영환경변화는 글로벌화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인터넷의 발달은 기업들을 global 경쟁상태로 내몰았으며, 동시에 기업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영역의 폭과 깊이를 다양하게 만들어 전지구적 협력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경과 문화권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에 있어서는 관세, 인증, 소비자 보호 등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주제들에 대해서 국가간의 협력이 필요하고 그 해결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민간 기업 중심의GBDe(Global Business Dialogue on electronic commerce)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GBDe에는 NTT, Fujitsu, Toshiba 등 유수의 일본 기업과 한국에서는 Freetel, LG EDS, 중앙일보 등의 기업들이 가입되어 있으며, 세계적으로는 AOL, Time Warner, Vivendi, HP 등 전자 상거래의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에 따른 기업들간의 협력 형태는 협력이 이루어지는 산업분야에 따라서 크게 둘로 나누어질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전통적 산업(brick & barrels) 내에서 협력하는 것이고, 둘째는 인터넷 산업 내에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 때 인터넷 산업 내에서의 협력은 다시 둘로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 새로운 사업기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투자형태로 협력하는 것이 그 한가지이고, 인터넷 산업 내에서 시장지배력을 높이거나 synergy를 창출하기 위해 제휴나 합병 형태로 협력하는 것이 다른 한가지입니다.

2. 1 전통적 산업 내에서의 인터넷을 활용한 협력

전통적 산업 내에서 인터넷을 활용하여 협력하는 대표적인 예는 B2B입니다. 불과 2년 전만해도 전세계적으로 몇 개에 지나지 않던 B2B업체의 수가 최근에는

1,700여개로 늘어났으며, 올해 중 1만여개까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B2B를 이용한 전통적 산업 내에서의 협력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GM Ford Daimler-Chrysler가 자동차부품조달을 위해 공동 웹사이트를 구축한 것, Cargill Dupont Cenex Harvest States가 제휴하여 농산물 유통구조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 사례, Boeing을 비롯한 항공기 업체들의 부품 공동 구매 site 구축 추진 등은 소위 굴뚝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B2B를 이용해서 협력을 꾀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전통적 산업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B2B를 활용한 기업협력은 기업의 가치창출 활동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판매에 드는 제반 비용의 절감, 생산요소 조달에 드는 비용 절감, 상품의 제조 및 운송에 드는 비용의 절감 등이 이러한 목적의 예입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전통적 산업영역에서는 이미 하나의 추세가 되어 Click & Brick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인터넷을 활용한 기업간 전자 상거래는 Value-Chain을 보다 효과적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협력수단으로서 각광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2 인터넷 산업 내에서의 기업간 협력

인터넷의 적용범위는 실로 광대하고 경계도 모호하기 때문에 인터넷 산업을 명확하게 정의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광범위하게 인터넷 산업을 정의할 때에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와 IT장비 산업을 포괄하는 인프라 분야, 정보(information) · 놀이(entertainment) · 통신(communication) · 동호회(communitiy) 등을 포함하는 콘텐츠 분야, 전자상거래 분야, 인터넷 접속 및 이용을 돕는 서비스 분야 등을 모두 포함시킵니다.

2. 2. 1 새로운 사업기회에 진출하기 위한 투자 형태의 협력

인터넷의 발달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업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업기회의 지속적인 파생은 많은 인터넷 기업들에게 신사업 영역으로의 진출을 push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기업들은 계속해서 파생되는 새로운 사업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출자하여 벤처를 설립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MS, Oracle, Cisco 등 많은 인터넷 기업들과 소프트뱅크, Idealab.com 등 인터넷 투자 회사들은 이러한 사업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벤처에 대한 활발한 투자 및 육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joint venture를 설립하는 형태로 risk도 줄이고 사업 기회도 잡으려고 하는데, 최근 발표된 삼성전자, HP, NEC, 히다찌, 인피니온, 게이트웨이 등 반도체, 컴퓨터, 전자의 선두 기업들의 B2B 전문 벤처 설립은 이러한 투자 형태의 좋은 예라고 생각됩니다.

2. 2. 2 시장지배력을 높이거나, synergy를 창출하기 위한 제휴합병 형태의 협력

인터넷 산업은 인프라, 콘텐츠, 서비스, 전자상거래 등 여러 분야로 나뉘어질 수 있겠는데, 이들 각 분야간 혹은 분야 내에서의 협력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MS의 Hotmail인수는 인프라 업체가 콘텐츠 분야로의 진출을 꾀하면서 발생한 합병이었고, AOL의 Time Warner 인수는 콘텐츠와 서비스 분야의 결합으로 기대되는 synergy를 바탕으로 시장지배력을 높이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많은 기업들이 인터넷 산업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소수의 인터넷 기업들만이 살아 남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인터넷 기업들 간의 제휴 및 합병은 시장지배력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인터넷을 활용한 한일 기업간 협력

인터넷을 활용한 B2B B2C 등 전자상거래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추세 속에서 한국과 일본의 인터넷 관련 산업 성장률에 대해서도 고무적인 전망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일 양국 인터넷 산업의 발전상황 및 양국 기업들간 협력상황을 개관해보고, 양국 기업들이 인터넷을 활용해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과 그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1 한일 양국의 인터넷 산업 현황

최근 한국전자상거래 연구조합은 2000년 상반기 B2B전자상거래 시장동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미국 Giga Information Group이 올해 중 전세계에 1만 여 개의 B2B업체가 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는 사실과 함께 5월 현재 한국에 구축되었거나 구축중인 Vortal은 총 60개에 불과하다고 보고했습니다. B2B업체의 수 만을 놓고 본다면 한국의 B2B시장이 상당히 더디게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현대중공업과 현대정보기술, 한국오라클이 함께 B2B사이트를 구축하기로 한 것을 비롯해서, SK케미칼이 인터넷 구매를 시작한 사실, 현대, LG, SK상사가

공동 설립한 chemround.com, 철강 사업에서 SK상사, 삼성물산, 현대종합상사, LG상사, 포항제철 등이 함께 B2B사이트를 개설한 사실 등을 고려해보면, 오히려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수출 주력 산업들을 중심으로 Click & Brick의 움직임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지난 경제위기를 통해서 얻은 산업구조 및 산업정책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인터넷 산업 육성정책을 의욕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인터넷 관련 기업들의 창업을 돕기 위한 제도를 만드는 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수의 인터넷 벤처기업이 생겨나게 되었으며, 벤처 열풍으로 불리는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마쓰시다 그룹이 2001년부터 연간 2조 2,000억엔에 달하는 자재를 전량 인터넷을 통해 조달하기 위해 11개 계열사를 통합한 인터넷 전자상거래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NEC, 히타치, 후지쯔 등 15개 기업들은 B2B표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 내에서도 B2B를 이용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98년도 일본의 고정망을 이용한 인터넷 보급률은 미국의 1/3에 불과했으나, 이동전화를 이용한 인터넷 이용자의 증가와 인터넷 접속료 및 컴퓨터 가격하락, 전자상거래 및 고속인터넷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인터넷 사용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2003년경에는 미국과의 격차가 거의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국의 B2C market도 마찬가지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1999년 한국과 일본의 B2C market 규모는 각각 7억 2천만 달러와 15억 2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같은 기간 약 360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의 B2C market 규모와 비교하면 미약해 보이지만, 올해의 market 성장률이 양국 모두 1999년의 두 배가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등 B2C market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한국과 일본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전통적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의 활발한 B2B 도입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B2C market의 규모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 관련 인프라, 콘텐츠, 서비스 산업도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2 인터넷을 활용한 한일 기업간 협력-현황과 가능성

한국과 일본의 인터넷 산업이 자국 시장에서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달리, 인터넷을 활용한 양국 기업간 협력은 아직까지 초기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양국 기업간 협력의 예를 보면, 일본의 Internet Holdings Company인

Softbank가 나레이동통신과 공동 출자한 소프트뱅크 코리아의 설립, 삼성전자, NEC, Hitach가 미국 및 독일의 기업들과 함께 B2B 전문 벤처 ehitex.com를 설립한 사실 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의 예들은 모두 새로운 사업기회로의 진출을 위한 투자 형태의 협력이며,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거나 분야간 결합을 통해서 synergy를 발휘하려는 목적의 협력은 그 예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B2B를 이용한 전통적 산업 영역에서의 협력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양국 기업들이 자국 내에서는 협력을 위해 활발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양국 기업들간 협력의 예는 찾아보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일 양국 인터넷 산업은 인프라 분야에서 아직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둘째,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콘텐츠 분야에서의 협력을 어렵게 만들어 왔습니다.

셋째, 인터넷 산업에서 한일 기업간 뚜렷한 협력 모델이 없었습니다.

넷째, 전통적 산업 내에서 양국 기업간 신뢰가 형성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활용한 양국 기업간 협력에는 제 3국과의 협력보다도 훨씬 다양하고 깊이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첫째,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전통적 산업영역이 거의 동일합니다.

전통적 산업영역 내에서의 B2B 활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됩니다. 한가지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B2B를 통해서 경쟁력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한다는 점이고, 다른 한가지는 동종업계 내에서 경쟁관계에 있던 기업들이 B2B에서는 함께 협력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전통적 산업에서의 B2B 활용 초점이 주로 구매, 물류, 재고관리 등의 효율성을 높여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놓여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한일 양국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서 전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함께 win-win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면, B2B는 다양한 협력을 가능케 만드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화나 철강 산업에서의 원재료 공동 조달, 조선자동차 산업에서의 부품 공동 조달, 종합상사들의 공동 판매와 신시장 진출 등이 B2B를 활용하여 양국 기업들의 value-chain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드는 예가 될 것입니다.

둘째, 지리적 근접성입니다.

Off-line시대에는 근접한 국가간에도 정부의 각종 규제, communication비용, 정

보의 비대칭성 등이 민간 기업들의 교류를 막는 장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의 발달은 이러한 장벽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 일본의 기업들간 협력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셋째, 한일 양국간에는 언어의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인터넷이 국가간, 기업간 교류를 제한해오던 물리적 장벽들을 빠른 속도로 제거하고 있음이 분명하지만, 아직까지 언어의 차이는 여전히 인터넷을 통한 교류를 막는 방해물로 남아 있습니다.

다행히도 한일 양국의 언어는 유사한 문장구조를 갖고 있으며 동일한 한자어휘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상호 번역이 용이합니다. 이뿐 아니라, 자동번역 프로그램의 발달, 음성인식 기술의 개발은 양국의 언어를 실시간으로 변환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웹상에서 실시간 번역을 가능케 하는 기술이 등장하면서 양국 기업들은 contents분야와 B2C market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한일간 언어의 장벽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양국 기업들은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하여 서로 다른 언어권에 속해있는 기업들이 인터넷을 활용하여 협력하는 적절한 model을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양국 무선인터넷 시장의 성장입니다.

일본 I-mode의 성공사례는 1999년 한해동안 무선인터넷 사용자 수를 급격히 증가시키면서 일본 인터넷 시장을 활성화시켰습니다. 한국의 무선인터넷 시장도 1999년 말 KTF의 Persnet 출시 이후 지금까지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투자에 힘입어 활발하게 성장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일본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m-commerce 중심으로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나, 한국의 무선인터넷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50%에 육박하는 양국 무선 전화의 보급률을 생각할 때,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한국의 휴대폰 사용자 수가 PC보유자 수의 4.6배에 달한다는 사실은 무선인터넷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IMT-2000 서비스 상용화로 이동전화의 한일간 Roaming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게 되면, 무선인터넷 시장은 양국 기업들이 활발하게 협력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할 것입니다.

따라서 무선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및 양국 기업간 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한국과 일본은 무선인터넷 기술과 관련된 각종 표준을 통일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제 3세대 이동 전화라 불리는 IMT-2000에서 완벽한 Roaming을 실시하여 양국을 왕래하는 사람들이 무선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다섯째, 중국 등 새로운 시장의 존재입니다.

한국과 일본 기업들이 인터넷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한 사례는 현저하게 적은데, 이는 양국이 해당분야에서 아직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진 못한 사실에 기인합니다. 그러나 중국시장 진출을 염두에 둘 때, 콘텐츠와 서비스 분야에서는 미국이나 유럽의 기업들보다는 문화적 유대감과 지리적 근접성을 내세운 한국 및 일본의 기업이 더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서비스 분야를 고려할 때도, 무선인터넷 시장 활성화와 IMT-2000 상용화에 따라 해당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이동통신 회사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III. 결 론

인터넷의 발달은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전세계적으로 엄청난 변화의 회오리를 몰고 왔습니다. 인터넷 산업은 예측을 불허할 정도로 급속히 성장하는 중에 있으며, 전통산업에 속한 기업들도 B2B를 도입하여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전통적 산업 영역에서 수직적 분업구조 형태로 발전해온 한일 양국 기업간 관계에도 B2B를 이용한 수평적 협력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국 언어간 자동번역의 높은 완성도와 지리적 근접성이 B2C 및 인터넷 콘텐츠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여건을 십분 활용하여 양국 기업들이 동시에 win-win하려면, 양국 기업들간에 형성되어 온 불신의 벽을 뛰어넘으려는 의지적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즉, 서로를 단순히 경쟁 상대로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global market을 놓고 함께 협력할 대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양국 기업간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사회 전반에 걸친 신뢰관계 형성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와 같은 공동의 사회적 관심사는 양국간에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호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국 사회에 서로를 신뢰하는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에 비로소 한일 양국의 기업들은 인터넷의 발달이 마련해준 기업간 협력 관계의 변화 기회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韓日 兩側 백그라운드 페이지에 대한 自由討論

1. 日本側 백그라운드 페이지 要約發表

- 主 題: 『日韓 Business alliance의 展望과 課題』
- 發表者: 椎野 謙次 (株)野村綜合研究所 主席研究員

麻生 泰 日本側 코디네이터

시이노씨 감사합니다. 한일 관계가 경쟁으로부터 공창으로, 그러니까 함께 창조하는 시대로 들어가는 기반이 구축이 되고 있다는 시각에서 아주 적절하고 날카로운 지적과 코멘트를 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일본의 하드웨어의 경쟁력은 이제 완전히 소실이 되었다는 말이 인상적이었고, 한국의 노하우라든가 하는 부분은 일본의 폐쇄적인 지자체의 개혁이라는 부분에도, 예를 들면 규제완화라는 면에도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분명하게 표현해주신 점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한국, 변모하고 있는 한국을 한국 측이 좀더 적극적으로 PR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도 새로운 눈으로 한국을 보아야 한다는 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플로어로부터 의견을 듣기 전에 김정 사장님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金 正 韓國側 코디네이터

한일 협력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한국정부 또는 기업이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사건으로는 현재 지식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의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청 벤처기업들의 신기술개발의 열정 및 완성속도에 비추어 지적된 현황문제들은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사실 과거 양국의 산업개발 패턴을 살펴보면 산업중점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계경제 공동체에서 공격적으로 발을 들여놓고 있는 중국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같은 지역권에 중첩된 산업육성책을 시행하다 보니 지역내부에서 경쟁이 치열해 질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한 지역경제구조 효율에 대한 관심이 다소 소홀해 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산업발전구조를 시행하다보니 무한한 경험의 가능성을 외면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상호간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례에서도 그러한 것을 상당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정보와 디지털혁명이 양국 기업에게는 협력의 환경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좋은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공동체 이후는 40년 전에 관세동맹으로 시작하여 급기야는 공동통화 유로를 출범시켰고, 정보통신분야에 있어서도 유럽도 대규모 MN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일본 모두 산업 및 금융경제 구조개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금융이나 산업뿐만 아니라 전분야에서 21세기 한일 경제관계를 시야에 넣고 그림을 그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국의 세계경제 공동체 참여, 2002년 월드컵, 북한의 변화 등은 만약 한일 양국이 디지털 경제변화에 공동대응 할 때에 다른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동연구개발의 표준화 등 기술개발의 효율성도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일 양국의 정보통신, 또는 소프트웨어 등에 관한 공동프로젝트 기지를, 예를 들면 북한에 둔다든지 중국에 둔다든지 하는 것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것이 한일 양국의 협력에 있어서 이제부터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시이노 주식연구원님은 한일 산업기술관계의 많은 프로젝트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노무라종합연구소 서울지점장으로 계시면서 실제적인 면에서 한국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부터의 토론이 실질적인 토론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麻生 泰 日本側 코디네이터

그러면 자유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발표테마를 중심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사무국이 마이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사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 정도로 부탁드립니다.

시이노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共創이 共同으로 創造한다는 뜻이라는 점에 대해서 매우 깊은 감명과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지난 24일에 서울에서 JETRO 산하의 아시아경제연구소와 한국의 대외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FTA,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당장에는 95년도 기준으로 60억달러 정도가 당해연도에 한국의 무역적자가 이루어지더라도 길게는 한국에 투자가 촉진되고 기술이전이 되기 때문에 메리트가 더 많다는 것을 들은 바 있습니다. 저는 투자가 늘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는 대한공조주식회사라고 해서 일본의 자동차 부품회사가 100%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임원회 구성은 4명의 임원 중 한국 사람은 저 혼자이고, 세 사람은 일본사람입니다. 주로 자동차 부품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만, 공창의 시대에 공동으로 창조한다는 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본이 94년에 한국에 대한 투자가 한국 내의 비중에서 34.8%이었던 것이 97년에는 7.6~8%사이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만, 저는 주로 소위 일본에서 한국으로 투자 할 때에 하나의 기업이 일본말로 말하면 히토·모노·가네, 즉 사람과 물자와 돈 이런 표현으로 합니다만, 그 중에서 사람에 있어서 언급을 드리자면 양국의 사람이 같이 만나서 기업을 일궈 가야하는데 문화의 공존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 커뮤니케이션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의사 소통이 서로가 상당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제가 한두 가지 느낀 것은 일본에서 투자해서 한국에서 같이 기업을 한국인과 할 때에는 양국의 언어를 양국의 임원들이나 종업원들이 공통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의 구사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투자기업에 일본인이 파견될 때에 일본의 전통적인 고가이사, 자회사 일본말로하면 아마쿠다리 같은 이러한 사람을 자회사에 보낸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경영이, 공동의 입장에서 파트너십이 잘 이루어 질 것인가 하는 점이 있습니다. 제가 극히 제한된 일부에서 관계되어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대체로 일부는 한국에 파견되어 나오는 사람을 슈꼬, 출향이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더 이상 승진이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간혹 왔을 경우에 이러한 사람들이 과연 공동의 창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양국이 앞으로 투자를 해서 같이 공동으로 창조를 해나갈 때에는 그런 문제는 고려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 시아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생산기술에 대한 로열티에 대한 가치인식이 한국측과 일치하지 않는데다가 기본 기술을 일단 습득하고 나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소극적이다, 저희 회사가 일본기업이 투자했는데 기술원조라든지 단순히 제후를 떠나서 투자를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데, 저희 회사 경험에 의하면 저희 회사는 자동차 부품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몬지 콘타미네이션 같은 데에서 아주 까다로운 회사인데, 투자를 하는 회사는 이러한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두서 없는 말씀으로 한국에서의 일본 기업이 처해 있는 저의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椎野 謙次 (株)野村綜合研究所 主席研究員

그것을 할 수 없으면 한일 관계는 경쟁이 계속 될 뿐이고, 아마 적극적인 관계는 구축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공창이라는 것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정보 통신과 같은 새로운 분야가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인데요, 또 한가지로 한국에 없는 분야는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 있으면서 한국에 없는 분야, 특히 서비스업과 관련해서는 많이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일본에 있는 패턴의 산업 같은 것은 있으면서 한국에는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GNP도 차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분야가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한국기업과 일본기업이 서로 선진국의 노하우와 한국의 마케팅 노하우를 집목시켜서 만들어 내면 새로운 비즈니스를 더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국에 없는 분야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환경 얘기를 드렸듯이 아시아의 환경 비즈니스를 보면 잠재적인 가능성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경쟁력이 없고, 일본은 그냥 첨단 기술만 가지고 있고, 제조 분야에서는 절망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에서 누구와 제휴를 하고, 아시아를 위한 환경 비즈니스를 추진 할 것인가, 거기서부터 이익을 끌어 낼 것인가 하는 분담 스킴을 만들어 내면 거기에서 또 비즈니스 찬스가 열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분야, 새로운 시각으로부터 아직까지 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공창의 분야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만을 돌이키지 않고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나가면 비즈니스 찬스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공창,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시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조선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선업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70~80년대 상당히 경쟁이 치열했던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함께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불가능 할 것입니다.

10년, 20년 지금까지 해 온 산업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분야, 또 지금까지 없었던 분야에서 한일이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 저의 취지였습니다. 다만 제가 약간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본에 부임하신 최대사님이 신문기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일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함께 한 일이 없었다, 함께 하는 것은 2002년 월드컵이 최초가 될 것이다 라고 최대사님께서 말씀 하셨다고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한국과 일본이 지금까지 공동으로 뭔가를 한 적이 없었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논문을 쓸 때는 자신이 있었는데 그 대사님의 인터뷰 기사를 본 다음에 정말 한국과 일본이 같이 한다는 것이 불가능 할 것인가라는 약간의 불안이 머리 속을 스쳤습니다. 대사님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얘기에 대해서는 취지를 잘 못 알아 들었는데, 며칠전 제가 심포지엄의 요약록을 살짝 읽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코멘트 할 입장은 아닙니다. 조인트벤처 문제입니다. 조인트벤처 파견사원 문제에 관해서 저희 사장은 안 나오셨고 부문장 사장이 나오셨는데, 승진을 할 수 없는 사람을 한국에 파견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일본 기업 특히 조인트벤처를 한국과 함께 하고 있는 기업의 투자를 보면 최근 몇 년 동안 IMF 이후 조인트벤처를 없애고 기회가 있으면 일본이 100% 출자하겠다는 것이 지난 2년 동안의 투자에 있어서의 하나의 흐름입니다.

조인트벤처를 해 오면서 좋은 일도 있었지만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제휴처가 IMF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쪽에서 다 인수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은 그와 같은 것을 좋은 계기를 삼아서 100% 출자를 해서 100% 일본식으로 해나가자는 방향이 제시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억지로 싫어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런 기회를 살리는 방향으로 움직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역으로 말씀드리면 조인트벤처의 경영이라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어려움이 계속 되었다는 것은 하나의 배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한국에 주재하는 일본기업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를 한 2년 전에 한 것을 이야기 해 드리겠습니다. 40개 정도의 성공 사례를 꼽아해서 성공 요인을 분석을 한 적도 있습니다. 약 50%는 파트너에 달려 있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즉 조인트벤처일 경우에는 아까도 질문이 있었습니지만, 대한공조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파트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어떤 식으로 찾아내서 그 사람하고 어떻게 관계를 지속시켜 나가느냐 하는, 그 파트너가 조인트벤처의 매니지먼트의 최대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관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麻生 泰 日本側 코디네이터

감사합니다. 일본측으로부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닛꼬금속이라고 하는 회사가 한국에서 상당히 대규모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까도 엔도 취체역을 만나서 한마디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엔도 취체역님, 이 자리에 참가해 계시는지, 체험담 같은 것도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遠藤 一郎 日鋳金属(株) 取締役

닛꼬금속의 엔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방금 시이노 수석 연구원의 보고를 듣고 한일간의 비즈니스 얼라이언스가 요청이 되게 된 그간의 역사적 배경, 그간의 공창 시대를 향한 힌트, 그리고 그 조짐, 그리고 그 얼라이언스를 가속화시키기 위한 한국측의 과제, 한국의 강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상황인식에 대해서 시이노씨와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닛꼬 금속은 한국에서 현재 두 개의 합작 사업하고 소재 판매, OEM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비추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 얼라이언스가 성공하고 발전하기 위한 키워드, 첫 번째는 사업동향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상호 신뢰, 투명성, 그리고 과제에 대한 성의 있는 해결 자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라이언스 중에는 개중에는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투명성, 품질 문제, 납기 문제(정보의 납기, 상품의 납기 등), 이런 것에 대한 자세라는 면에서 한국과 일본간의 종종 차이가 나타납니다. 즉 비즈니스에 대한 자세라든가, 혹은 그들이 각기 경험한 패러다임의 차이에서 기인되는 차이인 것 같습니다. 투명성이 있고 그리고 성의가 있는 대응, 이것이 다음 발전을 향한 신뢰와 신용으로 이어진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일본과 한국의 과제는 점점 보더리스화가 추진되고 있는 오늘날 이 두 나라가 똑같은 패러다임, 똑같은 역내에서 얼라이언스를

하는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이노 연구원님의 맨 마지막 자료에서 오타꾸의 일본중소기업 조사에 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에 대한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 없다라고 대답한 기업 중 10개의 회사는 과거에 한국하고 거래를 해서 실패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10개 기업이라는 숫자가 적다면 적은 수치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의지가 있어서 얼라이언스를 했는데 그것이 안 된다, 파기된다는 것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내용을 철저히 분석을 해서 개선된 여러 새로운 변모된 모습을 계속 지속적으로 PR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전체회의에서 한일산업무역회의의 아끼야마 চে어맨께서 양국의 기업 풍토와 상거래 관습을 주제로 해서 솔직하고 활발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라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의견 교환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산업무역회의에서 양국간의 얼라이언스를 가속화시키고, 비즈니스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성공사례와 구체적인 실패사례를 정리를 해서 리더들이 학습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를 앞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이 급속도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점에서 재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 할 것입니다. 또 그밖에 한국과 일본이 동질의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 다른 것이 있을 것인가, 결국은 투명성과 어카운트빌리티를 기조로 한 미국식 합리성 추구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일간의 얼라이언스는 중소기업들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어떤 진한 관계를 모색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계만으로도 충분한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麻生 泰 日本側 코디네이터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시이노씨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만, 이른바 미국식 스탠더드를 한일간에 적용시킬 수 있다고 보시는지, 혹은 중소기업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한일간의 얼라이언스에 대해서 뭔가 새롭다고 할까요, 한일 특유의 어떤 스탠더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이 질문의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시이노씨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험에 의거한 닛코 급속으로 부터의 의견과 질문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데요, 시이노씨 어떻습니까?

제가 준비한 분석자료의 그래프를 봐 주십시오. 맨 마지막 그래프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서 아주 특징적인 사실을 읽어 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본의 위상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직접투자, 수출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하강 커브를 그리는 이 그래프를 보십시오. 이것이 일본의 한국기업 매니지먼트에 대한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래프 인 것입니다. 한국에서 본 대일 수출이라든가, 대일 수입은 급속도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왼쪽 수치를 보십시오. 이것은 대한 투자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비율입니다. 과거에는 50%까지 육박했었는데, 98년에는 6%까지 떨어졌습니다. 99년도에는 11%까지 다시 급속도로 회복됐습니다. 닛코급속도 그 하나의 예입니다. 이 11%중 상당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 조인트벤처에서 주식을 더 많이 일본측에서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에서는 100% 출자 회사가 늘어났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규 안건의 투자는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씀드리면은 일본의 비중이, 일본의 위상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투자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국에 주재했던 4년 동안 저희는 대응을 못했습니다만, 구미의 이른바 투자 은행이라든가, MA를 위한 코퍼레이션 같은 곳이 한국기업의 흡수합병, 인수 같은 일들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1이라면 구미는 100건일 정도로 아주 많았습니다. 이만큼 구미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다는 것입니다. 일정부분에서는 일본과 한국이 경쟁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5년이 지나고 보니 한국이 경쟁자가 아니라 한국은 역시 구미의 매니지먼트 체제를 익힌 기업이 되었다, 상황이 달라졌다고 하는 산업분야도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 아메리칸 스탠더드라고 하는 것은 일본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 저의 소감입니다.

그리고 일본과 한국 특유의 스탠더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파쿠의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얘기를 해 보면 역시 과거의 역사문제, 과거사 같은 문제가 있다보니까 오파쿠의 기업은 한일간의 제휴라는 면에서 볼 때 인관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파트너와 어떤 사업을 같이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라던가 좋은 인간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것이 한일간의 얼라이언스에 있어서 시작이면서 끝일 정도로 중요한 문제라고 중소기업 오너들은 그런 인식을 상당히 강하게 갖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한국의 조인트벤처의 파트너가 되는 한국측 사람들은 그 만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훨씬 더 비즈니스 라이크하고 미국 스탠더드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보다는 역시 비즈니스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가시화시킨다, 결과를 낸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한국의 경영자들이 일본보다는 압도적으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오히려 세계에서 색다른 것인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어떤 사고방식의 차이, 자세의 차이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金 正 韓國側 코디네이터

그럼 한국측에서는 대영산업개발의 김덕길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金 德 吉 大永産業開發(株) 會長

김덕길입니다. 저는 1989년부터 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만, 고령자는 아니지만 일본어가 편하기 때문에 일본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아니고 코멘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T라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IT의 빛과 그림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IT의 한일간의 협력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 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에서 지식생산, 그리고 응용경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이른바 뉴이코노미론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공업생산체로부터 신산업 제품이라고도 볼 수 있는 지식의 어떤 기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낡은 산업, 그러니까 물리적인 중량보다는 그 상품이 갖고 있는 지식의 양에 따라서 그 상품의 가치가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FRB의 의장인 그린스펜씨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와 같은 신경제에서는 가격을 그 제품의 원가에 가깝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의 회수라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적 파괴야말로 경제성장을 이룩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즉 과거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서 만들어지는 가격이라는 것이 과거의 관점이라고 한다면 생산과 유통의 효율화라는 면에서 이긴 자만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승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다윈적인 가치관이 팽배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경쟁관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사제품에 맞는 생산성 향상을 여하히 도모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하나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정부 기관의 규제완화라든가 시장규모 확대의 정부의 지원책이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가, 정부가 국제무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올드 이코노미라고 볼 수 있는 이른바 조종형정책으로 끝내려고 하는 이른바 아담스미스적인 시각에서 지금까지 정책들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의 그림자 부분은 현재 정보기술의 근원지, 그리고 비즈니스모델을 볼 때 그 대부분이 미국 주도적인 우선순위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제 앞으로 미즈니스모델 특허가 국제적으로 많은 무리를 일으킬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특히 산업무역협력은 정보기술이나 IT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또 하나의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저는 5월 1일부터 일주일동안 워싱턴DC에 머무르면서 국방성을 방문하고 그 국장으로부터 2010년의 IT 전력체제의 차트를 소개받았습니다. 이 회의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만, 솔직하게 그 차트를 보고 한국과 일본은 미국이 그리고 있는 정보전략구조를 뒤에서 쫓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IT기술은 지금까지의 시간과 공간의 네트워크를 모두 다 없애고 IT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공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각오와 준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의식도 개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IT를 효율적으로만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기술의 발달을 어떻게 효과적인 협력모델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국의 IT기술 수준의 우열을 가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통신기술, 생명공학의 각 분야에서는 정보기술의 우열이 기업의 생존을 좌우합니다. 이러한 것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양국간에서 단기, 중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왜 한일간에 이와 같은 전략이 필요할 것인가 하고 의문시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선 한일 양국의 IT전략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하나 정부간의 협력, 두 번째 경제계의 협력, 세 번째 학계·연구기관의 협력, 그리고 네 번째로는 협력모델의 선택과 실행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일자유무역협정을 생각하면서 1999년 3월에 제안된 ‘한일 경제 아젠다 21’의 보다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두 나라의 공동자원의 관리뿐만 아니라 통신, 건설, 금융서비스, 기본적으로는 시장매커니즘에 의해서 결정되는 개혁을 이 IT공동모델을 양국이 구축함으로써 세계에서 운영 가능한 비즈니스모델을 전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싱가포르에서는 싱가포르원을 실행하고 신규산업에 대해서 자유화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용량의 통신 네트워크 외에 새로운 e-비즈니스가 지금 막 꽃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싱가포르와 일본 사이에서 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도 모두 알고 계신 일입니다. 아시아에서 전자분야의 거래, 특히 협력관계는 앞으로의 과제일 것입니다. 전자상거래, 전자인증, 휴대전화 규격 등 IT기준을 만들면 커다란 시장형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은 지난 몇 년 동안 개발한 전자상거래 응용소프트만으로 수백억불의 선행투자를 했습니다. 실제로 운영상의 포퍼먼스나 우수성은 실증되었습니다. 게임소프트, 홈페이지 작성도 일본에 비해 1/3의 시간과 1/10의 코스트로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컬쳐와 오프라인산업의 구조가 유사한 한일 양국이 이렇게 같이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일본의 기초과학기술과 양국의 특수기술을 접목시키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을 온라인화하면 국제시장에서 양국은 보다 많은 경쟁력과 새로운 전략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양국의 공동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업화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가 기계에 대한 투자라고 한다면 IT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투자는 인간의 두뇌에 대한 투자입니다. 포스트 공업화시대에 인적투자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육에 대한 환경조성에 있습니다. 바야흐로 IT 이용자가 증가하고 정보화에 따른 경제변명을 만들고 계속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공헌은 양국간에서 IT 교육을 개발하여 실천하는데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양국의 디지털 디바이드 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99년에 IMF 위기를 교훈삼아 국제적인 규정을 수립하고 양국이 협력해서 아시아 개발도상국에 디지털 디바이드를 시정함으로써 새로운 시장 확대에 이어질 것입니다. IT 혁명은 오키나와 서미트에서도 주요한 의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비해 우리가 많이 뒤지고 있다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한일 양국이 힘을 합해 서로 지원을 해 나가면 국제사회에서의 공정하고 건전한 IT산업 발전을 양국이 주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길어졌습니나만, 제 코멘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麻生 泰 日本側 코디네이터

시이노씨에 대한 질문이 아직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회도 여쭙보고 싶은 점이 많습니나만, 시간상 20분간의 커피 브레이크를 갖고 후반부에서 이용경 사장님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한 후 다시 시이노씨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 안내 말씀이 있겠습니다.

2. 韓國側 백그라운드 페이퍼 要約發表

- 主 題 : 『Internet을 活用한 韓日 兩國 企業間 協力』
- 發表者 : 李 容 璟 韓國通信FREETEL(株) 社長

金 正 韓國側 코디네이터

이용경 사장님, 인터넷을 활용한 한일 양국 기업간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경 사장님은 학문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또는 실물면에 있어서 탁월한 경력을 갖고 계신 분으로 오늘 페이지에서도 그것이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디지털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변화는 상당히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산업기술분야에 있어서는 격차에 의해서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면도 있었습니나만, 인터넷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새로 개발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한일 양국간의 협조에 의해서 더욱 긴밀하게 협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측 코디네이터께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麻生 泰 日本側 코디네이터

이용경 사장님, 감사합니다. e-비즈니스가 양국 기업에서 이른바 상호협력을 위한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냐는 점에서 구체적인 수치, 구체

적인 움직임,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플로어에서는 일본측으로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클을 드리겠습니다. 성함과 회사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清水 紘一郎 (株)HOTEL OKURA福岡 取締役社長

호텔 오쿠라의 시미즈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저희 오쿠라호텔을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이용경 사장님의 발표를 듣고 인터넷이 비즈니스와 경제를 아주 급속하게 변화시키고 있다는 데 대해서 놀랐습니다. 사장님이 지적하셨듯이 B2B를 활용한 대기업간 협력에 대해서 기업 그룹 속에서 인터넷에 전자상거래를 구축하고 자재조달 등을 하면서 경쟁력을 개선하는 것은 이해가 쉽습니다. 그런데 동업종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간이, 예를 들어서 빅3 GM, 포드, 다임러 크라이슬러가 함께 웹사이트를 구축해서 부품조달 면에서 협력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부품의 표준화에 의해서 경비절감을 하는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만, 이 자동차 업계의 빅3와 부품 메이커의 역학관계에 의해서 공정하고 공평한 거래관계를 과연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약간 의문을 가졌습니다. 힘이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판매, 생산 등 모든 면에서의 코스트 다운을 하게 되면 남겨진 경쟁분야가 아주 압축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서비스분야가 경쟁분야로서 남겨질 것인지, 과연 그렇다면 경쟁의 내용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두 번째로 이용경 사장님께서 지적하신 것 가운데 지금까지 상황이 기업간 신뢰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신경이 쓰입니다. 저희들은 전통적인 산업은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호텔오쿠라와 호텔신라는 호텔신라가 영업을 시작한 1979년부터 기술지도 협정이라든가 판매촉진계약에 의해서 서로가 갈고 닦아 세계에서도 최우수호텔을 목표로 열심히 서로 배워가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와 같은 협력관계와 신뢰관계를 구축해 왔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례에 비추어보아 무역불균형 문제와 같은 거시적인 문제는 제쳐두고라도 개별적인 협력관계, 개별적인 제휴관계를 맺고 있는 각 기업은 각각 신뢰관계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비즈니스를 해 오고 교류를 해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약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麻生 泰 日本側 코디네이터

이용경 사장님, 지금 코멘트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李 容 璟 韓國通信FREETEL(株) 社長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로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오쿠라호텔과 신라호텔의 협력관계가 잘 진행되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빅3의 협력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 이것을 조금 바꿔서 오쿠라호텔이 한국에 진출하고 신라호텔이 일본에 진출하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빅3의 협력은 제가 지금 말한 케이스가 될 것이고 이제까지의 오쿠라호텔과 신라호텔의 협력은 서로의 경쟁관계가 아닌 다른 케이스의 협력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현대의 기업에서의 신뢰는 서로 같은 시장을 놓고 경쟁을 하는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의 협력관계가 유지되는 것까지 왔다고 봅니다. 아까 빅3의 협력이 그러한 예가 되겠는데, 이것은 아까 표준화 말씀을 잠깐 하셨지만 어떤 사업에 있어서 플랫폼을 공동으로 구축하고 거기에서의 예를 들어서 서비스의 차별화라든지 이러한 쪽에서 경쟁을 하는 것이 그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지금 다시 바꿔서 말하면 인터넷이 세계를 엮고 있는데 기기에 디지털 디바이드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디지털화가 된 사회와 디지털화가 되지 못한 사회의 격차, 아까 빅3에서는 이러한 회사의 제휴관계와 하나의 공동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거기에 끼지 못한 회사는 플랫폼에서 빠지는, 그래서 인터넷이나 디지털사회에서의 가진 자와 안가진 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은 경쟁환경에서도 이러한 이해관계가 맞으면 서로 협력이 가능한 부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에 대해서 바른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 견해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李 鐘 允 韓國外國語大學校 教授

감사합니다. 앞에 발표하신 시이노 선생님의 페이지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관계의 현황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리 있게 잘 정리하신 듯 합니다. 지금 특히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한일간의 협력의 무드는 어느

때 보다도 무르익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적어도 이 문제에 관련해서 제 나
름대로 파악하기에는 특히 최근에 이르러 한일 양국 다 같이 상당히 심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 변화의 저변을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보면 결국 1995년
WTO체제의 발족, 또한 그것과 더불어 정보화의 빠른 기술의 변화, 이것이 오늘
의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또 일본에서도 그런 잠재적인 협력의 가능성이 생
겨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관계는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항상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던 완전경쟁
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래서 완전경쟁에서 생존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는 요즘 자주 쓰는 문자로 소위 선택과 집중, 개별기업들의 하나의 경영활동 방
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일본도 종래까지 원세트 내지는 계열
에서부터 좀더 집중해 가는,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
로 이점이 잠재적인 협력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환경의 존재가 아닌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간에는 특히 수입다변화제도 철폐와 더불어서 그런 결
과도 초래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무역역조가 더 확대되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어
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가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일본에 오면 느끼고 한국에서
오신 많은 분들이 느낍니다만, 일본의 물가가 비싼데 그러면 자유무역을 완전히
되고 있으면 물가가 싼 곳에서 비싼 곳으로 흘러가야 하는데 왜 이것이 지금 완
전경쟁시대로 가고 있다고 하면서 공존되고 있느냐 하는 의문, 바로 여기에 대해
서 풀리지 않는 의문이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적어도 한일간에는 상당한 협력의 여지는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적어도 그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시이노씨가 말씀하시
기를 결국은 한국이 일본이 요구하는 품질의 제품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일본의 기술이전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겠
는데 일본의 기술을 한국기업들은 제대로 평가해서 지불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
하신 그 대목이 예컨대 한일간의 뭔가 잠재적인 협력의 여지는 존재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적소유권과 관련된 가격지불 문제는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한국신문에 소개
된 것이기도 합니다만, 일본 이외의 다른 시계로부터는 그 나름대로 상당히 잘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90년대에 들어와서 일본 이외
의 국가들로부터는 대대적으로 한국에 투자가 증대되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객관
적인 하나의 평가가 되겠는데 아직도 일본으로부터 평가를 못받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냉정히 생각해 보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한일간에 지속되어 온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일간에는 한단계 더 발전시켜야 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를 둘러보면 WTO체제는 완전경쟁체제 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EU가 자기들 역내끼리 협력강화를 하고 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NAFTA가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지 못해서 결국 97년에 동아시아 국가들이 금융위기를 맞이했다고 봅니다. 적어도 그런 큰 차원에서 한일간에는 동아시아 협력체제를 만들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한일간에 상당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대전제 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는 지금 한일간에 뭔가 협력관계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아까 지적된 문제를 좀더 진지하게 말하자면 한일 기업간에 그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어서 물론 우리가 기술에 대한 한국의 정당한 대가를 다른 나라들로부터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본으로부터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제대로 받기 위한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문제, 또 그것을 통해서 한국의 제품들이 일본의 니즈에 맞출 수 있는 퀄리티를 높이는 문제, 이것을 하나의 세트로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이번 컨퍼런스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한일간에 아까 시이노씨 발표 가운데서 주일한국대사께서 아직 한번도 협력관계가 없었다고 한 것에 대해서 놀랐다고 말씀을 하셨습시다만, 그 말의 의미는 수직적협력은 있었어도 수평적협력을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적어도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 문제를 푸는 것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수평적협력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해 보자는 것을 제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곁도는 이야기만 하지말고 좀더 문제의 본질에, 한일 양국 기업인들이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할애해서 만났다면 항상 같은 말만 되풀이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문제를 푸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한일간에 한단계 한차원 더 높은 관계를 만들고 또한 그것이 만들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동아시아 협력체제를 한단계 더 높일 수 있고, 아마 그것만 구축되면 제가 보기에 97년 동아시아 국가들이 갑작스럽게 벼락을 맞듯이 나타났던 금융위기, 경제위기와 같은 것들도 극복해 낼 수 있는 하나의 기본적인 터전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어서 한일간 내지는 동아시아는 상당한 발전의 잠재력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협력체제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미의 WTO로부터 언제든지 공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이번 컨퍼런스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예컨대 양국간에 좀더 강력한 협력관계를 만들어 내는데 장애가 되고 있는 기술에 대한 대가의 문제, 그리고 제품의 퀄리티를 높이는 문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어 보면 어떻겠는가,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추진해 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문제하고, 결국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동아시아 협력체제를 한층 더 높임으로 해서 우리가 구미로부터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통상압력에 대해서 우리의 자위권을 높이는 그런 장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麻生 泰 日本側 코디네이터

감사합니다. 그럼 시이노 선생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椎野 謙次 (株)野村綜合研究所 主席研究員

한일간의 장애요소라고 하는 것을 꼽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다만 현장이 라는 면에서 특히 일본의 중견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은 비즈니스 센스라고 하는 면에서의 장애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에 한국에 많이 진출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는 지긋지긋하다는 생각을 가지신 기업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중에서도 연배가 지긋하시고 7~80년대에 제일선에서 해외진출 등을 시도하셨던 경영인들 중에는 상당히 그런 잠재의식이 강하게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한국은 해외투자를 규제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틈새를 겨냥하여 진출을 했는데 실패하고 말았던 경험이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은행뿐 아니라 어떤 호송선 단방식의 톱래너를 중심으로 육성이 되어져온 경향이 있습니다. 톱래너가 어떤 가에서 실패를 했다 하면 그 얘기가 세컨드, 서어드 하는 식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실패사례가 일정 연령대의 경영인 사이에서는 그러한 경험이 공유화되고만 셈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서 규제도 없습니다, 투자에 대한 인프라도 한국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국민감정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한국이 많이 새로워졌으니 진출하십시오 라고 지금 말씀하셔도 일본은 아무래도 슬로우템포의 나라이지요. 좀처럼 바뀌지를 못합니다. 머리 속에서만 조금씩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막상 새로운 눈을 가지고, 아까 제가 새로운 눈, 새로운 한국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만, 그렇지만 일본의 반응은 상당히 느립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도 일본은 느립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이해가 되었는데 이것이 전략으로 가시화되고 다른 여타국가들, 다른 아시아국가들처럼 과거의 것은 물에 흘려보내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문제는 일단 접어놓고 생산의 파트너, R&D의 파트너로서 한국과 함께 제휴하려고 하는 그 정도까지 완전하게 머리를 전환하는 식으로까지는 아직 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인들 중에서도 특히 임팩티브라든가 비즈니스 플래닝을 하는 사람들의 머리가 좀처럼 그 정도까지 전환이 안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측의 어떤 잠재적인 하나의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한국측의 장애요인이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정부가 일본에 오셔서 각종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십니다. 처음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일본을 위한 일본기업을 위한 공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설명도 하셨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 꾸중을 들을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왜 일본인 전용공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할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비즈니스 현장하고 너무나도 동떨어진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투자인센티브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공업단지를 조성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한국에 한번 나가볼까요, 그런 기업은 일본에는 거의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즈니스 현장에 계신 분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까지 많이 해 왔다, 문제가 있었다, 한국은 전부 모방을 한다, 그래서 아시아시장에서 일부 경쟁이 시작되는 정도라면 참지만 전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한 경쟁이 되고 말았다, 그것이 일본으로까지 부메랑효과가 있다, 이제 한국은 지긋지긋하다 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현장의 특히 기술자들 사이에서, 비즈니스 플래너들 사이에서 그런 의견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노골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 투자할 경우에 일본기업들의 입장, 한국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딘가 정말 솔직하게 서로 부딪히면서 토론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회의를 아무리 하더라도 안될 것입니다. 통신이 어떻다 IT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봐야 한국과 일본간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관계 구축은 그런 의미에서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세계는 더 이상 애매모호한 식의 얘기는 관두자, 솔직하게 서로 터놓고 얘기하자 라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수년동안 이와 같은 추세 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좋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이른바 하나의 글로벌 스탠더드인 것입니다. 한국은 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일본보다 먼저 도입하고 계십니다. 일본식으로 낡은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흥금을 터놓고 가슴을 열고 솔직한 생각을 토로하고 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한다 이런 시대가 새로운 시대인 것입니다.

金 正 韓國側 코디네이터

이와 같이 70년대 한국에 진출했다가 실패한 사례는 이 회의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이렇게 진지하게 시이노씨가 말씀해 주셨고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 인정은 합니다. 그 때 당시의 우리나라의 정책적인 변경도 있었고 일본투자자들도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점도 있습니다. 단지 인건비가 싸다든지 하는 식으로 너무 쉽게 생각했고 한국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고 하는 점도 있겠지만, 이런 얘기를 10년 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고 오늘 테마도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협력해야 할까 하는 내용이 되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빨리 불식이 되고 우리가 좋은 관계로서 협력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 들어가서 성공한 기업의 사례는 전파가 잘 안되데 실패한 것에 대한 사례는 상당히 고질화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런 진지한 회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이라도 이런 것을 이해하시고 디지털시대에 많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麻生 泰 日本側 코디네이터

감사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한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한일간의 이 회의는 지금 제가 15년째 참석하고 있습니다만, 마음 속에 있는 말하기 힘든 이야기들을 서로가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된 것 같습니다. 속을 터놓고 얘기

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장내에 계신 분들로부터 아까 이용경 사장님의 발표내용이라든가 혹은 시이노 연구원에 대한 질문 어느 쪽이라도 좋습니다. 일본측에서 말씀하실 분 안계십니까?

장 지 원 三星 東京支店

동정의 장지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회적인 선배님들을 많이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저 나름대로 많은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30대 중반입니다만, 젊은 사람의 시각에서 한일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문제는 생김새가 너무 똑같이 생겼고 그런 과정에서 한국사람도 외국인이라고 하면 눈이 파란 사람을 얘기하고 일본사람들도 마찬가지로이지 한국사람과 일본사람은 외국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멘탈리티는 한국사람과 일본사람이 많이 다릅니다. 실제적으로 많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점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일본기업들이 한국에서 실패한 사례라고 하는 것은 제 나름대로 분석해보면 일본식 표현으로 아이마이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 서양계 기업들이 한국에 와서 많이 성공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만드는 계약서라고 하는 것은 거의 1미터까지 되는 정도의 많은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는 이 정도는 서로 양해가 되겠지, 이 정도면 서로 이해가 되겠지 하는 수준에서 아주 간단한 계약서를 쓰다 보니까 서로가 사업을 하다 보면 생각이 틀려지기도 하는 것이고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서로 얘기는 못하고 그러다 보면 서로 감정만 쌓여 가면서 점점 더 나쁜 관계로 형성이 되면서, 그러다 보면 사업 자체가 파탄이 나는 그런 점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배님들이 양쪽에서 다 어떤 멘탈리티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얼굴이 비슷하니까 생각도 똑같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21세기를 맞이하면서 한일 관계에 있어서의 비즈니스는 꼭 앵글로색슨 스타일이 가장 좋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서로 간에 얘기할 것은 명확하게 밝혀 두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IT에 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지금 한국통신프리텔의 이사장님께서 오셔서 한국의 인터넷 비즈니스환경에 대해서 일본에 계신 많은 분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뭐냐하면 제가 일본에 와서 느낀 것은 지금 아직도 일본은 ISDN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인터넷서비스 프로바이드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광케이블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ADSL 형식의 초고속 인터넷망이 지금 다 깔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개인이 생각하는 인터넷과 한국에서 개인이 생각하는 인터넷과는 수준적인 차이가 상당히 심합니다.

만약에 한국의 환경이 아직까지도 인터넷 환경이라는 것이 일본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하면 한국에서는 아마 인터넷 비즈니스는 이렇게 까지 형성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한국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참지 못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일본분들이 한국이 왜 벤처 비즈니스가 많이 융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인터넷 비즈니스가 형성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통신회사 사장님이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李 容 璟 韓國通信FREETEL(株) 社長

주제와 얼마만큼 부합이 되는지 모르지만 한국의 통신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일본에 소개하는 의미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지만 한마디로 한국의 통신시장은 잘 체크가 안되는, 스토퍼가 없는, 막 굴러가는 차량과 같은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이동통신시장이 지금 현재 2,700만명의 가입자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프리텔의 경우에 만들어진지가 2년 8개월 되었습니다만, 지난주에 저희가 500만 가입자를 돌파했습니다. 400만 가입자를 돌파했을 때가 작년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기네스북에 최단기간 내의 가입자 돌파로 상을 받았는데 이번에 500만 가입자를 돌파하면서 또 받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다섯 개 이동통신회사가 경쟁적으로 보조금을 써가면서 가입자를 뺏어 가느라고, 단말기 보조금은 20~30만원에 그쳤지만 실제 보조금은 1인당 약 30만원에서 비쌀 경우에는 50만원까지 쓰면서 가입자를 확보하느라고 통신회사들은 많은 이익을 단말기 제조업체에 넘겨주는 그러한 형태가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현재 2,700만명의 가입자가 있고 또 그 중에 약 10% 내지는 20%가 무선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i 모드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만, 스피드를 보면 9,600bps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벌써 64Kbps가 나오고 있고, 또 지금 2세대 이동통신이라고 해서 144Kbps까지 속도가 나오는 서비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ISDN이나 ADSL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통신의 고속화는 일본이 가장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광통신도 70년대부터 나온 새로운 기술을 실용화로 제일 먼저 끌고 갔고, 또 지난 10년 전만해도 광통신을 가입자에게까지 가져가는 기술을 제일 먼저 실행해서 시범단지도 오사카, 교토지역에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가입자에게 가는 인터넷 스피드는 아마 한국이 제일 빠른 것 같습니다.

한국은 특별히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까지 광통신망을 가져가서 거기서 동선을 이용한 고속화가 많이 되어 있고, 또 한국에서 급격한 활성화를 보인 PC방 같은 것들은 고속 액세스를 해서 사람들이 와서 다양한 인터넷게임을 한다든지 동영상 다운로드 받기 위해 시작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은 정보화의 커뮤니티센터같은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설줄 모르는 한국의 국민적 특성이 여기서도 나타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조건 제일 빠르고 제일 앞서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콘텐츠 면에서는 일본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i 모드가 거의 만여개의 콘텐츠가 올라가 있는 것에 비해서 한국의 콘텐츠들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1/5 정도의 수준밖에 안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에 관한 한국의 변화를 잠깐 소개해 드리고, 이 기회에 아까 말씀하신 지적권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소프트웨어의 복사가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정부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불법복제를 막는다고 할 때 한국정부에서는 똑같이 노린 것이 소프트웨어 산업의 활성화인데 그것이 이런 불법복제에 방지, 일반기업들도 많은 각성이 되어 있고 해서 이것이 현재 한국의 인터넷산업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산업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麻生 泰 日本側 코디네이터

감사합니다. 그리고 삼성 동경지점에 계신 분 계기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만, 꼭 발언을 하고 싶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무역진흥회의 사에끼입니다. 질문과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이노씨께서 함께 만들어내는 공창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화제의 중심은 각 기업간의 협력에 관한 얘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조금 더 사회적인 관점, 정부적인 차원에서의 공창이라는 것도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용경 선생님 말씀 가운데서도 양국 기업간의 가로놓여 있는 상호불신감을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사회 전반에서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도 동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은 역시 양국의 비즈니스를 공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가치관 문제도 있습니다만, 비즈니스상의 룰이나 사고방식을 공유화하고 공통의 것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아까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JETRO가 연구한 21세기의 일한 관계를 생각하는 관점에서 FTA에 연결을 했습니다. 이 연구는 金大中 대통령이 일본 방문을 하셨을 때 오부이 전총리와 합의를 해서 일본측에서는 JETRO의 아시아경제연구소가 이 연구를 담당하고 한국측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담당하여 각각 연구해서 지난주에 합동으로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것은 단순히 관세장벽을 제거하고 상품의 무역자유화를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비스 산업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부터 지적되고 있는 지적재산권, 표준화 문제와 같은 여러 분야의 것이 이 자유무역협정 안에는 망라됩니다. 말하자면 하나의 공동의 시장을 만드는 것이 커다란 목적입니다. 공동 시장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유럽에는 EC가 있으며 그것이 EU로 발전한 경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 모든 분야에 있어서 공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자유무역협정 문제에 대해서는 무역불균형, 무역역조가 더욱 더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전체적인 경제의 상호교류를 추진하는 그 의의는 이 글로벌화하는 세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일본시장만을 터전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은 바야흐로 NAFTA, EU도 더욱 더 확대할 것이라는 뜻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일본, 한국은 한국, 각자 따로 따로 세계와 대응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FTA는

10년 안에 실현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10년이라는 시간도 있고, EC도 40여년이 걸려서 겨우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또 저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EC의 발전 상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야에서 각국이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통의 컨센서스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한 것을 보면 일본이나 한국은 둘다 국제사회에서 조금 동떨어져서 자국 문제만을 어떻게 하고 자국 내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미래를 위하여 공동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자유무역협정 구상은 장차 한일 양국 국민에게 또 비즈니스맨들이 서로 협력하여 나아갈 어떤 타겟이나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표준화문제라든지 지적재산권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를 조금씩 해결하면서 공통적인 룰에 대해서 서로 토의를 하고, 또 아까 미국 스탠더드가 과연 우리의 스탠더드가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의 스탠더드를 만든다고 하는 뜻에서도 한일 양국이 컨센서스를 도출하지 못한다면 아시아의 스탠더드도 도출하지 못할 것이며, 아시아의 스탠더드를 도출하지 못하면 미국 스탠더드에 대항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그런 FTA의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면,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경제계 여러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麻生 泰 日本側 코디네이터

방금 김정 코디네이터와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가 총괄하는데 많은 시간을 쓰기보다는 플로어에 계신 분들의 말씀을 한 분이라도 더 들어보자는데 합의를 하였습니다. 한국측에서 발언해 주실 분 안계십니까?

曹 圭 河 韓國科學文化財團 理事長

한일 협력에 관해서 지난 2~30년 동안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저 자신도 일본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고 일본의 제 친구들이 많은 불만을 토로하는 것도 들

어왔습니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지난 35년간의 국교정상화 이후 한일간의 경제협력은 아주 성공적인 석세스 스토리였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오늘 시이노씨가 제기한 문제들, 지적재산권 문제 등은 너무 미시적인 표현이고 조금 지나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와 같은 문제는 어느 국가에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일본도 미국에 대해서 정보통신분야에서 그런 실례를 범한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난 35년간의 한일 협력, 이것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협력이었지 않았느냐, 또 자본협력에 관한 것이었지 않았느냐, 그러나 21세기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해서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게놈 연구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주 항공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정보통신의 급격한 기술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관해서 일본도 세계 최강의 강자라고는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제조업이 더 강한 제조업이 되기 위해서는 IT화가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국제금융질서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일이 새로운 차원에서 협력하기 위해서는 이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을 생각을 해 봤으면 어떨까 합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코사이넷이라고 하는 과학문화 데이터베이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국어로만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일본어로 번역이 되어서 일본의 청소년에게도 일본의 일반 시민들에게도 즐겨 볼 수 있는 것이 된다면 저는 무료로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새로운 밀레니엄에 처해서 한일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IT 통신분야만 하더라도 새로운 규격, 제도, 기준을 만들어가고 또 새로운 룰을 만들어가고, 한일이 나아가서는 세계가 공유할 수 있는 가치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과 아울러서 유전공학이나 우주항공 등등 과학기술에 관련한 공동개발, 이용들을 이런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토론이 될 수 있었으면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麻生 泰 日本側 코디네이터

감사합니다. 일본측의 마지막 발표자가 되겠습니다. 도레에서 나오신 분입니다. 시이노씨에게 질문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요점만 부탁드립니다.

도래의 이이지마라고 합니다. 아까 시이노씨께서는 한국에 4년정도 주재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얼라이언스라는 측면에서 아주 참고가 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도래도 30여년 전부터 한국의 3개 그룹 7개사와 합작기업을 경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극복한 얼라이언스를 추진해 왔고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생각합니다. 그 경우에 얼라이언스에 대한 기본적인 한일간의 입장이라는 면에서 세가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이노씨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진정한 파트너십에 관한 것입니다. 역시 이퀄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종관계가 아니라 앞으로는 이퀄파트너로서의 대등한 관계, 그리고 대등한 대화를 통한 의사결정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한국의 기술력이 상당히 크게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앞으로는 선진국형의 폭넓은 연계, 얼라이언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술 수출, 기술 수입과 같은 시대로부터 크로스라이센스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합으로부터 글로벌 차원의 선택과 집중의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실력이라는 면에서 볼 때 선진국형의 대응이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아까부터 나온 얘기입니다만, 상호간의 대화를 토대로 한 신뢰관계 조성을 다각도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신뢰관계 조성일 것이고, 또 민간기업 차원에서 슈퍼 톱 매니지먼트로부터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에서 모든 계급에서 모든 분야에서 모든 기회를 빌어서 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의 어떤 얼라이언스의 패턴은 결코 원패턴이 아닐 것이라고 강하게 느낍니다. 기업의 합작이라던가 혹은 합병이라던가 판매제휴 같은 것은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얼라이언스입니다. 이 경제활동을 백업하는 얼라이언스와 더불어 저는 인재, 인력, 인간의 얼라이언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인재의 교류, 인력 교류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재의 국제화라는 면에서도 한국과 일본이 인력 면에서의 얼라이언스를 활발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매니지먼트 경영의 얼라이언스, 예를 들어 장기 비전이라던가 설비

투자라던가 연구개발이라던가 이와 같은 여러 기업 매니지먼트상의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것이 그룹간에 앞으로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제가 느끼는 것으로 네트워크화에 의한 얼라이언스는 아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즉 사업, 판매, 경제활동의 얼라이언스 보다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얼라이언스가 필요하고,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서 양국의 다각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얼라이언스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은 일본이나 한국에서 각각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제도라던가 법제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특히 한국의 경우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과거에 대규모 대한 설비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90년대에 들어서 크게 위축이 되었던 원인이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 문제점이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점만 지적해서는 안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하는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건설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역시 민간기업이 베이스가 되어서 세 가지 활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과 이에 대한 백업 시스템의 추진을 꾀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제도가 훌륭해도 감정이라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사관계의 안정화하고 하는 것이 기업 차원뿐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이것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심하게 말씀드리어서 남의 얘기를 빌어 말씀드리면 계약의 중시, 상호신뢰라는 것입니다. 아까 복제품이라든가 로열티 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파트너가 있을 때 성립하는 것이고 파트너가 존중할 때 비로소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를 들면 주주총회라던가 취체역회의라던가 사장의 권위라던가 이와 같은 규정이 각각 그 계약서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 협의제라는 것을 잘 지키면서 상호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일단 결정이 난 후에 제안을 해 오셔도 이 부분이 개선이 잘 안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적인 경영과 한국적인 경영의 차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를 좀더 확실하게 한다던가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도레 같은 경우에도 아주 솔직한 의견교환을 통해서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합작이라던가 얼라이언스를 할 때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에서는 상장기업, 혹은 상장 예정 기업에 대해서 종업원 지주 조합에 대해서 20%까지의 우선적인 주식할당권이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증권거래법 191조에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은 예외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아직 발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특히 합작기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게 되면 수익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수익의 20%를 종업원 지주 조합에 주어야 한다고 하면 주식의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여기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이 규정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의를 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장이 된 다음에는 물론 종업원 지주 조합에 주어야 되겠습니다만, 상장할 때까지 그러니까 기업이 확실한 토대를 구축할 때까지는 자본 구성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대통령령에 대한 시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麻生 泰 日本側 코디네이터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코디네이터로서 짧막하게 코멘트를 말씀드리고 이 회의를 폐회하겠습니다. 먼저 시이노 선생님으로부터 함께 만들어가는 공창이라는 시대로 간다는 것을 화두로 해서, 그 마켓은 새로운 분야, 그러니까 기존의 시장에서는 지금까지의 경합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새로운 분야에서는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고,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는 일본의 서비스산업에 있으면서 아직 한국에 없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즈니스 찬스가 많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상을 공유한다는 것, 중국이라든지 새로운 서비스분야라든지 한일이 어떤 대상을 포착하여 함께 공동진출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 후반에 이용경 사장님으로부터는 IT를 인터넷을 활용한 협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IT화가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어서 아까 시이노씨께서 말씀하신 코멘트하고 약간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래된 기존의 산업분야에 있어서도 한일간이 협력하여 코스트다운이나 물류의 합류화 같은 것을 실현할 수 있다, 지금까지 경쟁관계에 있었던 산업분야에 있어서도 IT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찬스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시사를 해 주셨습니다.

또 플로어로부터는 삼성증권으로부터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일본의 여러 가지 문제는 애매모호함에서 많이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되어 있지 않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 것에서 오는 애매함, 최근에는 영미 쪽에서는 굉장히 두꺼운 계약서가 작성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희가 느끼는 것은 일은 디지털, 마음은 아날로그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한일간에는 아날로그 부분도 남기면서 또 디지털화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미식의 디지털이 아니라 한일간에는 아날로그적인 것도 있으면서 서로간에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김정 코디네이터께 총괄을 부탁드립니다.

金 正 韓國側 코디네이터

시간도 많이 지났고 아소 코디네이터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내용적인 코멘트는 오후 전체회의 보고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께서 좋은 발표를 해 주셨고, 처음 시작할 때에는 플로어에서 발언이 적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했는데 시간의 아쉬움을 남기면서 이렇게 끝내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을 잘 해주신 아소 유다카 사장님과 플로어에 계신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 드리겠습니다.

麻生 泰 日本側 코디네이터

감사합니다. 장시간 통역을 맡아 주신 두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분과회 회의를 마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第 2 分 科 會

(韓日 共通課題「環境」)

〈코디네이터〉

韓國側：金 熙 勇 東洋物産企業(株) 副會長

日本側：大慈彌省三 石川島播磨重工業(株) 副社長

〈第 2 分科會〉

(韓國側 백그라운드 페이지)

뉴라운드 時代에 있어서의 環境協力： 韓日 兩國의 産業部門 環境協力 方案



産業研究院 産業政策研究센터
首席研究員 任 東 淳

1. 뉴라운드 時代의 産業活動과 環境 이슈

산업혁명 이후 제조업 중심의 산업활동이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하여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기존의 농림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는 문제시되지 않았던 資源의 枯渴, 汚染物質의 급속한 增加, 그리고 기본적인 생산요소로서 資源 및 環境의 限界 生産性 低下 등 생태계의 자정능력을 초과하는 넓은 의미의 환경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각국은 국경을 초월한 지구전체의 관점에서, 환경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오존층의 파괴, 지구온난화, 生物種의 감소 및 멸종, 산성비 등 주요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제적 원칙과 기준을 협의하고 제정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국가 경제의 對外開放은 국내 수요자에게 양질의 低價製品 消費幾回의 擴大뿐만 아니라 국내생산자에게 製品販賣 市場擴大를 통하여 경제발전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경제발전 및 산업구조전환의 단계에 따른 대외개방의 확대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불가피한 측면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국가의 상이한 경제발전단계와 생산방식, 환경정책 및 환경기준 등으로 인하여 국제

교역 규모의 확대, 자본과 서비스의 보다 자유로운 이동 등이 환경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自由貿易과 環境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보다 자유로운 교역과 보다 강화된 새로운 환경규제라는 차이로 인하여 마찰이 불가피한 점이 있다. 특히 지난 1995년 다자간 무역 체계의 구축 및 실효성 확대를 목표로 출범한 WTO가 자유무역의 전반적인 확대를 지향하는 한편 환경문제를 포함하여 국가간 무역분쟁과 마찰을 조정하고자 하는 한편 개별국가의 자의적인 무역보복이나 무역장벽 조치를 규제함에 따라 국제무역과 환경이슈는 국가경쟁력의 지속적 강화와 유지 차원에서도 도외시 할 수 없는 문제로 부상하였다.

환경문제와 각국의 경제활동 혹은 국제무역의 연계에 대한 논의는 1992년 리우 선언을 통하여 환경목적의 무역조치가 자의적이고 불공정한 차별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방주의를 회피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국제사회의 논의의 중심이 되었다. 특히 의제 21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목표에 합치되고 비교우위에 따라 전지구적 차원에서의 생산의 적절한 배분을 유도하는 다자간 무역체제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다자간 무역체제는 모든 무역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며 환경과 무역의 상호 지지적인 특성, 다자간 무역체제로 인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생산과 소비수준의 향상, 경제성장 및 환경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 등으로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후 環境과 貿易의 連繫問題는 OECD와 WTO의 관련기구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난 1999년 11월 30일~12월 3일간 미국의 시애틀에서 개최되었던 제3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지구환경문제 이슈가 새로운 국제질서확립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식회의에서는 회원국들 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인하여 뉴라운드 혹은 밀레니엄 라운드로 불리게 될 WTO 체제하의 제1차 다자간 무역협상의 출범을 위한 각료선언문 채택에 대한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하였으나 무역과 지구환경문제의 연계는 뉴 이슈(New Issue)의 주요 쟁점사안으로 무역환경위원회에서의 논의를 지속하고 서두 규정에서 무역자유화와 경제개발 및 환경보호간의 보완성을 상기하면서 향후 협상에서는 이러한 상호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회원국들이 보호주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자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수준의 환경보호를 달성할 권리를 인정한다고 규정하여 자유무역의 기본원칙에 보완적인 예외로 인정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따라서 국내 산업활동이 국내 환경관련 기준과 원칙 이외에도 국제적으로 합의되는, 혹은 주요 교역대상국의 환경관련 기준과 원칙에 부합하는 생산활동이 불가피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地球環境問題에 따른 企業競爭力 變化 및 環境産業市場 形成

경제활동과 지구환경문제의 연계 효과를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국가별 특성 및 지역적, 경제사회적 차이, 환경문제의 성격 등으로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국제환경문제가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현안별로 나누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우선 새로운 국제환경규범으로 인하여 기업활동의 주요 생산요소로 사용되는 特定 製品 및 成分의 使用이 制限되거나 禁止되는 것이다. 이는 지구적, 혹은 지역적 환경피해 가능성이 확인된 제품 및 물질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로 멸종위기의 동식물 종의 교역제한, 유해폐기물의 이동금지, 오존층 파괴 물질의 규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로 다자간 무역체제의 기본원칙과 부합하는 문제로 인하여 현재 적용범위와 수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사안이긴 하지만 特定 製造工程에 대한 使用의 禁止 혹은 制限이 있다. 이는 해당 제품의 국경간의 이동이 아니라 그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방법 및 공정에서 환경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製造工程 및 生産方式(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 : PPMs)의 사용을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전자 조작 물질에 대한 규제, 오존층 파괴물질을 생산공정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규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로 환경기준이나 환경마크제도의 시행과 같은 상이한 국내 환경정책으로 인한 간접적인 무역규제조치이다. 즉, 국가마다 상이한 제품 및 제조공정기준, 오염물질 배출기준, 폐기물의 관리기준 등 각종 환경기준과 함께 제품의 전과정적인 환경영향평가에 기초한 환경친화적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 등이 간접적인 무역규제조치에 해당한다. 이러한 조치는 일반적으로 환경기준이나 제품규격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은 미국, EU 등 선진국과의 교역에 있어서 한국이나 중국과 같은 국가에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한다.

이를 일반적인 생산과정과 최종 소비재의 경쟁력 측면에서 살펴보면 국내환경규제와 마찬가지로 지구환경문제 및 관련규제는 기업활동에 대하여 비용과 자원의 제약이라는 두 가지 측면의 경쟁력 변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개별 기업의 요구에 의하여 파생수요로서 환경설비 및 환경서비스 시장의 신규창출을 예상할 수 있다. 우선 지구 전체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환경용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합의된 국제환경규제가 기업 및 산업활동에 비용으로 작용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별 기업은 국내외 환경규제를 준수하기 위하여 대기환경, 수질 및 토양환경, 폐기물 처리, 소음 및 진동방지 등 주요 오염 매체별로 관련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시설의 설치, 장비 및 소모품의 구입 등 資本支出을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로 해당 시설물의 운영 및 기타 처리업체에 대한 위탁 등 經常支出이 발생한다. 셋째로 국내외 환경기준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각종 賦課金, 負擔金, 分擔金 등

조세 형태의 移轉支出을 하게 된다. 이러한 지출은 기업활동에 環境費用을 內部化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일차적으로 제품의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기업의 부담은 단지 환경규제당국의 요구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전반적인 환경인식 증진으로 인하여 최종 제품에 있어서 환경친화성을 제고해야 하는 압력도 포함된다.

또한 해당 제품을 원재료 혹은 중간재로 사용하는 관련 산업에 대하여 직접 및 간접효과를 통하여 聯關産業뿐만 아니라 경제전체의 경쟁력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때 기업이나 산업의 경쟁력은 단순히 환경비용의 추가적 부담뿐만 아니라 새롭게 발생하는 경영환경에 대한 기업의 대응, 기타 경쟁력 요소들의 동태적인 적응에 의하여 실제적인 파급효과를 나타낸다. 아래의 <그림 1>은 국내의 환경규제가 미치는 경쟁력 변화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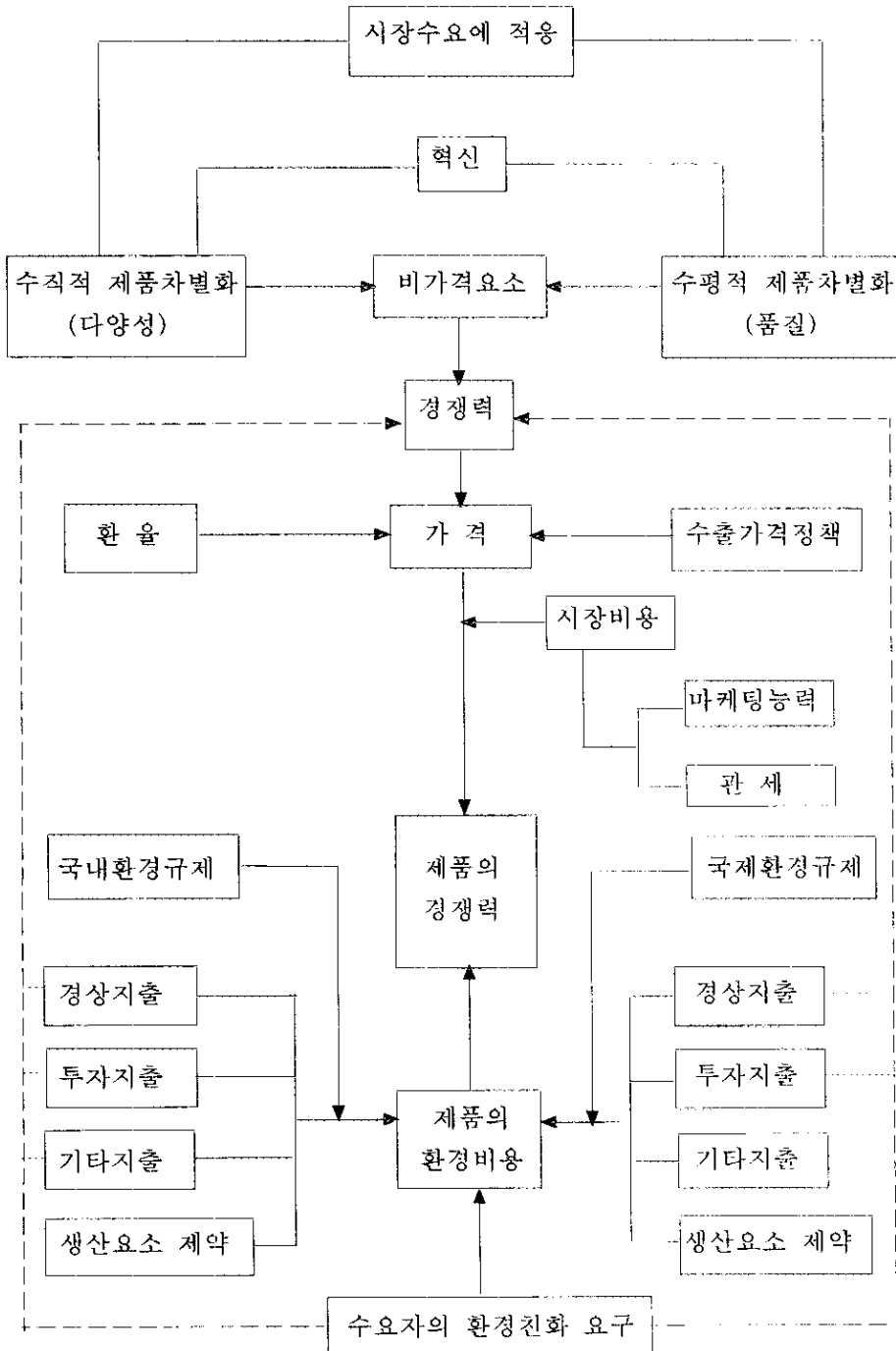
한편 비엔나 협약 및 몬트리얼 의정서에서와 같이 주요 생산원료의 금지는 생산요소인 자원의 제약으로 작용하여 산업경쟁력에 영향을 준다. 즉, 각종 국내의 환경규제에 의하여 생산공정에서의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원료나 중간재가 있을 경우 발생하며, 생산요소를 대체하는 기술적 노력이나 신규 원료 및 중간재의 대체가 없을 경우 해당산업 및 관련산업의 생산활동이 위축되거나 산업 자체의 존립이 어려운 상황까지 초래된다.

지구환경문제가 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환경비용의 증가라는 부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새롭게 창출되는 環境市場이라는 긍정적 효과도 내포하고 있다. 아래의 <그림 1>에서와 같이 지구환경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기업의 투자 및 지출은 결과적으로 공정의 자동화, 에너지 등 투입원료의 효율 증대, 신기술, 신공정의 도입, 제품 믹스의 고부가가치화 등을 유발하여 기업 경쟁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투자 및 지출에 의해서 파생시장으로서의 環境設備 및 환경서비스 시장이 형성되어 새로운 事業機會의 擴大를 유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地球溫暖化 방지를 위한 氣候變化協約은 참여국에 대하여 일정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요구하여 일차적으로 산업활동의 제약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기후변화협약의 효과적인 목표달성을 위하여 합의된 교토메커니즘은 淸淨開發體制와 같은 방식을 통하여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저감관련 사업의 전반적인 확대를 가져온다. 이 때 일본과 미국, EU 등 부속서 I (Annex I) 국가의 기업들은 공급자로, 비부속서 I (Non-Annex I) 국가 정부나 기업들은 수요자로 에너지 효율증대, 대체에너지, 산업공정개선 등 온실가스 저감시장에 참여하게 된다.

임동순과 이명균 「한국의 CDM 시장규모 추정」(2000)의 추정 결과에 따르면 대표적인 지구환경문제인 기후변화협약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청정개발체제 국제시장의 규모는 2010년 기준 약 92억 달러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림 1> 企業의 競爭力과 環境費用



한국이 이러한 온실가스 저감시장에 수요자로 참여할 경우 관련 국내시장규모가 2010년 기준 약 1억 200만 달러~2억 9,930만 달러로 전세계 시장규모의 약 1.3%~3.3%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낮은 효율 에너지 소비 행태가 상존하고,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에서는 약 48억 달러에서 80억 달러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EBI (Environmental Business International, 1999)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1996년 현재 世界環境市場 規模는 약 4,530억 달러로서, 환경자원관리부문이 25.5%를 차지하는 1,156억 달러, 환경설비부문이 24%인 1,089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환경서비스부문은 절반 정도인 2,286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미국, 캐나다 등 북미지역의 비중이 40.4%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서유럽이 29.5%,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2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선진국에 의한 환경시장의 비중이 전체의 90%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환경서비스부문에서는 선진국의 비중이 약 9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세계환경시장은 1996년 이후 연평균 4.3% 성장하여 2005년에는 약 6,61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산업연구원(1998, 2000)의 한국의 환경관련 설비시장 및 서비스 시장의 성장전망 연구결과에 따르면, 환경산업의 내수시장 전체규모가 2005년 기준으로 약 14조 원에서 24조 원(평균 19조원, 158억 미국달러)에 이르고 이 가운데 환경서비스 분야는 약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産業化와 都市化의 진전, 개도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 그리고 뉴라운드로 대변되는 지구환경문제의 國際 規範化 등으로 인하여 환경산업시장은 21세기에 있어서 성장성이 아주 큰 시장으로 부상할 것이며 특히 고급환경기술에 대한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일 양국의 産業部門의 環境協力도 이러한 관련시장의 다변화 및 증대추세를 고려하여 양국이 서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야 한다.

3. 主要國 地球環境問題 政策 및 産業別 對應

1) 主要國의 産業關聯 地球環境問題의 主要 이슈

주요 국가별로 지구환경문제와 산업 및 무역관련 조치를 살펴보면, 우선 미국은 환경단체 및 의회의 압력으로 다자간 환경협정에 적극적이거나 자국 산업에 직접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신중한 태도로 접근하고 있다. 일방적 무역조치의 사용은 1994년 2월 제시된 4가지 원칙에 의하여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4가지 원칙은 국제환경협약에서 무역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제 3국의 환경파괴적 행위가

미국영토에 피해를 준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 과학적으로 입증된 멸종위기의 種의 파괴 행위, 과학적으로 입증된 국제환경보호기준의 실효성 저해 행위 등을 포함한다.

또한 자국의 선진 環境技術을 바탕으로 각종 기술규정을 제정·보완하여 제품의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산업관련 주요 환경관련규제로는 CFC 등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경고라벨 부착 의무로 관련 제품의 미국내 유통 및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

슈퍼펀드조항(CERCLA)은 주로 유해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책임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수입석유제품에 대한 배럴당 11.1%의 관세부과,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의 제조 및 수입에 대한 상응하는 세금부과 규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업평균연비(CAFE)규제는 평균연비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동차의 생산 및 수입에 과징금을 부과하며, 수입차와 국산차에 별개 평균연비를 적용하고 있는데 동종상품 차별과 관련된 GATT상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향후 기후변화협약 등으로 인한 국제환경협정의 진전과 함께 자동차 협회 등을 통한 국제적인 규제설정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EU는 自發的 參與方式의 환경마크제도와 포장재 라벨링, 遺傳子 變形食品에 대한 라벨링, 에너지 라벨링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EU의 환경기준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감안하면 국내무역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환경마크제도는 1999년 말 현재 가전제품, 컴퓨터 등 15개 제품군에 대하여 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추가적인 확대가 예상된다.

포장재 라벨링은 포장재의 무게 및 부피의 최소화, 유해 물질 최소화 등 필수 요건을 설정하여 준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1998년 1월 이후 기준미달 포장재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포장재 기준은 현재 국제표준화기구(ISO)나 미국 등의 기준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국내 기업의 입장에서는 EU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환경기준 준수비용이 수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에너지 라벨링도 포장재 라벨링과 유사한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표시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라벨이 부착되지 않는 제품에 대한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자동차(승용차)에 대한 CO₂ 감축목표설정 및 준수는 EU가 특히 강조하고 있는 운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억제정책이다. 1997년 이후 자발적 협약의 형태로 추진하여 1998년 EU환경이사회에 의하여 승인된 승용차 이산화탄소 감축목표에 따르면, EU자동차협회의 회원사는 신제품 승용차에 대하여 2008년까지 1995년 대비 25% 감축되는 140그램/km의 이산화탄소 배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자발적 협약 내용에 따르면, 2000년까지 120그램/km 배출수준의 자동차를 출시하고 2012년까지 120그램/km 배출 자동차 생산여부에 대하여 재검토하도록 명시하였다.

2) 地球環境問題에 대한 主要 産業別 對應

주요 제조업 업종별로 이러한 무역과 환경연계의 논의 동향, 국제환경협약의 진전의 종합적인 과급영향과 대응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鐵鋼産業의 경우 제조공정상 불가피하게 화석에너지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특성으로 이산화탄소의 발생이 매우 높아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바젤협약으로 인한 고철 및 슬래그, 금속성 산업폐기물의 처리 및 이동 제한도 산업활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미국, EU 등 선진국 그룹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 3개국도 지역환경협력의 문제중 하나로 산성비 문제에 대한 대응논의가 진전됨에 따라 석탄 사용에 따른 아황산가스의 배출도 감축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생산, 유통, 판매, 최종처리에 이르기까지 환경친화적 경영체제를 구축하도록 요구하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범화 진전으로 인하여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自動車産業은 생산공정과 최종제품의 소비에 이르기까지 주요 국제환경협약과 무역과 환경연계에 종합적으로 영향을 받게되는 대표적 산업이다. 우선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규제, 자동차 연비 개선의무 등으로 인한 직접적으로 생산비용의 상승과 주요 수출시장의 배출가스관련 대기관련법(미국, EU 등), 포장재회수 의무화(독일, 스웨덴, 덴마크 등), 재활용 의무화 규정(독일) 등 각국의 국내 환경조치로 인한 시장접근장애의 가능성이 있다.

이는 무역과 환경 연계에 따른 상계관세제도, PPMs, 각종 인증제도의 적용이 확대될 경우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이다. 또한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제한하는 CFC, 할론, 메틸브로마이드 등의 사용규제로 인하여 자동차 에어컨시스템의 대체 냉매 규제, 기타 제조공정상의 관련물질 사용제한 및 금지에 따른 제조원가의 상승이 예상된다. 따라서 선진국의 배출가스관련 환경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배기가스규제 및 연비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점진적인 기준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승용차에 대한 구분 및 시험방법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石油化學産業은 에너지 자원자체를 원료로 사용하는 한편 제조공정상 다량의 에너지가 소비되기 때문에 기후변화협약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온단열재, 자동차 내외장용 발포 폴리우레탄 제품 등 합성수지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발포제의 대체물질 사용으로 인한 비용부담도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바젤협약에서 규제하는 제사용 플라스틱, 제조공정상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분야도 국제환경협약의 영향으로 포함할 수 있다. 주요 선진국의 환경마크 및 인증제도, 포장재 규제 등도 환경관련 무역조치로서 수출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원료의 조달 및 제조, 제품 사용 및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의 환경비용 완화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우선 원료의 조달 및 제조 단계에서는 에너지 절약 및 지비용 대체물질의 개발 및 사용을 확대하고 사용 및 폐기단계에서는 잔폐물 및 포장재 회수 및 감량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폐플라스틱 처리 및 재활용기술,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발포기술 등은 해당 업계 전체의 보급확대가 필요한 분야이다.

시멘트산업도 철강산업이나 석유화학산업과 마찬가지로 다량의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기후변화협약의 영향이 매우 큰 제조업이다. 또한 화석연료의 사용에 따른 아황산가스 발생으로 한국, 일본, 중국의 환경관련이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쟁점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 발생저감을 위하여 혼합형, 저온소성형 시멘트 제조공법 등 에너지 절약형 생산방식에 대한 개발과 이산화탄소 분리 및 회수기술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전자산업과 관련되는 가장 중요한 국제환경규제는 CFC 등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규제이다. 현재 한국은 1994년이래 개도국으로서 의정서에 참가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CFC가 1999년 7월 사용금지 되고 있고 여타 물질에 대해서는 아직 감축일정에 따른 의무부담이 부여되지 않고 있으나 개도국으로서 지위 유지를 위해 1인당 연간 소비량 기준(할론에 대해서 0.3Kg)을 준수하여야만 한다. 또한 할론, 기타 프레온, 사염화탄소, 메틸크로로포름 등 대부분의 여타 물질도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폐되어야 하고 수출품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비엔나 협약 및 몬트리올 의정서의 규제는 컴퓨터칩과 같이 오존층 파괴물질을 세정제로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에도 적용됨에 따라 원료수급차질 및 생산비용증가가 예상된다. 현재 개별기업과 관련업계는 정부와의 공동 노력을 통하여 상당한 수준의 대응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CFC 파괴 및 분리기술, PCB 기판처리 기술 등 생산공정상의 기술혁신을 통한 비용부담 완화 대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과제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지구환경문제와 산업경쟁력의 일반적 관계, 무역과 환경연계의 논의 동향, 국제환경협약의 진전, 주요 제조업에 대한 파급영향에 따르면, 지구환경문제가 산업활동에 새로운 국제기준으로 정착되는 과정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개별국가의 환경정책이 무역제한 효과를 초래하거나 자국의 산업보호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후변화협약은 에너지 소비와 관련되어 산업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어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한국과 일본에 대하여 양국의 환경의 질적 개선과 함께 산업부문에서의 환경협력이라는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한다. 즉 뉴라운드의 환경

규제 강화와 무역자유화 진전 자체가 유발하는 제품시장의 확대, 환경산업 및 환경제품시장의 확대, 環境技術開發의 促進 등 긍정적 효과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韓日 産業部門 環境協力の 可能性 및 課題

한·일 양국은 산업부문에서 그 동안 막대한 규모의 交易과 直接投資, 資本 去來, 技術協力 등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다. 그러나 양국의 산업부문 환경협력은 특정한 오염물질의 관말처리 설비의 도입, 새로운 설비도입 및 개체에 따른 부가적인 생산공정의 효율 증대 등 비교적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져왔다. 이는 그 동안 양국의 산업정책 및 환경정책의 차이, 국제환경협약상 지위의 상이함, 그리고 환경관련 협력사업의 낮은 수익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되었듯이 뉴라운드 시대의 도래와 함께 하는 새로운 국제기준(global standards)으로서 환경문제는 양국 산업부문의 환경협력을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제공, 지속가능한 산업발전, 환경문제의 費用效果的인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相互 利益이 되는(mutually beneficial) 부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① 東北亞 環境協力の 進展

우선 국가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일, 한·중·일 환경협력 혹은 동북아 환경협력의 진전을 들 수 있다. 한·중·일 3개국 정부는 1992년 UNICED 이후 東北亞 地域內 環境協力の 重要性을 인식하기 시작하여 다자간 프레임워크 혹은 각국간의 양자간 환경협력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동북아 환경협력은 地理的 引接性으로 인한 越境性(transboundary) 大氣汚染 및 共有海域의 海洋汚染 등 동북아 지역내 국가의 공동대처가 필요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역내국가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또한 리우회의 뉴라운드 등 지구환경문제와 범세계적 실천계획인 Agenda 21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도 환경협력의 주요 요인이다.

특히 중국 동부지역의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월경성 오염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책 메커니즘의 설정을 통하여 역내 환경오염 피해의 최소화를 이루는 문제가 주요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다. 월경성 오염의 문제는 주로 가정과 산업부문의 화석연료 연소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 질산화물, 탄화수소 화학물질에 의한 산성비 피해를 동반하고 있다. 산성비는 토양과 산림의 훼손, 농작물 및 식물의 수확 감소, 인체에 대한 피해 등 포괄적인 환경오염피해를 유발한다. 현재

동북아 지역은 한·중·일 삼국의 지속적인 에너지 소비 증대로 인하여 주요 산성비 피해지역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문제로 분류되는 주요 동북아 환경문제로서 황사문제를 들 수 있다. 황사는 중국의 내륙과 몽고지역에서 발생하는 자연현상의 성격이 강한 환경문제이나 황사에 포함되어 있는 중금속 등의 장거리 이동으로 인하여 지역환경의 질을 매우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양 및 하천의 오염문제도 한·중·일 삼국의 공동 관심이 집중되는 동북아 환경문제의 하나이다. 특히 각국이 서로 공유하고 있는 황해와 동해에 하천이나 강을 통해 유입되는 폐수 및 유류오염사고 등은 대표적인 오염사례이며, 특히 중국 황하에서 배출되는 연간 약 751만 톤의 중금속의 유입 및 만해만 시추현장에서 방류되는 원유 유출 등은 각국의 공동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 환경협력의 진전은 대부분의 환경오염 대응방안 마련에 있어서 民間企業의 구체적인 參與를 강조하고 있다. 물론 중국과 한국 및 일본의 입장 차이,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의 합의 미흡, ESCAP이 한시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사무국 체제의 효율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국내외 환경규제의 강화와 인식증진으로 인하여 한국과 일본 산업부문의 적극적인 참여가 유도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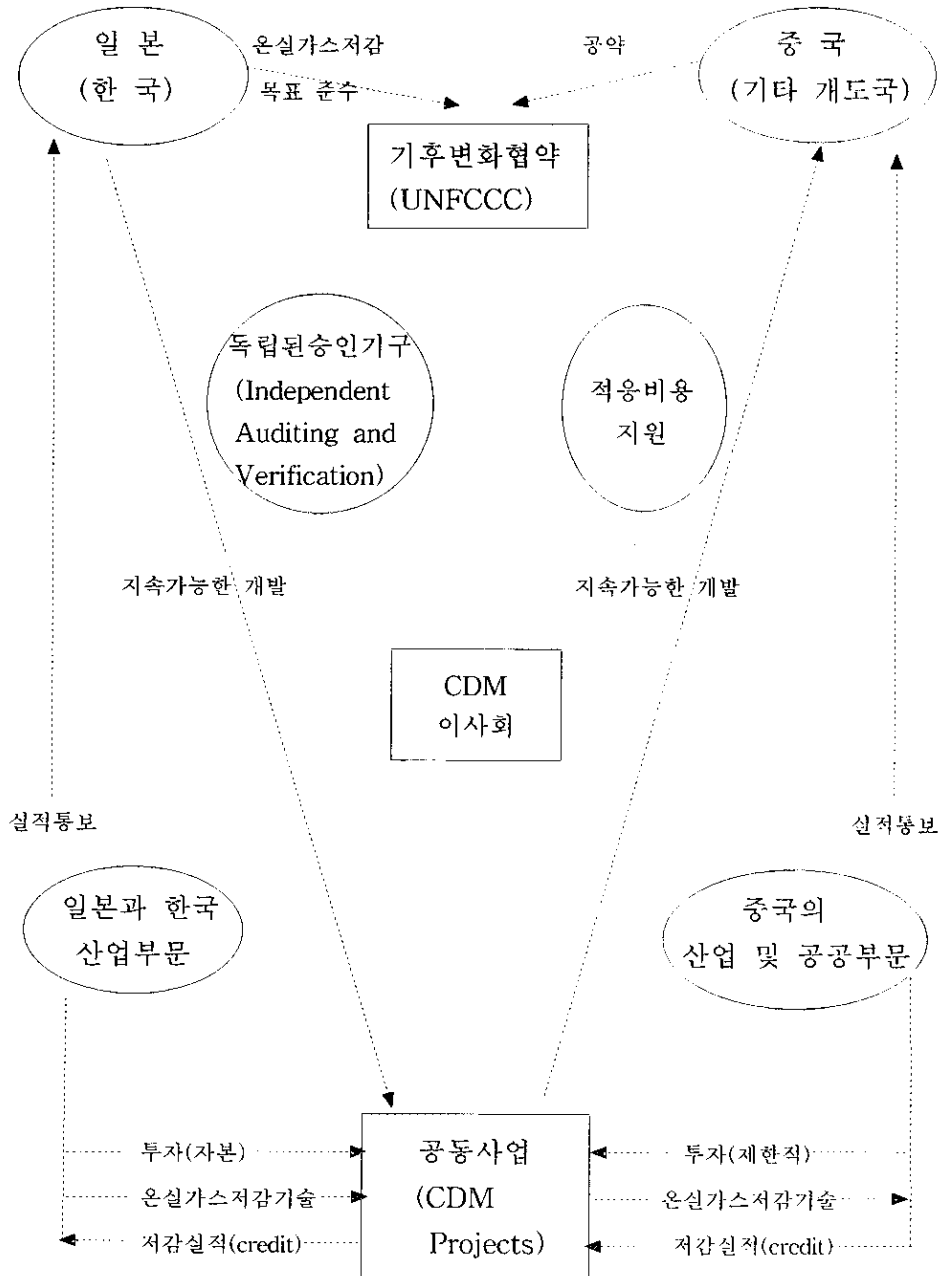
예를 들어, 中國의 沙漠化 防止와 황사현상 억제를 위하여 한국의 재지 및 목재산업의 造林 및 再造林 사업 참여 제안, 중국의 대기오염 억제 및 지구온난화 가스 저감을 위한 일본의 에너지부문 및 植樹支援計劃 등은 동북아 환경협력에 있어서 산업부문의 활발한 참여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저감사업은 한·중·일 환경협력의 다양한 모델을 제공한다. 우선 중국은 낮은 저감비용의 사업을 광범위하게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 저감사업의 공급자로서 참여하고, 한국은 일부 저감사업의 공급과 함께 일본의 산업부문과 협력하여 중국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저감사업의 수요자로서 참여하게 된다.

교토의정서에 의하여 제1차 공약기간중 온실가스 배출억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일본은 자국의 높은 오염저감비용을 회피하고 산업부문의 높은 수준의 저감기술과 사업수행을 위한 자본협력을 통하여 저감의무량의 일부를 획득하는 청징개발체제 방식의 시장참여를 할 수 있다.

아래 그림은 한일 산업부문의 협력을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는 방식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온실가스 저감의무국은 아니나 향후 의무국에 편입될 가능성이거나 혹은 저감의무국이 아니더라도 사업의 투자주체로 참여하게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림 2> 한·일 산업부문 협력을 통한 대중국 및 개도국 청정개발체제 사업 수행 흐름도



② 兩國의 産業構造 變化와 國內外 環境規制 強化

양국의 산업부문의 환경협력 가능성은 점차 강화되는 國內環境規制로 인하여 증대된다. 한국은 1990년대 이후 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하여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排出賦課金, 排出基準의 강화, 自發的 協約 등 산업부문의 명시적 선언 유도 등 직접규제와 간접규제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고 전반적인 규제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국내 환경문제에 대한 규제수준은 유지되고 있으나 지구환경문제와 새로운 환경오염물질의 발생, 소비자의 環境親和的 産業活動 요구 등으로 국내의 환경문제에 대응해야 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주요 문제로 부상하게 된 환경문제의 성격을 고려할 때 일본의 경험과 대응방식은 한국 산업부문에 효율적인 환경대책 마련에 도움을 줄 것이며 일본은 기존의 양국 산업협력의 새로운 분야로 한국의 환경비즈니스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한국은 1970년대 이후 重化學 工業중심의 에너지 다소비형, 오염다배출형 산업의 비중 증대로 인하여 자원소비와 환경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산업구조의 소프트화, 知識集約化 등으로 인하여 자원소비와 오염배출의 원단위가 낮아지는 추세이기는 하나 아직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비하여 높은 수준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일본은 1950년대 중화학공업의 급속한 진전, 에너지원의 전환 등으로 심각한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을 경험한 이후 1970년대 이후 산업활동이 에너지 절약 및 자원 보전형 체제로 전환하면서 전통적인 의미의 환경문제는 상당히 완화된 상태이다. 그러나 非規制 物質의 증가 등으로 새로운 환경오염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이후 지구환경문제와 폐기물문제 등의 무각과 함께 서비스, 정보산업, 에코비즈니스(eco-business)의 증가와 함께 産業活動과 環境保全을 統合하는 접근이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규제 강화추세에 따라 기존의 산업은 불가피하게 환경관련 투자와 지출을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중화학분야의 산업은 상당한 수준의 규제준수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주요 제조업분야에서 원료투입, 생산공정, 폐기물 처리 등에서의 협력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오염저감과 함께 새로운 기술협력을 통한 상호 이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철강산업의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본의 해당업계에서 적용하고 있는 폐에너지 회수기술, 에너지 수급관리의 최적화 및 차세대 제철기술의 개발 등의 분야에서 협력 가능하고 시멘트산업에서는 콘크리트 폐기물의 재활용 기술, 공정개선, 폐열발전기술 등에서 상호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부록 1> 참조)

③ 兩國 環境産業의 成長

앞서 부분적으로 제시된 환경관련 산업시장규모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의 환경산업시장은 환경설비와 환경서비스 양 부문에서 모두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할 전망이다. 현재 한국의 환경설비 및 환경서비스 시장의 성장은 보수적인 추정에 의해서도 약 8% 이상, 고성장 시나리오에 의하면 14% 이상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환경설비시장은 산업부문의 경우 기존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배출의 성공적인 저감과 저오염 생산방식의 확대에 의해 환경시장의 민간수요증대는 미미할 것이나 하수도 정비 등 공공부문의 수요는 꾸준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환경친화적 경영에 대한 압력 증대로 인하여 환경컨설팅, 환경보험 및 금융, 환경감사 등 환경서비스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이는 양국의 기존 산업부문에 대하여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한다. 우선 양국의 산업부문이 비즈니스 기회로서 환경산업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목재, 제지 산업 등에서는 山林復元, 切開地 復元, 河川復元 및 기타 生物關聯産業 등 環境復元事業이 새로운 사업분야로 부각된다. 또한 기존의 엔지니어링 및 건설산업의 경우에는 斷熱施工, 地畵冷煖房, 에너지 저소비형 주택건설, 발전시설, 오염물질 최종처리시설 등에서 꾸준한 수요증대를 바탕으로 신규 사업진출이 가능하다. 기계 및 소재산업의 경우에는 단열재, 배출가스촉매, 환경친화적 건설자재, 대기 및 수질오염 방지장치, RDF 제조 및 이용장치, 대체에너지 발전설비 등에 진출이 가능하다.

둘째로 전통적인 산업활동에 새로운 環境經營技法의 導入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자이자 주요 오염물질 배출자인 산업부문의 역할은 기존의 환경규제에 대한 수동적 접근, 예방적 접근 방식을 벗어나 제품의 제조, 유통 및 판매, 이용, 폐기 및 재활용의 단계에서 환경에 대한 부하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는 산업체가 환경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제품의 전과정(life-cycle) 평가에 기초한 자원의 선택, 제품의 설계, 생산체제의 전환 등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산업활동과 환경의 통합적 접근은 다양한 환경서비스의 수용, 환경경영 기법의 도입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ISO 14000이나 SA 8000과 같은 주요 환경기준 달성을 지원하는 서비스, 環境計定の 도입 및 운영, 에너지 절약 및 資源循環形 시스템 구축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 환경측정, 분석, 영향평가의 대행 서비스, 환경교육 및 감사 등 인식증진 서비스 등에 대한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 양국의 산업부문은 해당 분야에 대해 종래의 일방적인 기술도입을 지양하고 기술도입국의 기술 습득능력을 배양한 후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개발하거나

기존의 한·일 협력재단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환경서비스 관련 협력은 적용방법론 자체의 교류와 함께 인적, 시스템적 교류를 통하여 환경협력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환경기술분야에서는 점차 환경기술이 기초과학을 기반으로 하여 기계, 화학, 전기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응용과학이 복합적으로 동원되는 종합기술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에 대응하여 한·일 동종업종의 협력 이외에도 산업간 협력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④ 韓國 및 日本의 對外 環境協力 增大

마지막으로 강조되는 한·일 양국의 산업부문 환경협력의 가능성과 과제는 양국이 그 동안의 성공적인 산업활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대개도국 환경협력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이는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관계 뿐만 아니라 戰略的 提携의 고려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우선 일본은 개발도상국 특히 아시아지역의 자립적인 환경개선 노력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꾸준히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들어 과거 개도국의 요청에 의한 지원에서 공동으로 환경문제를 개선하여 이익을 향유한다는 공동형성주의라는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협력방식으로는 유무상 자금의 지원, 전문가 파견 및 인력교류, 기술협력, 다자간 협력의 참여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일본의 산업부문은 비영리적 활동으로서의 환경협력과 함께 環境保全事業(eco-business) 참여 및 기술이전, 환경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rogram) 프로젝트의 발굴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 아직 대개도국 환경협력사업이 초기단계이긴 하지만 기존의 한·중, 한·러 환경협력을 통하여 월경성 오염문제와 생태계 탐사, 환경산업부문 기술협력의 경험을 갖고 있다. 산업부문으로서는 장치산업의 해외진출시 고효율 설비 및 환경친화적 공정의 도입 등으로 간접적인 환경기술협력이 진행되어 왔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조림사업과 같이 해외자원 확보 측면에서 부가적으로 환경친화적 경영과 기법을 적용한 사례도 있다.

한국과 일본의 환경친화적 산업활동의 해외진출은 해당시장에서 獨立的, 競爭的 관계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개도국 환경관련 시장의 점진적인 확대 추세를 고려할 경우 相互 補完的인 한·일 산업부문 환경협력 사례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아시아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적 근접성이나 기존의 경제협력 경험 등으로 인하여 보다 효율적인 사업참여를 기할 수 있다.

현재 일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Eco-ASIA의 산업부문에서의 활용은 한·일 양국의 대개도국 환경협력의 긍정적 사례가 될 수 있다. 특히 강조되는 사항은 양국의 대개도국 투자 및 교역에 있어서 淸淨生産技術, 환경친화적 기술의 교류 및 이전을 들 수 있다. 또한 환경경영체제와 중소기업에 대한 고려도 산업부

문의 해외진출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특히 개도국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생산활동 단위당 오염집약도가 대기업보다 높은 경우가 많으나 자금, 기술, 정보 측면에서 아주 취약한 상태이다. 이 분야는 양국 정부와 개도국 정부와의 환경협력 차원에서 기본적인 합의를 이룬 후 환경개선 성과의 배분 등 민간기업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여 접근할 수 있다.

한·일 양국의 산업부문이 다양한 협력관계에 기초하여 技術革新, 研究·開發, 생산 및 무역 증대 등 경제·사회발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였고 인적자본 개선, 하부구조 발전 등에 긍정적 효과를 이루어낸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뉴라운드로 대변되는 국제환경규제의 진전으로 인하여 산업활동 및 협력도 단지 해당 환경규제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전략의 일환으로 양국의 삶의 수준 향상 및 고용증대 등 산업활동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생산과 소비과정에서 파생되는 환경에 대한 부담을 극소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양국의 기업은 앞서 살펴본 지구환경문제와 국제환경협약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공동대응과 함께 環境關聯 技術移轉, 海外投資, 戰略的 提携 등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새롭게 정립되는 地球環境秩序에서 競爭力 優位를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參考文獻>

- 외교통상부, 「외국의 통상환경」, 2000.
-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협약 대응 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1996.
- 이명균, 정승태, 「온실가스 배출전망 및 한국경제의 대응」, LG경제연구원, 1998.
- 임동순외 2인, 「대기오염 규제제도의 주요산업별 영향과 효율적 개선방안」, 산업연구원, 1998.
- 산업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청정개발체제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 공동사업 타당성조사」, 환경부 용역보고서, 2000. 3.
- 산업연구원, 「환경 서비스산업의 실태분석 및 육성방안」, 산업자원부 용역보고서, 2000.
- 안기철외 3인, 「환경친화적 산업발전」,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1998. 2.
- 유상희, 「국제환경규제와 산업경쟁력」,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1997. 12.
- 환경부, 「환경보호 목적의 무역규제에 대한 대응방안 조사 연구」, 1999. 12.
- 환경부, 「일본의 신환경정책」, 국제협력관실 해외환경자료 Vol. 3., 1999. 12.
- EBI Inc., *OECD Future Liberalization of Trade in 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 : Ensuring Environmental Protection As Well As Economic Benefits*, recitation, 1999. 3.
- Lim, Dongsoon and Myung-Kyoon Lee, *Estimation of the CDM Market Potential in Korea*,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eSeTo Conference of CDM, Beijing, March, 2000.
- OECD, *Environmental Policies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1993.
- World Bank, *Five Years after Rio : Innovations in Environmental Policies*, 1999.

<附錄 1> 韓日 兩國의 主要 産業部門의 環境協力分野

주요 산업	환경협력분야
철강산업	<p>에너지 절약 및 연소기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효율(고내열성) 열교환기 개발 · 저 NOx 버너 개발 · 제철소 배에너지 이용 지역난방 · 고로, 전로 Slag 현열회수기술 · 신제철 프로세스 개발 <p>오염물질의 배출저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2 회수 고정화 기술 · 배가스의 SOx, NOx 동시 제거 기술 <p>폐기물의 재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lag, Dust, Sludge, Scale, 냉연산화철의 전자재화, Fine Ceramic 원료, 전자 및 자기재료 등의 고부가가치화 · Tar, 조경유 등 화성부산물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석탄화학제품 개발
석유화학산업	<p>원료조달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플라스틱의 재생자원화 · 재생 플라스틱의 용도 확대 <p>제조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절약설비인 고효율 압축기능의 에틸렌 설비 개체 · 중/저온 에너지 회수기술, 고성능 촉매이용 공정의 개발 · 청정생산기술 개발 (저온, 저압에서 적용 가능한 나프타 촉매기술 개발, 바이오리액터 기술개발) <p>폐기물의 재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분해성 및 광분해성 플라스틱 생산기술 · 재활용이 용이한 플라스틱 개발
비철금속산업	<p>원료조달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순물 제거 및 고순화 기술 : 공기산화법, 첨가제 처리법, 진공처리법 <p>제조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절약 및 SOx 배출감소 생산기술 (광에너지, 박테리아, 신규용매 등을 이용) : 바이오 및 화학 리칭(reaching)기술 <p>폐기물의 재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한 자동차 및 가전 등의 부품제조 기술 · 폐기물의 재생자원 회수기술
시멘트 산업	<p>원료조달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효율 분쇄기(Mill), 분급기(Separator), 가소로(Calculator), 냉각기(Cooler)의 설치 <p>제조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 SOx, NOx 배출형 소성기술 · 배연탈황, 탈질기술 · CO2 처리기술
산업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염분석장치 · 대기, 수질오염방지장치 · 환경계정의 도입 및 운영 · 에너지 관리 및 절약 컨설팅 · 환경측정, 분석, 영향평가, 유지 관리 · 환경금융 및 보험, 환경감사 및 교육, ISO 14000, SA 8000 준수, 취득 지원

자료 : 산업연구원

〈第 2 分科會〉

(日本側 백그라운드 페이지)

環境政策 實現을 위한 社會基盤 整備

- 環境經營 推進 및 持續的인 經濟發展을 위하여 -



第一勸銀綜合研究所 研究開發本部
研究開發部 特別研究員 勝田 悟

1. 머리말

환경문제는 이제 지구촌의 과제로 부상했으며 동시에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국제적인 대응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기업경영에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 기업활동에 따른 환경부하를 감소시키는 노력과 함께 환경시장의 확대를 겨냥한 경영전략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환경보전에 관한 산업시장은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 경영전략상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반면 환경대책을 소홀히 한 결과 사회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발생시켜 기업의 존속을 더 이상 바랄 수 없게 된 사례들도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환경규제 등의 진전과 보조를 맞춘 환경보전 기술의 개발이 시급하다.

일본에서는 1960년대 공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엄격한 환경규제를 실시, 대기오염 방지와 수질오염 방지 등에 관한 기술개발이 진전되었다. 이들 기술을 이용한 관련설비 및 장치는 산성비 문제로 부심하던 유럽 동지로 수출된다. 근년들어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세계적인 규모로 확대됨에 따라 각국은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힘쓰고 있다. 21세기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 환경보전 활동은 반드시 필요하며 새로운 기술개발이 강력히 요구된다. 환경문제의 확대는 한 국가의 차원이 아닌 국제간의 협력대응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한국 및 일본의 산업계가 협력하고 환경문제에 함께 대처하며 환경산업을 새롭게 육성해 나가면 동양의 중추적인 존재로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환경문제에 관한 국제적 동향

2. 1 지속적인 개발

1972년 6월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선진공업국들의 생산효율을 추구한 경제발전에 따른 환경부하의 확대 및 개발도상국의 빈곤이 사회적인 문제로 거론되었다. 그로부터 20년후인 1992년 6월 한층 더 심각해진 환경오염 문제를 세계적인 차원에서 대처하기 위한 유엔환경개발회의(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가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오선언」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행동계획과 자금협조를 규정한 「아젠다 21」이 채택되었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이란 1989년에 공표된 IUNC(국제자연보호연합), UNEP(유엔환경계획), WWF(세계자연보호기금) 등 3자 공동의 「세계환경전략(World Conservation Strategy)」에서 최초로 제창되어 유엔의 개발과 환경에 관한 세계위원회가 1987년에 공표한 브룬트란트 보고를 통해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오선언에서는 환경보호는 「개발과정의 일부이다」라고 정의하면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

2. 2 기술이전

유엔 환경과 개발에 관한 회의(1992년)에서 채택된 아젠다 21의 제34장에서는 환경문제에 있어서 적정한 기술이전, 협력 및 대처능력의 강화를 촉구하면서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정보의 입수와 환경문제에 관한 적절한 기술취득 및 그 이전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지속가능한 개발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환경기술은 환경규제를 배경으로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환경법에 의거한 규제와 진전과 병행하여 기술개발도 향상됨으로써 환경보전이 확보된다. 엄격한 규제와 환경기술의 향상은 늘 균형 잡힌 것이어야 한다. 환경기술이 따라가지 못한 채 환경법에 의해 강제적인 규제가 실시되면 산업계에 혼란과 불이익을 초

래하여 도리어 환경보전 정책이 실패하게 된다. 그러나 근년들어 세계적으로 환경보전에 관한 의식이 고조됨에 따라 세계적인 환경규제도 강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은 수준높은 환경보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졌다. 국내 기술중 그 수준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기술도입을 도모해야 한다. 국내의 환경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일은 국제적인 환경보전 활동에 대해 주도권을 잡는 일이 되며 환경설비, 기기 등의 수출을 기대할 수 있어 국제경쟁력의 강화로 이어진다. 환경규제와 기술 수준의 균형을 늘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한일양국이 환경기술 교류 및 정보교류를 실시하면 합리적인 환경기술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2. 3 국제적인 환경규제

환경문제는 인류의 존속을 위협하고 있어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규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규제는 인간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환경에 가장 커다란 부하를 주고 있는 산업활동에 대한 제한이 엄격하게 규정되고 있다.

(1) 지구온난화

1988년에 런던에서 개최된 「변화하고 있는 대기권에 관한 국제회의」의 결과에 따라 WMO(세계기후기관)과 UNEP(유엔환경계획)의 지도하에 기후변동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이 설치되고 1990년 10월의 세계기상회의에서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평균온도의 상승, 해면상승에 대한 보고가 나왔다. 같은 해 12월의 제45회 유엔총회에서는 「기상변동 프레임워크 조약 정부간 교섭회의」가 설치되고 1992년 5월에 「기상변동에 관한 유엔 프레임워크 조약(UNFCCC)」이 체결되었다. 같은 해 6월의 브라질에서 개최된 지구회의에서 조인식이 실시되어 155개국이 이에 조인했다. 1997년 12월에는 교토에서 해당 조약의 제3회 체약국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온실효과 가스로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HFC, PFC, SF₆가 지정되었다. 온실효과가스의 삭감목표는 1990년(HFC, PFC, SF₆는 1995년)의 배출을 기준으로 최초의 목표기간인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선진국 전체가 5.2%, 일본은 6%, 미국이 7%, EU가 8%이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자동차 제조산업 및 철강업이 주요 산업이다. 그러나 자동차의 배기가스와 철강생산에서는 온실효과 가스(이산화탄소)를 대량 발생시키기 때문에 국제적인 환경규제 측면에서 어떤 형태로든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양국의 협력을 토대로 한 효율적인 대응을 기대한다.

(2) 오존층 파괴 / 자외선의 증가

CFC류와 염소계 유기용제가 대기에 방출되어 성층권에서 화학반응을 일으킴으로써 오존층이 파괴되는 현상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오존층이 파괴됨으로써 지상에 다량의 자외선이 도달, 생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 환경파괴에 대해서는 이미 「오존층의 보호를 위한 빈 조약(효력발생:1988년)」이 국제조약으로 채택되었고 규제의 내용에 대해서는 「오존층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합의된 바 있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반도체 관련 생산이 세계에서 수위를 달리고 있으나 생산공정인 세정 과정에서 다량의 규제물질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규제물질은 국제조약에서 이미 전폐되어 이 문제는 거의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규제물질에 대해서는 현재 과도적 물질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그 대체품 개발에 사업의 기회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유해물질 대책

오염물질배출이동등록(Pollutant Release Transfer Register : PRTR) 제도는 기업으로부터 배출 또는 폐기되는 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종류와 양을 기록하고 행정이 그 데이터를 관리규제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 PRTR의 범위는 지역 환경오염에서 지구 환경오염까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잠재적인 환경오염의 위험을 지닌 많은 물질이 대상이 된다. 이 제도는 1992년의 유엔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아젠다 21의 제안에 따라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OECD에서는 1996년 2월에 가입국들에 대해 「PRTR제도 도입을 위한 권고」를 실시했다. 이미 PRTR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개개의 기업의 정보를 공개, 기업의 자율적인 오염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기업의 배출정보와 농업·교통의 방출정보를 종합적으로 처리, 평가하고 환경정책 전반의 진척 상황을 감시하고 있다.

본 제도는 환경정보의 정비가 뒤떨어진 기업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환경보호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간의 차별화가 명확히 드러나게 된다. 아울러 각국의 환경오염에 대한 상황을 비교할 수 있다. 한일양국은 양국 산업계의 협력하에 전 산업의 환경활동에 대한 표준화를 실시하여 선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구미 각국의 제도수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일이 과제다.

(4) 환경영향의 증명과 국제적인 합의 수준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의 온난화 환경악화 확정 이론(도표1 참조)를 참고로 환경영향과 국제적인 합의 수준을 고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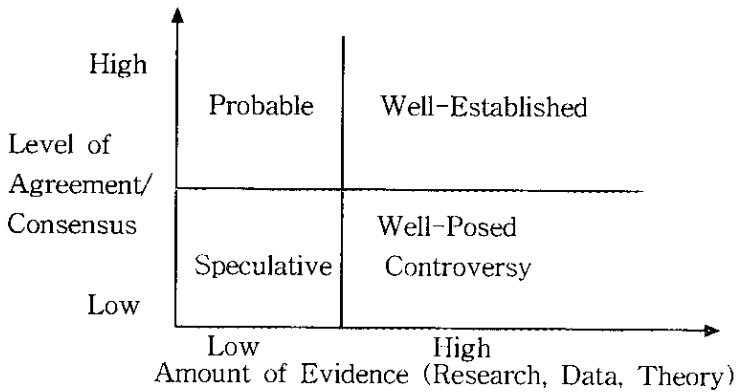


도표 1. 영향에 대한 증명과 동의수준

①오염에 대한 과학적인 증명의 정도가 낮고 이해관계자의 합의수준이 낮은 경우(Speculative)는 아직 검토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으로서 다뤄진다. ②증명의 정도가 높고 합의 수준이 낮은 경우(Well-Poses Controversy)는 합의를 얻기 위한 어려운 논쟁의 부분으로 다뤄진다. ③증명의 정도가 낮고 합의 수준이 높은 경우(Probable)는 오염의 개연성이 있는 부분으로 다뤄진다. ④증명도가 높고 합의 수준이 높은 경우(Well-Established)는 오염이 확정된 부분으로 다뤄진다.

④(Well-Established)에 해당되면 법률에 의해 강제성이 있는 환경오염대책을 실행한다. 환경에 관한 기술개발과 환경오염방지대책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 이론은 장차 환경오염 대책을 강구하는데 있어서 참고가 될 것이다. 양국이 함께 안고있는 폐기물 문제는 ④ 보다는 ①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여러 가지 시각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기술이전 시에는 양국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으로 적절한 환경보전 수준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③까지만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환경문제는 적절한 환경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2. 4 선진적인 국내 환경규제

선진적인 국내 환경규제의 사례로 다음 세나라의 환경법을 소개한다.

(1) 독일

순환경제폐기물법(1996년 시행)에서는 환경 부하에 대한 제조물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자원순환형 사회로의 이행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선진국들은 이에 대한 대응을 서두

르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독일에서는 또 1991년부터 폐기물 관리상, 처리의 우선순위를 ①발생회피 ②재이용 ③처분의 순으로 정했는데 이는 한국이 1993년에 공표한 「폐기물 처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폐기물관리 우선순위인 ①감량화 ②자원화 ③적정처리의 순서와 일치한다.

(2) 영국

1990년 환경보호법 속에 규정돼 있는 통합오염규제(IPC)는 모든 환경배체를 일원관리하는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제조공정에 대해 설치사전허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환경의 종합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사전허가 요건은 「과대한 비용 부담이 없는 최선의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의무화돼 있다. 본 제도는 EU에서도 검토되고 있는 제도이다. 내분비 교란물질의 오염 등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 환경오염대책으로서 향후 국제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미국

수퍼펀드법(Comprehensive Environment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of 1980, Superfund Amendments and Reauthorization Act of 1986)에서는 기업의 사고대책, 오염물질 방출, 사용물질 및 그 성질(Material Safety Data Sheet : MSDS)에 관한 정보에 대해 공중의 「알 권리」를 토대로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기업의 환경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사회적으로 환경경영 자세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면서 산업계에서는 안전한 대체품 및 대체기술의 이용이 촉진되는 효과를 낳고 있다. 물질의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성질과 유해물질 정보에 대해서는 유엔에서도 국제유해화학물질등록제도(International Register of Potentially Toxic Chemicals : IRPTC)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MSDS와 관련 오염대책 정보 등에 대해 한일양국이 정보교환과 공동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효율적인 환경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3. 환경경영의 인센티브

1991년 4월에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ICC)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산업계 헌장」 발표후 국제표준화기구가 환경규격으로 검토하고 있는 ISO 14000 시리즈, 화학공업회의 RESPONSIBLE활동 등 국제적으로 산업계의 환경보호에 대한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개별기업의 기업환경 리포트와 함께 최근에는 환경회계의 공표와 기업환경 평가의 필요성도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3. 1 환경보전 활동

사내의 환경보전 활동으로서 ①기업의 사회적인 환경책임(환경오염손해 보상), ②자원의 효과적인 이용, 에너지절약 등의 환경효율성 향상, ③환경정보의 정비 및 공개(기업환경 리포트, 환경회계)에 대한 검토가 전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을 중심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중소·중견기업의 대응을 활성화시키는 일이 과제이다. 이 문제는 한일양국의 공통과제라 할 수 있다.

3. 2 환경전략

현재 일본의 환경산업 시장규모는 약15조엔으로 추정되며 2010년에는 40조엔 가까운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환경을 고려한 사업의 창출 및 확대는 환경 정책 실현을 위한 사회기반 정비의 일환이 된다. 한국의 시장과 연계가 가능하면 환경산업이 보다 활성화되고 양국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회적 기반은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3. 2. 1 새로운 시장

환경법에 의한 규제가 실시됨에 따라 여러 가지 산업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투입되는 기술은 기존기술의 응용개발로 대응 가능한 것과 신기술 개발을 수반한 복합기술이 있다.

가령,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술은 표1과 같이 개발이 필요한 기술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전자조작 기술이나 초전도 등을 들 수 있다.

<표 1> 온난화방지를 위한 기술

기술분야	개 발 기 술
에너지	자연에너지 개발(풍력, 태양광 등) 천연가스, 초전도(전력저장)
생물공학	바이오마스(생물총량), 유전자조작 (광합성)
전기·기계	분산형 발전, 연료전지(자동차, 발전) cogeneration(열전병합), 에너지절약
정보통신	환경모니터링(리모트센싱 등)
화학	이산화탄소의 고정

3. 2. 2 밀레니엄 프로젝트 (일본 : 내각총리대신 결정)

일본의 2000년도 경제신생을 위한 예산은 2,500억엔으로 예정돼 있다.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분야로서 환경, 정보통신, 고령화가 지정돼 있으며 환경분야의 구체적인 테마는 다음과 같다.

- (1)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차세대 기술의 개발 및 도입
 - ①연료전지 ②테크노 슈퍼라이너 ③성충권 플랫폼 ④고도해양 감시시스템
- (2) 다이옥신 및 내분비 교란물질의 적정관리
 - ①리스크 평가, 적정관리기술의 개발
 - ②재활용·재이용 기술의 개발 및 도입
- (3) 순환형 경제사회 구축을 위한 대규모 조사연구

3. 3 환경정책에 있어서 경제적 수단

환경정책에 있어서 경제적 수단이란 세·과징금(charge), 보조금, 배출권 거래, Deposit제도(예치금제도) 등을 통해 시장 메카니즘에 의해 오염배출이 줄어들도록 경제활동을 유도함으로써 환경보전을 도모하는 일이다. 환경오염이 날로 복잡해지고 시간적, 공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환경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인 관점에서의 경제적 수단은 향후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많은 행정기관 등에서 보조금 제도를 도입, 실시하고 있는데 환경세는 아직 검토단계에 있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1983년부터 대기오염, 수질오염과 관련된 배출량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징수된 과징금은 한국 환경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기금으로 들어가 중소기업의 공해대책 보조에 충당된다.

양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관련 환경정책에 대한 정보교류를 하고 적절한 환경정책 방안에 대해서는 산업계가 자율적으로 제안하는 방향으로 나가기를 기대한다. 미래의 환경정책은 산업계가 주도권을 잡고 계획, 입안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환경보전을 도모하는 길이 될 것이다.

4. 환경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한일양국의 협력을 통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실시하면 환경정책을 위한 사회기반이 정비되고 환경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 (1) 환경기술의 이전 및 보급
 - 외국으로부터의 환경기술 유치
 - : 기술 잠재력의 향상, 자국의 환경관리능력 향상
- (2) 국내 환경규제의 정비
 - 환경기술 개발의 전척도와의 균형을 조정
 - 경제적 환경규제 수단의 협력(시장 메카니즘의 이용)
- (3) 전문가 인재육성 및 국제교류
 - 환경사업 및 환경연구의 공동지원기관 및 조직 구축
- (4) 공동정보의 정비 및 기초정보의 개발
 - 환경정보의 정비(정보통신의 시스템 및 콘텐츠 개발)
- (5) 환경사업에 대한 지원(환경투자, 환경융자)

韓日 兩側 백그라운드 페이지에 대한 自由討論

1. 韓國側 백그라운드 페이지 要約發表

- 主 題：『뉴라운드時代に 있어서의 環境協力
：韓日 兩國의 産業部門 環境協力 方案』
- 發表者：任 東 淳 産業研究院 産業政策研究센터 首席研究員

金 熙 勇 韓國側 코디네이터

대단히 감사합니다. 환경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항상 저희들 옆에 있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지난 30여년간의 고도성장을 위주로 하는 정책을 펴 나가다 보니까 환경은 재 이차적인 문제였습니다. 또 환경문제가 너무나 거창하고 넓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시작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보다 더 나은 환경을 남겨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큰 숙제입니다. 보통 환경하면 우리들의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NGO, 그린피스, 핵폐기물문제 등입니다. 그러나 환경은 이미 우리의 코앞에 와 있습니다.

환경문제가 지금 임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크게는 대기문제, 작게는 개개의 산업에 해당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기문제, 오존문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벌써 10여년 전에 특히 헤어스프레이에 프레온을 쓸 수 없도록 국제적으로 규제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 피부에 닿는 환경문제는 그 때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에 CO₂ 배출의 강한 기준, 전자산업에 CFC 배출문제, CFC는 CO₂에 만배 강한 독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CFC 규제를 받다 보니까 우리에게도 CFC를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동시에 선진국에서는 그 기술을 주지 않습니다. 유일한 해답은 생산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아까 임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이지 않는 무역의 장벽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더 우리 한일간의 협력으로서 이러한 장벽을 극복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벌써 작은 규모나마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농기구를 만드는데 일본의 유명한 이세키농기구와 협력해서 지난 30여년간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형 트랙터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저희의 엔진으로는 CO₂ 규제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구보다 회사를 통해서 이 CO₂ 규제 내에 있는 엔진을 공급받아 저희 트랙터에 장착해서 미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이긴 합니다만, 이러한 협력관계를 통해서 저희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또 구보다 역시 그러한 경제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해 나아가야 될 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환경경영이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박사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해결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국제적인 규제법을 준수해야 하고 또 거기서 발생하는 코스트를 해결해야 하고, 동시에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찾아야 하는 이러한 세 가지 큰 문제에 접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환경경영을 도입해서 저희 기업인들이 보다 더 나은 내일을 약속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박사님의 말씀은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환경경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지미 코디네이터께 한국측 발표에 대한 코멘트를 의뢰드립니다.

大慈彌 省三 日本側 코디네이터

감사합니다. 방금 한국측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가 느낀 바를 잠깐 말씀드리면, 어쨌든 뉴라운드 시대가 되었고 환경문제는 대단히 크게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속에서 국제적인 환경관련 기준에 입각해서 저희들이 그것에 맞추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생산활동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첫 번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저희들의 기업활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플러스인 면, 마이너스인 면이 있을 것입니다.

마이너스인 면으로는 역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출, 투자를 해야 할 것이고, 사용하는 물질의 규제도 받게 될 것입니다. 한편 플러스인 면으로는 그러한 규제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개발, 거기에서 유발되는 새로운 비즈니스라는 것이 창출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하드웨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일간에 공동으로 해 나아갈 분야는 지금까지 양국의 환경에 대한 규제, 일본이 일부 앞선 부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일 양국이 협력해서 추진함으로써 일본측에서 보면 한국에 플러스 비즈니스찬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더 확대시켜서 동북아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면 커다란 비즈니스찬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세계에서 92억조라는 커다란 비즈니스찬스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함으로써 양국에서 세계에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활발한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2. 日本側 백그라운드 페이지 要約發表

- 主 題 : 『環境政策 實現을 위한 社會基盤 整備
- 環境經營 推進 및 持續的인 經濟發展을 위하여 -』
- 發表者 : 勝田 悟 (株)第一勸銀綜合研究所 研究開發本部 特別研究員

大慈彌 省三 日本側 코디네이터

감사합니다. 발표하신 내용을 듣고 있으니 결국 환경문제는 국제적인 문제이다 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국제환경규제라는 것은 방금 세 가지 정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온난화문제, 오존층문제, 유해물질문제 등등이 있습니다만, 각각 국가에 따라서 상황의 차이가 있고 어떻게 규제를 가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선진국인 독일, 영국, 미국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발표가 있었습니다. 환경과 기업을 생각할 때 환경보전이란 관점에 있어서 기업이 어떠한 일을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환경이라는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 환경에 대한 기업전략 같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일본에 있어서도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밀레니엄계획에서도 환경이 하나의 큰 기둥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개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한일간 다섯가지 항목에 초점을 두면서 협력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내용이었었습니다. 화제 제공 측면에서는 잘 정리된 발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많은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측 코디네이터께 소감을 포함해서 부탁드립니다.

金 熙 勇 韓國側 코디네이터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환경하면 즉 에너지소비하고 즉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기 제신 기업인 모두가 크게 또는 적게 모두 연관이 되고, 이미 환경은 남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을 절실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오지미 코디네이터께서 아주 콘사이스하게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두 분 박사님들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환경에 대한 비전을 아주 잘 정리를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두 박사님의 논문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결 방안은 꼭 있습니다. 미래는 어렵지만은 않고 대단히 고무적인 기회가 많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大慈彌 省三 日本側 코디네이터

감사합니다. 예정된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이것으로 양측 백그라운드 페이지 발표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기서 약간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고 속행 후의 여러분의 자유토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브레이크 시간에 질문, 의견 등을 정리해 주시고 활발히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국에서 안내 말씀이 있겠습니다.

3. 自由討論

大慈彌 省三 日本側 코디네이터

그럼 지금부터 자유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국측에서 ‘뉴라운드시대에 있어서의 환경 협력’이라는 발표가 있었고, 일본측에서는 ‘환경정책 실현을 위한 사회기반 정비’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발표를 토대로 여러분께서 폭넓은 의견을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디만, 이 취지에 따라서 자유롭게 의견을 피력해 주시면 하는데 의견이 있으신 분은 거수를 하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에서 무선마이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자명, 성함을 말씀하신 후 의견을 5분 내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본과 한국측에서 번갈아 의견을 내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미쓰비시상사의 나까무라 부장님 부탁드립니다.

미쓰비시상사의 나카무라입니다. 환경문제는 상당히 폭이 넓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 두 분의 발표자께서 아주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어느 분의 질문, 혹은 코멘트라고 하기보다는 제 나름대로 환경문제를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 나가면 좋은지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셨듯이 환경문제 소위 말하는 인간사회가 산업발전을 함으로 인해서 비롯된 자연파괴나 여러 가지 오염이 일어났고, 나아가서는 인류의 종의 보전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커다란 깊이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하나로 묶어 나가기 보다는 개인, 기업, 국가, 세계 차원 식으로 차원마다의 문제라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해결책은 쉽사리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에 환경문제가 크게 거론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객관적인 혹은 과학적인 검증용 하고 나서 문제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대로 그러한 것이 있으면 환경문제에 대한 여러 차원에 있어서의 공통인식이 나오고, 공통인식을 파악하고 나서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상적으로는 주관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떠들썩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 보도도 센세이셔널한 입장에서 전체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나 주관적으로 이끌어 가면 최종적으로 세계차원에서는 경제의 남북문제라는 것에 귀착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해 나아가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환경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를 규제하는 것, 규제하는 이상적인 형태, 이에 대한 기술수준의 갭이 어느 정도 나온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무 이상적인 환경규제라는 것을 앞서 제정하고 거기까지 도달하지 않고 있는 기술, 국가까지 규제를 강요하게 되면 운영에 있어서 자위적인 행정이라는 것이 개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계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국가에 대한 차별 형태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문제점의 정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개인 차원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잡아야 합니다. 하나는 너무나 진행된 식생활 속에서 간접적으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겠다는 절약을 하겠다는 생각,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종의 보전이라는 관점에서 환경이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개인 차원에서 아주 철저

하게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도 한국측 발표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한 나라 혹은 한 기업문제는 이제 아니다, 국제협력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하는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남북문제, 기술이 앞서가면 앞서갈수록 후발국은 그에 대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국제협력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해 나갈 수 있는가, 평준화시키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하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책 해결을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기술개발, 요소기술, 응용기술 같은 개발을 국제 차원에서 하고, 그리고 코스트의 평준화를 도모하면서, 혹은 깨끗한 클린에너지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기술을 전파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大慈彌 省三 日本側 코디네이터

귀중한 의견, 대단히 감사합니다. 환경문제에 관해서는 하나는 환경인식이라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육의 내실화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 속에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개발이 불가피하고, 코스트를 최소화시켜서 기술개발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이전이라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한국측의 의견을 들어볼까 합니다.

金 熙 勇 韓國側 코디네이터

지금 미쓰비시상사의 나카무라씨의 발언이 계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세 가지 큰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한국은 6월이 환경의 달입니다. 6월 5일 대통령을 모시고 환경헌장을 선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일부터 10일까지 3일 동안 기업인들의 교육 차원에서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집합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CEO,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경영인들이 모여서 환경의 문제가 무엇이고 우리 피부에 닿는 문제가 무엇인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 우선 교육 차원에서 기업인들에게 환경인식을 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한 후에 국제협력 차원이나 기술개발이 뒤따르게 할 준비를 조금 늦었지만 이제야 시작했습니다. 이상제 코멘트를 마치고, 임동순 박사님께 코멘트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측 발표자였던 산업연구원의 임동순입니다. 우선 미쓰비시상사 나카무라씨의 여러 가지 지적들은 저도 공감하는 바이고,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과도 일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 측면에서 한가지 더 대답에 붙여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선 환경경영이라는 것이 야까 말씀해 주신 교육이나 홍보, 훈련의 증진, 국제협력의 강화, 적절한 기술의 개발 및 적용이라는 측면을 경영전략 전체 내에서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음으로 양으로 기업인 활동에 있어서 다 포함을 하신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야까 한국측 코디네이터께서도 강조를 하셨지만 현재 환경경영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 사례들에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감사보고서를 만드시거나 환경회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준비하시는데 있어서 논의된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의 제고나 훈련, 한일 양국간의 기술의 교류 같은 부분들이 여러 가지 난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항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업연구원의 김도형입니다. 사실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환경분야 협력을 위한 TASK FORCE 팀을 제 기억으로는 5~6년 전에 발족을 해서 1년간 스티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새롭게 환경문제를 거론하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제 또 저희가 일본측의 배려로 동경만을 유람했습니다. 상당히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만, 느낀 점은 이렇게 깨끗한 동경만을 유람하게 된 것도 결국 한세대가 걸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번 환경을 파괴하게 되면 그것을 회복하는데 적어도 한세대 정도는 걸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때 이 문제는 국제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양국이 앞으로 협력을 해 나감에 있어서는 국제적인 동향에 대한 새로운 인식, 양국을 둘러싸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에서 환경과파괴적인 요소에 대한 인식이 전제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오늘 두 분께서 발췌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국제적인 동향을 본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중국의 WTO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동안 오래 전부터 동해와 황해에 있어서의 중국의 영향,

환경파괴, 황사현상 등의 환경 움직임에 대해서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양국이 협력을 해서 중국에 대한 제재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뭔가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중국을 강하게 의식을 해 왔습니다만, 이제 중국이 WTO에 가맹함으로써 우리의 이러한 공동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전체적인 프레임은 갖추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할 때 적극적으로 여기에 임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준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를 돌아보면 지금 오랜 장기불황 속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다소 둔감해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든 경기가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시 환경문제가 대두될 것이므로 차제에 이런 우리들의 인식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태세를 갖추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나까무라씨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디만, 제가 생각하건대 결국 일본이나 한국이나 제조업을 근간으로 해서 경제발전을 이룩해 오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선진국이 제시하는 그런 프레임웍 속에서 그것을 외압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항상 뒤쫓아가는 결과 밖에 되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도 환경의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지만 뉴밀레니엄 프로젝트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결국은 순환형의 경제기술사회 구축을 위한 대규모 조사연구, 정책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이 제기하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대책, 다이옥신문제 등 이러한 국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결국 뒤쫓아 가면서 대응을 하고 적극적으로 기술사회구조를 말하자면 새로운 형태로 바꾸어가는 순환형 경제구조 구축이라고 하는 새로운 디자인은 뒤로 밀리는 수밖에 없지 않은가, 중요한 것은 이것을 전제로 해서 먼저 해결하고서 비전을 제시하고 이 속에서 어떻게 하면 환경규제와 기술개발을 조화시켜 갈 것인가 하는 대응자세로 나오지 않으면 안된다, 말하자면 프레임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분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의 문제, 더 나아가서 한일 양국이 앞으로 협력해 나가려고 한다면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겠습니다만, 일본에서는 다이옥신 내분비교란물질 문제가 몇 년전부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정부에서도 제기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아직도 여기에 대한 인식 자체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매스컴에서조차 이러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기술개발에 관해서도 연료전지라든지 대체에너지개발과 같은 것은 자금이 많이 들다 보니까 미래기술개발로 지적은 되어 있지만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 신문에서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한국에서는 토지규제 완화 이후에 국토의 난개발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카즈나 선생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장원리에 입각한 총량규제 측면에 있어서는 어느 의미에 있어서는 일본보다 약간 앞서고 있는 듯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일부에 그치는 것이고 역시 기술측면에서는 일본에 뒤질 수밖에 없는, 아까 지적해 주셨듯이 지구온난화 대책관련 기술개발만 하더라도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는 기술개발입니다.

그 속에서 여하히 한국과 일본이 협력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저는 20년 내에는 공동의 파트너로서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적은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어느 부분에서 협력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 공동의 파트너로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공동기술개발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 熙 勇 韓國側 코디네이터

감사합니다. 김도형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센터 소장님의 코멘트였습니다. 여러분들 어저께 저도 스미다강을 갔었습니다. 아름다운 많은 다리를 지나서 강을 유람할 때 안내원의 말씀이 옛날에는 스미다강이 오염이 되어서 강이 다 죽었었는데 이제 다시 물고기들이 돌아와서 깨끗한 강이 되었다고 자랑스러운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세계적인 환경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개별적인 나라들의 문제라고 말씀이셨습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함과 동시에 이제는 한국·일본·중국이 같은 의제를 놓고 대화할 수 있는 계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기가 저하될 때 둔감해 저는 환경문제가 경기가 살아남으로써 다시 또 환경문제 역시 대두되리라고 봅니다. 선진국 주도형의 이러한 환경문제가 어떻게 쫓아가는 우리로서 대응해 갈 것이냐, 또 어떠한 대체에너지문제가 있느냐, 어떻게 코스트 면에서 대체해 갈 것인가, 환경의 새로운 인식을 우리들이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술면으로 한국이 일본에 뒤지고 있는데 어떤 분야에서 우리가 협력을 하며 어떻게 좀더 디테일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이제 일본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좋은 코멘트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일본측에서 발표하실 분 안계십니까? 아까부터 화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서 월경적인 오염, 중국으로부터의 오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의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제조업 분야에서 살아왔습니다. 따라서 제조업으로서의 앞으로의 갈 길, 앞으로 저희들이 생각해야 할 부분, 이런 부분의 지적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그런 속에서 일본과 한국은 어떤 식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바의 와타리입니다. 방금 두 분께서 아주 흥미로운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도형 선생님께서도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5년 전의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 때는 공해문제에 한해서 논의가 있었지만, 지금은 경영의 환경문제, 환경의 중요성, 그리고 국제협력의 필요성에까지 화제가 확대되어 상당히 달라졌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두 분 발표자께서 특히 임선생님께서 환경문제에 관해서는 일본,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어제 김각중 전경련 회장님의 기조연설 속에서도 강조를 하셨습니다만, 한국에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서도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역시 중요한 것은 중국의 문제의식입니다. 중국의 문제의식을 어떤 식으로 향상시켜 나갈 것인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일본에 덧붙여서 중국을 포함시킨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자리를 많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미 정부간 차원에서는 3국 환경장관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차원에서는 3개국의 그러한 협의체가 아직까지 형성되지 않았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회의의 자리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민간차원이라고 할까요. 일본과 중국간의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97년 당시 하시모토 총리께서 방중하셨을 때, 21세기를 향한 환경보전을 위한 협력관계가 토의되었습니다. 그 하나로서 환경모델로서 중국에 있어서의 환경모범도시 구상을 민간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델도시로 되고 있는 곳은 중경, 기오, 대련입니다. 이 세 군데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성과를 다른 도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수준을 향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 개

도시에서는 구체적인 테마가 도출되었고 프로젝트팀이 구성되었으며 출범되었습니다. 그러한 기회를 앞으로 늘릴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모처럼의 기회이기 때문에 임선생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은 잘 모르는 것으로 한국의 경우 지리적으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인접해 있지만 직접적인 교류는 아직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산성비와 같은 자연현상에 미루어볼 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환경문제, 이미 한국측에서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에너지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에너지문제를 논할 때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도 에너지쪽으로는 자원이, 혹은 환경문제에서 말씀드리면 원자력의 역할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원전에 불상사가 있어서 약간 톤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원자력에 관한 환경문제, 혹은 에너지문제에서 봤을 때의 원자력발전문제, 어떤 인식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任 東 淳 産業研究院 産業政策研究센터 首席研究員

와타리 선생님께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두 가지 해주셨습니다. 앞부분에서 도시바나 일본의 일부 기업이 중국과 환경과 관련하여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시고 저에게 두 가지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대답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 두 문제가 상당히 논의가 되는 문제이고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입장을 통해서 대답을 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연구원이나 한국 민간대표나 한국 정부를 대신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연구생활을 통해서 얻은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북한과의 환경관련 문제는 북한과의 경제, 사회, 문화, 정치적인 문제는 차지하더라도 큰 문제 내에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과의 문제의 대표적인 것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환경문제와 에너지교류의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제 생각으로서는 북한의 공업화에 따른 대기오염, 월경성 문제가 중국보다는 크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내에 어떤 산림훼손문제라든지 토양의 문제는 협력 가능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한보다 북한의 산림지역이 넓습니다. 그 산림지역에 대해서 조림을 하

거나 새로운 식수를 사는 사업들은 국제환경협약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중요하게 저희들이 연구단계에서는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월경성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중요하게 보고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중국문제와 함께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북한과 에너지에 관련해서는 현재 전력, 혹은 잉여전력을 북한에 송전하는 방식을 기술적, 제도적, 민간의 교류차원, 실제적, 경영적과 같은 내용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기술적 난제들이 해결된다면 아주 좋은 모델의 에너지협력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원자력 문제는 한국과 일본이 공히 안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에너지문제입니다. 거의 많은 부분의 에너지를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특히 현재와 같이 우리의 산업활동이 화석연료 중심의 활동이라고 생각할 때 당분간 원자력 문제는 찬성과 반대를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에너지 관련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제가 느끼는 한국의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자력 자체에 대한 국민적 이미지 같은 부분들은 예전보다는 다소 적정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제가 구체적으로 반대라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적정수준을 유지해야 된다, 더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대국민 분위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정책이라는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아니지만 중기적으로, 예를 들어 2000년대 10년이라던가 초반이라던가, 혹은 현재 대체에너지기술이 상당한 비용을 수반하고 있는데 그러한 비용을 수반하는 것이 원자력과 유사하거나 혹은 단위당발전비용이 원자력보다 낮아지는 수준이 될 때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주요한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에 대해서 하나 더 첨언해서 드릴 말씀은, 원자력이 우리가 그동안 발전단가는 싼 연료인데 핵폐기물처리나 원자력발전소 자체를 분해해서 환경친화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디커미셔닝한다는 말씀입니다만, 그러한 것들의 비용이 애시당초 우리가 원자력을 처음 할 때보다도 상당히 비용이 높은 내용이라고 계속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정책에 있어서 중기적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조금 앞당겨 질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와타리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신 질문의 대답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金 熙 勇 韓國側 코디네이터

감사합니다. 지금 임박사님께서 도시바의 와타리 선생님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한국측에서 다른 코멘트를 부탁드립니다.

韓 鍾 瑞 (株)大斗 會長

(주)대두의 한중서라고 합니다. 한국측의 임동순 박사와 일본측 카즈다 사토루 박사의 환경에 관한 발표를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아주 광범위한 자료와 심도있는 분석으로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처해 있는가,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사족을 달 필요가 없이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음악을 들을 때마다 세계적인 성악가 마리오란자나 카루소, 파바로티가 왜 이탈리아에서 나와야 하는가, 왜 한국과 일본에서는 이런 세계적인 성악가가 나올 수 없는가 하는 의문을 가져 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환경조건에 따른 기후의 영향으로 이탈리아가 그만큼 혜택을 받았고 한국과 일본은 그만큼 여건이 되지 못하는 환경적인 영향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를 듣고 환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느꼈습니다. 이제 저희가 개발 위주로 계속해 나가다 보니까 지구의 환경이 돌이킬 수 없는, 즉 어느 한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나 어떻게 혼자서는 해 볼 수 없는, 그야말로 황상현상이라든가 오존층의 파괴, 지구의 온난화, 이러한 모든 것이 아무리 혼자서 노력을 해봐도 안되는 상황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만히 앉아만 있어선 안되고 국제적인 협력의 차원으로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결국 집약되는 문제는 개발하는 기술보다는 환경을 보전하는 환경기술이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기술개발의 어려움, 또 나아가서 이런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에 집약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어느 기업이 기술개발을 담당한다고 해도 이것은 기업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개발해 놓은 기술, 노하우를 개발비용을 회수하지 않고는 개발을 할 수 없는, 그러나 이러한 세계적인 인류의 지구환경 문제는 이런 환경기술을 개방하지 않고는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결국 기업 개별적으로도 안되고 개별적인 국가로서도 안되고 국제적인 협력, 우선 급한 것이 이웃간의 인접국가간인 것 같습니다. 한일간, 한중과 같은

인접국가간에 기술개발에 상호보완적인 길을 적극적으로 찾는 등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환경시장이 확대된 것만큼 그 시장에서 회수할 수 있는 길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해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金 熙 勇 韓國側 코디네이터

감사합니다. (주)대두의 한중서 회장님의 코멘트가 있으셨습니다. 저 역시 환경문제는 아직은 어떤 해결책보다 인식차원에서 보다더 많은 기업인들의 사회 교육차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왜 한국과 일본은 세계적인 성악가가 나오지 않느냐고 말씀하실 때 이것이 환경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우리 한국이나 일본은 지난 반세기동안 개발하고 공장을 세우고 일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으나 유럽의 수천년의 역사가 있는 나라들은 큰 삼림을 바라보고 알프스산을 바라보고 그러한 좋은 자연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훌륭한 예술인이 탄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파트 가운데에서 시멘트 콘크리트를 보면서 과연 위대한 예술이 나오겠는가 하는 공감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인접국가들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어야만 환경시장이 확대되고 거기서 투자한 것에 대한 회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일본측에서 여기에 대한 코멘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大慈彌 省三 日本側 코디네이터

방금 말씀이 계셨습니다.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기술개발이 필요하고 그 기술개발에는 코스트가 필요하며, 그 코스트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사업확대를 함으로써 가능하다, 그러한 속에서 일본과 한국이 협력해서 확장을 함으로써 기술개발에 대한 코스트를 회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제안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도 포함해서 일본측에서 의견을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林 寬爾 (社)經団連 北東아시아·러시아그룹長

경단련의 하야시라고 합니다. 국제협력그룹이라는 부서에서 한국, 중국과 같은 동북아시아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환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치가 깊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한국이라는 지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단련에서도 회원 여러분의 협력과 이해를 얻어서 오랫동안 환경문제에 대응해 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까지의 흐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60년 후반에서 70년대에 걸쳐 환경문제는 공해방지라는 차원에서 주목되었습니다. 그리고 70년에 들어서 식유의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절약이라는 부분이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0년대에 들어서는 아까도 언급이 있었지만, 지구환경서밋에서부터 공해가 아니라 지구환경을 보전하자, 온난화를 방지하자는 추세가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에 이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흐름에서 경단련과 회원기업, 기업이 갖고 있는 각 재단, 민간의 NGO 등이 세계각지에서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식수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호기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단련으로서도 98년에 중국의 국가주석이 방일했을 때 그 해 여름은 장강에서 대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 원인으로서는 산림벌채였습니다. 치수효과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단련으로서도 나무를 심고 협력을 하겠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국내나 해외에서 식림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어제 회장님의 말씀 속에서도 황해오염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한국과 산동성이 가깝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동북지역과도 거리적으로 가깝습니다. 중국의 환경문제에 협력을 한다는 것은 바로 한국에 있어서 이점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일본에 있어서도 대단히 고마운 일입니다. 그리고 와타리 상담역님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앞으로 남북한이 통일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들은 바로는 북한에는 나무가 별로 없다, 벌채를 했기 때문에 범람해서 치수 면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생각할 때 언젠가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겠지만, 북한의 산을 나무로 가득하게 하는 일도 생각해야 하지않나 생각합니다. 식림이라고 해도 환경식림은 생태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좀처럼 자원봉사활동 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지상매카니즘을 이용해서 이러한 활동을 하면 기업에 있어서도 이점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방법을 잘 사용할 수 없는가 해서 지금 식림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지 않았습디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大慈彌 省三 日本側 코디네이터

감사합니다. 한국의 식림에 대한 대책이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특

히 북한의 상황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치수문제, 저수문제들이 심각한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金 熙 勇 韓國側 코디네이터

디테일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저희 한국에서는 매년 식목일을 정해 놓고 전국적으로 식목을 해 오고 있습니다. 60년대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께서 식목에 관심을 두셔서 강제적으로 식목을 했습니다. 6.25 전쟁을 겪고 나서 남북한 공히 전쟁동안에 폭격 및 취사용, 난방용으로 무차별하게 나무를 베어서 썼습니다. 당연히 홍수가 나고 어려움을 겪고 나서 60년대부터는 식목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활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행기를 타고 일본에서 서울을 갈 때 한국은 이제 식목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할 정도로 푸른 국토를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나무를 베어서 국토가 황폐해지고 비가 올 때마다 홍수가 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로서는 이해가 안되는 점이 남한보다 화석연료, 즉 석탄의 매장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벌목을 했을까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국제기구를 통해서 사진을 볼 때 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 김대중 대통령께서 방북하실 때 문제가 제기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남한의 잉여에너지를 북한에 공급하는 문제, 북한의 식수에 도움을 주는 문제가 아마 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몇 제지회사가 북한에서 개별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몇천만주의 식수를 해 주면 그 나무가 자라서 몇십년 후에 채벌권을 그 회사에 주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아는 것은 거기까지이고, 한국측에서 다른 코멘트가 계시면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任 東 淳 産業研究院 産業政策研究센터 首席研究員

경단련의 하야시 선생께서 질문하신 CDM 관련과 한국의 목재 제지산업의 산림진출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한국측 코디네이터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현재 저희가 자원봉사 차원에서 북한에 식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으로부터 기부금을 내기도 하고 기업에서 일부 나무나 종묘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시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혹은 상업적으로는 금번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해서 아마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CDM과 관련된 산림의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몇몇 제지기업은 원재료 원목 확보 차원에서 인도네시아, 호주, 뉴질랜드에 상당한 수준의 조림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기업의 원재료 혹은 원료 확보 차원의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국제환경과 관련된 문제로 동시에 부각이 됩니다. 특히 식수나 식림은 잘 아시다시피 탄소를 산소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탄소를 나무 내에 저장하는 흡수능력 두 가지 차원에서 국제환경회의에서도 효과 자체는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만큼 국제환경협약 의무를 달성하는데 포함하느냐 하는 문제는 아직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두 번째로 한국과 같이 의무부담국이 아닌 나라가 호주와 같이 의무부담국인 나라, 즉 기본적으로 국제협력이라는 것이 기술과 자본은 North에서 South, 온실가스저감기회는 South에서 North라는 구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 반대로 저감의무국이 아닌 국가가 저감의무국에 해줄 때 과연 기업은 사업적 성공 이외에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온실가스저감과 관련한 성과를 획득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그러한 문제도 확대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저감의무국이 아닌 어떠한 국제환경협약에서도 기업들이 환경과 관련된 친화적인 활동을 통해서 얻은 성과는 사업적 성과 이외에 환경적 성과로 그러한 나라의 국가들도 가져야 한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부분에 대해서 하야시 선생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한국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CDM, 청정개발체제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논의동향에 따라서 기업들이 얼마만큼 참여할 수 있고 참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사업기회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가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藤島 寛仁 月島機械(株) 海外営業第2課 課長

쫓겨시마기계의 후지시마라고 합니다. 두 분 발표자의 강연을 들은 감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환경문제, 그리고 보전설비라는 부분에서 이미 시기적으로는 마이너스적인 이미지가 많습디만, 그것을 기업의 경쟁력의 향상이라든지 신기술개발이라는 면에서 플러스적인 효과라고 파악하고 계신다는 부분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 형태로 추진해 나가고 싶다고 저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월경적인 오염에 관해서는 아까부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어제도 김희장님의 기조연설 속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국가간의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이 가장 큰 전제가 될 것입니다.

약간 자화자찬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한국의 현대정공과 협력을 해서 한국에 구미오수처리장 시설을 건설했고, 한진중공업과 협력해서 포스코의 5호 고로에 수반되는 에너지절약, 공해문제에 대한 설비화를 협력한 바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앞으로도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업체로서 저희들이 생각하면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것은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어떤 기술로 시공을 할 것인지가 가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냥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라는 부분까지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카쓰다 선생께서도 설명해 주셨습시다만, 인재육성, 환경비즈니스의 지원,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大慈彌 省三 日本側 코디네이터

감사합니다. 환경문제의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측면, 빛과 그림자 부분이 있다는 것으로 플러스 쪽이 더 중요할 것이라는 발언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월경적인 오염문제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언급이 있었고, 한국과 구체적으로 공동작업을 하면서 한국에서 환경보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협력을 하고 있는 사례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아까부터 나오고 있는 화제 가운데 일본과 한국이 환경문제에 어떻게 협력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成田 洋助 (財)日韓産業技術協力財団 常務理事・事務局長

저는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의 나라따라고 합니다. 특별히 환경문제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느낀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는 비가 그친 아름다운 스미다강을 안내의 설명을 받으며 보았습니다. 혹시 지금부터 30년 전에 여러분들이 동경의 스미다강을 보셨더라면 아마 안내원은 그 당시 이런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은 아주 더러워도 깨끗한 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스미다강입니다” 라는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는 강 가까이 지나가 보면 냄새와 더러운 강물이 흘렀습니다.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 환경이 거론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양국에서 아주 분명한 하나의 방침의 일치, 그에 따른 활동은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그 때 그 때 이것이 문제다 라는 수준으로 멈추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2~3년 동안 상당히 활발해지고 있는 투자촉진협의회와 같은 분위기 조성, 그리고 관민이 일치가 된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의 경우는 더 붙여서 학문분야도 참가해서 산·관·학 3자가 참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재단은 8년 전에 설립되었습니다만, 그 때부터 계속적으로 한국의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산업기술협력을 추진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속에서 환경문제에 직면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남아있는 범위 내에서 이와 관련된 사항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아까 김도형 산업연구원 소장님께서도 소개가 있었습니다만, 93년 11월 29일자로 그 당시에 일한산업일반위원회가 구성한 TASK FORCE 보고서가 있습니다. 주제는 『일한·한일 환경문제의 현황과 산업계의 대응』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시각을 망라한 아주 잘 정리된 보고서라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저희 재단에서 실시한 93년에서 99년까지 6년 동안 1년에 한번씩 서울과 부산에서 일한·한일 테크노마트를 실시해 왔습니다. 이것은 환경관련기술도 포함한 기술이전을 최종적인 목표로 한 기술상담회입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최근 6년 동안을 통해서 환경관계의 기술안건의 계약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99년 6월 저희들 재단이 (주)노무라종합연구소에 위탁해서 오늘 옆 분과회에서 시이노 연구원께서 『일한간의 비즈니스 얼라이언스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것과 같은 테마의 조사를 부탁을 한 바 있습니다. 최근 하나의 유행어가 되고 있습니다만, 전략적 제휴, 전략적 협조에 대해서 기초연구를 하였습니다. 특정산업을 택해서 일본과 한국의 공동창조와 경쟁이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99년 관민합동사절단이 큐슈와 시코꾸를 방문했습니다. 주로 환경에 관련된 공장 시찰과 토론이 목적이었습니다. 사절단 여러분에게 아까 말씀드린 노무라의 리포트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최근의 일입니다만, 99년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제10차 일한·한일중견경제인교류촉진단으로 40명 정도가 방문했고 이에 관해서는 어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촉진단도 역시 키타큐슈의 에코타운이라는 도시를 방문했고 펌트병 재활용공장이라든지 OA기기 분해공장을 시찰하였습니다. 적어도 저의 주변만을 돌아보아도 이러한 활동이 추진되고 있고 유익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개별적인 활동입니다. 하나의 방침에 입각한 체계적인 것이 아닌 일과성에 그친 활동이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하나 하나는 개별적으로 실시하여도 어딘가는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활동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가지 방안을 제안하겠습니다. 하나는 연구개발입니다. 이것은 93년 TASK FORCE를 쇄신한 태스크포스 페이스트라고 하는 것을 실시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앞으로 어떠한 식으로 실천할 것인지 구체적인 아이디어는 없습니다만, 일단 일본과 한국의 양경제협회, 양재단의 공동사업으로서 실시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상담회를 갖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 태스크포스의 연구내용에 입각한 상담회로서 일한·한일 환경기술상담회와 같은 형태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테크노마트의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하여 계약을 목표로 한 상담회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세 번째는 교류사업을 제안합니다. 단순히 환경사절단으로 상호방문하여도 너무나 주제가 큼니다. 그래서 그 때 그 때 주제를 좁혀서 그러한 주제를 설정하여 교류를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산·관·학 차원에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까 중국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우선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작전을 만들어서 중국과의 협력은 어떤 부분에 도입을 할 것인지 생각하여 추진하면 어떨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大慈彌 省三 日本側 코디네이터

나리따 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일본과 한국간의 환경 대응방안이 반드시 체계적인 것은 아니었다, 여러 가지 해보았지만 국가로서 혹은 관민 일체가 된 제대로 된 방침 하에서 이루어진 협력관계는 아니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연구개발에 관해서 93년에 태스크포스의 페이스트라는 식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토대로 한 환경상담회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계약을 이끌어가면 어떨까 하는 것, 세 번째로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더 많은 교류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냥 폭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를 좁힌 교류회를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아주 귀중한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측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金 熙 勇 韓國側 코디네이터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오랫동안 깊이 환경분분에 대해서 교류와 활동이 있었다는 점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한일 일한간에 전략적인 제휴를 보다더 디테일하게 어떤 특정분야에 의제를 선정해서 교류사업을 태스크포스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앞으로 이 태스크포스가 어떻게 특정산업을 가지고 진행해야 할지는 서로 상의를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나리따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지속적인 사업을 해 나갈 것을 찬성하며, 오지미 코디네이터께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大慈彌 省三 日本側 코디네이터

감사합니다. 예정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토의를 통해서 상당히 환경문제가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 큰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서 인식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월경적인 것을 포함해서 동북아지역에서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지 라는 부분이 큰 의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일본과 한국이 어떤 식으로 협조해 나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지금 나리따 선생께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만, 범위를 좁혀서 그러니까 정부간에는 어떠한 수준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민간차원에서는 그러한 것이 없다, 따라서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큰 의제로서 민간차원에서 이 문제에 관해 어떤 식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지를 생각해도 좋지 않겠는가 라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실시될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얘기가 나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오늘 토의의 하나의 성과로 삼고자 합니다. 그럼 한국측 코디네이터께 총괄을 부탁드립니다.

金 熙 勇 韓國側 코디네이터

제가 드릴 말씀까지 오지미 코디네이터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찬동하고 나중에 전체회의에서 발표하실 때 한국측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찬성하며 협력할 것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大慈彌 省三 日本側 코디네이터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장시간에 걸친 환경문제에 관한 토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적절한 통시통역을 해주신 통역사 여러분에게도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合 同 分 科 會

〈共同議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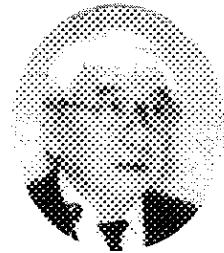
韓國側：徐 敏 錫 東一紡織(株) 會長

日本側：渡里杉一郎 (株)東芝 相談役

〈合同分科會〉

(日本側 主題發表 ①)

「隣交」의 促進과 日韓 交流의 役割



(財)日本國際交流센터
理事長 山本 正

방금 소개받은 일본국제교류센터의 야마모토입니다. 10분이라는 시간을 이용해서 짧막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97년부터 한일간의 지적교류를 실시해 왔습니다. 고려대학의 아시아태평양 리서치센터의 김교수님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그 후 한일21세기위원회의 간사위원과 그리고 한일포럼의 대표간사도 맡아 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는 한일간의 역사촉진에 관한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여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그지께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바 있습니다.

저는 실은 미국과 유럽과의 교류에 관여를 했습니다만,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지금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3월에 취임하셨던 오부치 총리의 21세기 간담회라고 하는 총리 간담회의 간사위원을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1월 18일에 오부치 전총리에게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부치 전총리께서는 서거하셨습니다만, 이 보고서는 일개 내각을 초월하여 다음 내각으로까지 이어지는 보고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1주일 전에는 모리 총리께도 그 보고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 중에 중요한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국과 중

국과의 관계를 특별히 중요시하자, 그래서 이웃인자에 교류할 교자 해서 「隣交」를 촉진하자는 제안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대충 내용을 말씀드리면 21세기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역사적·문화적으로도 관계가 깊은, 그리고 앞으로 많은 잠재력을 가진 동아시아에서의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제창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단순한 외교라는 이름으로 이것을 부르는 부족하다, 외교보다는 훨씬 깊다, 그렇지만 충분히 이미 심화된 상태는 아니다 라는 기본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하여 외교적인 노력만으로는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어내고 어떤 심도 있는 관계를 거기서 구축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계를 「隣交」라는 이름으로 부른다는 설명이 들어있습니다. 「隣交」라는 단어가 지금 그다지 크게 시민권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이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5~6분 정도 남았습니다만, 이와 같은 「隣交」를 구축함에 있어서 교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민간차원의 교류와 저희들이 힘을 기울이고 있는 지적교류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1977년 이후 한국과 다양한 지적교류를 가져 왔으며, 이를 통해서 많은 한국 분들과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러한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교류가 특별히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오피니언 리더들간의 교류를 통해서 상호이해를 촉진하고 특히 신뢰관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동아시아는 격변하는 지역이 됩니다. 아태지역에서 한일 양국의 협력 방안이라는 면에 대해서 생각해 보더라도 아주 침착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토대로 한 지적교류, 지적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간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역사인식문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오피니언 리더들, 지적 지도자들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한국과의 교류를 돌이켜 보면 역사를 에워싼 교류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역사인식을 심화시킨다고 하는 점, 이를 위해서 지적인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적으로 성실한 지적교류라고 하는 것이 양국 관계의 장기전망이라는 면에서 볼 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많은 친구들과 역사 연구에 관한 한일공동위원회의 일을 제가 2년 이상 맡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려서 고통스럽고 고생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단만, 결과적으로는 그 일을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을 통해서 재작년에 미야자키, 작년에 대전에서 한일역사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역사연구 공동촉진위원회의 일단의 임무는 끝났습니단만, 양국의 역사 학자들을 중심으로 역사에 관련된 지적교류가 더욱 더 진척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교류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총리간 담회의 보고서 작성 과정을 통해서 한국측의 카운터파트가 있습니다. 한국측의 21세기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위원회와 두 번에 걸쳐서 의견교환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작년 12월과 올해 보고서가 만들어진 이후의 3월에 저희들이 한국에 가서 21세기 위원회와 교류를 가졌습니다. 한일간의 공통적인 과제에 대한 의견교환을 통해서 앞날에 대한 목적의식, 가치관 같은 것을 공유함으로써 한국과 일본간의 커뮤니티 의식 형성이라는 의미에서 지적대화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밖에 다른 교류에 대해서는 다른 발언자가 발표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항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미국과 일본간의 국회의원간의 교류, 정치인들의 교류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도 오랫동안 상당히 교류가 활발하긴 합니다만, 일본의 상황만을 제가 말씀드리면 새로운 젊은 세대들, 소장파 의원들, 그리고 정책에 관심 있는 그런 의원들이 육성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양국의 정책과제에 관련된 의원간의 교류가 촉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항목을 소개해 드리면 일본에서나 한국에서나 한국에서 훨씬 더 활발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NGO 차원의 어떤 공동과제를 둘러싼 협력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른 분께서 발언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만, 한국과 일본간의 지역간 교류라고 하는 것은 정말 팔목 할만한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동안 역사 연구도 그랬습니단만, 역사를 둘러싼 지역간 교류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활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된 보고서도 나온 것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장기적이고도 안정적이고 건설적인 관계 발전이라는 면에서 이와 같은 교류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과 일본의 관계에 차이가 있다면 바로 이러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가

말씀을 빠뜨렸습니다만, 21세기 일본의 구상이라고 하는 총리 간담회에서 일본어와 한국어를 상호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을 일단 빨리 시작해야 한다 라고 해서 보고서 내용 중에 주요 내용은 한국어로 번역도 하였습니다. 저의 발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 료

I. 한일 知的交流의 軌跡

- (1) 이데올로기 - 대립시대의 지적교류 - 국내적대립의 반영
- (2) 한일지적교류회의의 전개 (1977~92) - 지적신뢰관계 구축의 노력
- (3) 한일21세기위원회 (1988~91) - 관계촉진을 위한 정책제언마련
- (4) 한일포럼 (1993~) - 관계의 다원화와 광범위한 정책대화의 촉진
- (5) 한일공동연구포럼 (1996~) - 본격적 공동정책연구의 발전
- (6) 한일역사연구촉진에 관한 공동위원회 (1997~99)와 한일 역사포럼의 발족 (1998, 1999) - 역사를 둘러싼 공동작업의 촉진
- (7) 21세기의 공통과제를 둘러싼 대화와 교류 (1999~) - 지적협력의 전개
- (8) 다국간 지적교류에 관한 한일협력 - 日米歐위원회의 개조 - 아시아태평양 知的 네트워크

II. 知的交流의 意識

- (1) 오피니언 · 리더간의 상호이해의 촉진과 신뢰관계의 양성
- (2) 변동하는 국제사회의 가운데에서의 한일 양국관계의 모습과 협력관계방안의 모색
- (3) 양국민의 상호이해의 촉진을 위한 지적지도자의 역할
- (4) 역사인식을 포함한 지적 성실함의 촉진
- (5) 공통 가치관의 촉진과 Sense of Community의 양성

III. 「隣交」의 조건으로서의 다원적교류 · 협력의 촉진

- (1) 양국의 국내의 다원화와, 폭넓은 교류와 협력의 필요성과 가능성
 - 지역간의 활성화
 - NGO/NPO의 交流
- (2) 국내정치에 관한 의원의 역할의 증대와 새로운 의원교류의 촉진
 - 새로운 제너레이션의 의원간 협력관계의 촉진
 - 국제관계를 둘러싼 정책대화와 협력
 - 국내공통과제를 둘러싼 대화와 협력
- (3) 다양한 문화 · 예술교류의 촉진

〈合同分科會〉

(韓國側 主題發表 ①)

韓・日 貿易不均衡의 根本原因과 對策



産 業 資 源 部
貿易投資室長 趙 煥 益

< 인사말 >

- ☐ 존경하는 후지무라 마사야 일한경제협회 회장님, 김상하 한일경제협회 회장님,
그리고 양국 경제계 대표 여러분,
 - 한국과 일본 경제를 이끌고 있는 여러분과 이처럼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 이러한 기회를 주신 후지무라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 한국과 일본은 모두 지난날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을 위한 제도 약의 시발점에 서있습니다.
 - 오늘의 회의는 우리에게 주어진 호기를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양국 공동 번영을 이룩하는데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양국 경제계의 대표들이 토론하는 자리로서, 이 자리에 거는 기대가 큼니다.

- 이 자리를 통해 양국이 21세기에 나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건설적인 의견을 많이 모아서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 회고와 반성 >

-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21세기는 이른바 불확실한 정보네트워크 사회로 모든 경제주체가 신뢰와 협조를 통해 네트워크를 자유자재로 구축하여 사회변혁에 대응할 수 있어야 만이 생존이 가능할 것입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것은 어떤 특정국가도 아니며 신자유주의 등 이념도 아닙니다. 크기·규모를 자랑하던 시대로부터 패러다임을 변환시키지 않은채 안주하려는 우리자신인 것입니다.

- 이런 맥락에서 저는 지난 30여년간의 한일 경제관계를 회고하면서 앞으로 전개되어 나갈 다음세기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그동안의 한일관계는 「의존적 경쟁관계」였습니다. 지난 65년 수교 이래 일본의 무역 특혜관세(GSP)와 일본기업의 투자가 한국의 근대화와 산업화에 많은 기여를 했으며, 또 한편으로는 세계시장에서 한국과 일본이 함께 경쟁해 온 분야도 있습니다.

- 그러나 이제 한국과 일본은 「제2의 협력기」에 들어섰습니다.

- 한국이 지난 6월 수입선다변화를 폐지하였고, 일본의 GSP로부터 졸업하게 되면 이제 양국은 대등한 파트너 관계가 됨을 의미합니다.

- 이것은 새로운 빌레니엄에 대응할 수 있는 한·일양국 기업간의 새로운 경쟁질서와 신뢰관계 확립에 대한 기본인식을 공유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 그 동안 양국의 경제정책은 모두 자기가 만들어서 쓰려는 자기완결적인 체제를 유지해 온 공통점이 있습니다.

- 이로 인해 양국 모두 두가지의 교훈을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경쟁체제의 미비로 국내기업의 경쟁력이 취약해 졌다는 점, 둘째는 국제사회에 폐쇄적 인상을 줌으로써 통상마찰의 표적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 한국은 이로 인해 외환유동성 위기를 겪은 반면, 일본은 외환보유고가 많았기 때문에 위기를 겪지 않았습시다만, 양국 모두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 지금 세계경제의 재편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 경제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의 어느 나라도 혼자서는 시장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 일본도 세계 1위, 2위하는 탑 클래스 산업을 갖고 있으나 모든 것을 혼자서 하려고 하여서는 안됩니다. 남과 협력하고 전략적 제휴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갖다 쓰는 것이 유리하고 국민 복지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 10년 전부터 한국은 일본과의 협력과 전략적 제휴를 이야기해 왔지만 그 당시에는 일본의 파트너가 되기에는 능력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도 많이 발전하여 일본의 최적 파트너가 될 만큼 튼튼한 체질로 바뀌었습니다.

- 국민들의 시각도 새로운 가치관을 지닌 청년층이 사회의 주력으로 대두되면서 과거와 같은 편향된 시각을 정리하고 객관적으로 상대방을 알고자 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 매우 의미 있는 새출발의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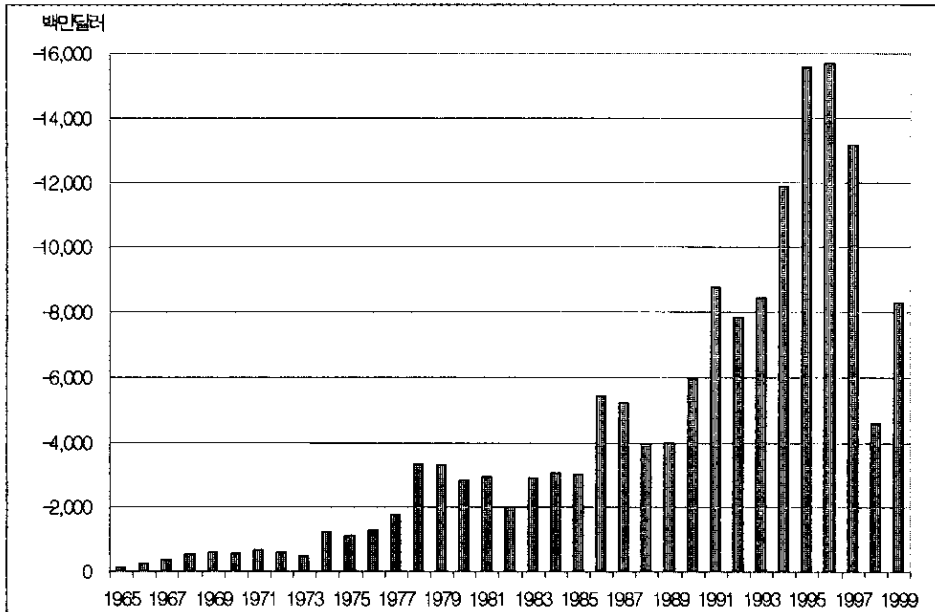
< 무역불균형의 원인 >

□ 과거 한국은 무역역조의 시정을 위해 일본에 대해 수입확대와 기술 이전만을 일방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호 이익증진에 기초를 둔 현실적인 제안이 못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실현될 수 없었습니다.

- 이제는 서로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협력하는 Win-Win 전략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런 차원에서 저는 양국간 무역불균형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 한국은 지난 45년동안 일본에 대해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해 왔으며, 계속 증가추세를 보여왔습니다.

<圖-1> 대일무역역조 추이



< 원인 1 - 한국의 부품·소재 취약 >

- 업종별로 99년 한국의 對日 교역현황을 살펴 보면 1차산품이나, 섬유류를 중심으로 한 경공업품에서는 對日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 기계류, 전기·전자, 화학, 철강·금속 등의 중화학 분야에서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것이 對日무역적자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한국의 99년 對日수입의 용도별 비중을 살펴보면, 자본재가 59%, 원자재가 35.6%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소비재의 비중은 5.3%에 불과합니다.

<표-1> 對日 수입 용도별 비중

	1990	1994	1997	1998	1999
원자재	35.8	31.8	33.7	39.3	35.6
자본재	56.8	61.8	60.7	55.7	59.0
소비재	7.4	6.4	5.5	5.0	5.3

□ 따라서, 한국과 일본간의 무역불균형은 부품, 소재, 기계류 등 자본재의 높은 對日 의존도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으며,

- 이에 따라, 한국의 경기가 활성화되어 수출과 투자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對日수입이 증가하고, IMF직후 98년과 같이 경기가 침체하고 설비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對日수입이 감소하는 구조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원인 2 - 일본의 해외투자 >

□ 오늘 제가 여러분께 특히 강조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본기업의 해외 투자와 무역불균형과의 관계입니다. 직접 투자는 무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 먼저, 1990~95년 사이에 일본의 對중국 제품수입은 2.9배, 아세안의 제품수입도 2.0배로 급증한 반면, 한국산 製品의 輸入은 오히려 감소하였습니다.

<표-2> 일본의 對아시아주요국 製品수입 추이

(단위 : 10億엔, %)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전세계		17,065	18,658	22,579	24,277	22,661	22,031
한국		1,363(8.0)	1,346(7.2)	1,341(5.9)	1,352(5.6)	1,186(5.2)	1,354(6.1)
중국		883(5.2)	2,543(13.6)	3,431(15.2)	3,981(16.4)	3,907(17.2)	3,980(18.1)
A S E A N	태국	288(1.7)	579(3.1)	717(3.2)	759(3.1)	714(3.2)	697(3.2)
	말레이시아	157(0.9)	554(3.0)	754(3.3)	828(3.4)	710(3.1)	674(3.1)
	필리핀	110(0.6)	195(1.0)	343(1.5)	471(1.9)	445(2.0)	479(2.2)
	인도네시아	287(1.7)	389(2.1)	514(2.3)	593(2.4)	488(2.2)	511(2.3)
	싱가포르	263(1.6)	537(2.9)	641(2.8)	607(2.5)	548(2.4)	546(2.5)
5개국 計		1,105(6.5)	2,254(12.1)	2,969(13.1)	3,258(13.4)	2,905(12.8)	2,907(13.2)

자료 : 日本關稅協會, 外國貿易概況 各年 12月號

주 : 1) 제품 = 화학제품, 섬유제품, 비금속광물제품, 금속 및 동제품, 기계기기, 기타 등의 合計

2) ()내는 국별 비중

□ 이와 같은 현상은 전기·전자제품과 기계류를 포함한 기계기기 수입부문에서 더욱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즉, 중국·ASEAN으로부터의 기계기기 수입은 90년 이후 급증하여 전체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몇배나 증가한 반면, 한국의 기계기기 수입비중은 여전히 부진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표-3> 일본의 對아시아주요국 기계기기 수입 추이

(단위 : 10億엔, %)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전세계		5,903	7,997	10,461	11,476	11,172	11,045
한국		305(5.2)	572(7.2)	573(5.5)	597(5.2)	510(4.6)	725(6.6)
중국		74(1.3)	486(6.1)	796(7.7)	1,059(9.2)	1,136(10.2)	1,176(10.6)
A S E A N	태국	98(1.7)	303(3.8)	389(3.7)	420(3.7)	404(3.6)	402(3.6)
	말레이시아	69(1.2)	349(4.4)	492(4.7)	536(4.7)	491(4.4)	620(5.6)
	필리핀	38(0.6)	132(1.7)	268(2.6)	374(3.3)	358(3.2)	385(3.5)
	인도네시아	7(0.1)	44(0.6)	87(0.8)	118(1.0)	148(1.3)	151(1.4)
	싱가포르	131(2.2)	440(5.5)	524(5.0)	471(4.1)	424(3.8)	408(3.7)
5개국 합		343(5.8)	1,268(15.9)	1,760(16.8)	1,919(16.7)	1,825(16.3)	1,966(17.8)

자료 : 日本關稅協會, 外國貿易概況 各年 12月號

주 : ()내는 국별 비중

□ 85년 이후, 일본경제는 급격한 엔화강세와 일본내 임금상승으로 더 이상 일본 국내만의 자기완결형 산업구조를 유지할 수 없게 되자, 생산시설의 일부를 임금수준이 낮은 중국과 ASEAN으로 이전하여 경제활동 무대를 넓혀 갔습니다.

- 이에 따라, 기계·전기부문을 중심으로 일본의 對중국, 아세안 제조업 직접투자가 급증하였고, 「원자재·자본재 수출, 완제품 수입」하는 역내 분업체제를 형성하였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은 중국에 대하여 구조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 반면, 한국은 86년까지는 일본의 총 제조업투자중 3.7%, 기계·전기부문 투자중 4.1%를 차지하는 등 일본의 주요 투자 대상국중의 하나였으나, 80년대 후반 이후 노사운동, 임금상승 등을 배경으로 일본기업이 투자를 기피하면서 그 비중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표-4> 日本의 對아시아주요국 제조업 직접투자 추이

(단위 : 억엔, %)

		1986	1990	1995	1996	1997	1998
전세계		6,085	21,916	18,236	22,821	23,731	15,686
(기계·전기부문)		3,902	12,751	8,939	13,320	13,352	7,452
한국		228(3.7)	208(0.9)	170(0.9)	150(0.7)	420(1.8)	298(1.9)
	(기계·전기부문)	160(4.1)	96(0.8)	120(1.3)	77(0.6)	203(1.5)	162(2.2)
중국		36(0.6)	916(4.2)	3,368(18.5)	2,032(8.9)	1,857(7.8)	1,027(6.5)
	(기계·전기부문)	11(0.3)	505(4.0)	1,738(19.4)	1,044(7.8)	872(6.5)	455(6.1)
A S E A N	태국	140(2.3)	1,011(4.6)	966(5.3)	1,047(4.6)	1,662(7.0)	987(6.3)
	(기계·전기부문)	98(2.5)	501(3.9)	487(5.4)	469(3.5)	1,113(8.3)	485(6.5)
	말레이시아	103(1.7)	824(3.8)	481(2.6)	467(2.0)	559(2.4)	487(3.1)
	(기계·전기부문)	36(0.9)	499(3.9)	228(2.6)	230(1.7)	231(1.7)	118(1.6)
	필리핀	25(0.4)	268(1.2)	558(3.1)	434(1.9)	441(1.9)	404(2.6)
	(기계·전기부문)	18(0.5)	188(1.5)	379(4.2)	306(2.3)	330(2.5)	317(4.3)
	인도네시아	42(0.7)	759(3.5)	1,005(5.5)	1,606(7.0)	1,381(5.8)	694(4.4)
	(기계·전기부문)	25(0.6)	258(2.0)	352(3.9)	355(2.7)	308(2.3)	276(3.7)
	싱가포르	167(2.7)	382(1.7)	449(2.5)	481(2.1)	1,184(5.0)	197(1.3)
	(기계·전기부문)	103(2.6)	92(0.7)	235(2.6)	289(2.2)	346(2.6)	72(1.0)
	5개국 합	477(7.8)	3,244(14.8)	3,459(19.0)	4,035(17.7)	5,227(22.0)	2,769(17.7)
	(기계·전기부문)	280(7.2)	1,538(12.1)	1,681(18.8)	1,649(12.4)	2,328(17.4)	1,268(17.0)

자료 : 日本 大藏省, 財政金融統計月報 各年 12月號, ()내는 국별 비중

☐ 요약해서 말씀드리다면, 한·일간의 무역불균형은 크게 두 가지를 원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한국은 그 동안 조립산업, 대기업위주의 성장정책을 펴온 결과 부품·소재 등의 산업이 발달하지 못했고, 그 결과 수출을 하면 할수록 對日수입이 늘어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니게 되었으며,
- 일본기업도 부품·소재산업의 글로벌 소싱 대상으로 중국·아세안지역에 집중하고, 한국에 투자를 기피함으로써, 양국간의 무역 불균형의 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 새로운 접근이 필요 >

- ☐ 지난 97년에 한국의 외환위기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쳤듯이, 한·일 양국은 이미 운명공동체로서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 따라서 어느 한쪽에게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면, 상대방이 협력하여 이를 해소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런 차원에서 양국간 무역불균형 해소는 양국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 한·일간의 무역불균형 문제는 단기간의 한 두 가지 처방책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한국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해소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 한국과 일본이 오랜 세월에 걸쳐 만들어 온 산업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그리고 양측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해소해 나가야 하는 것이며, 장기간에 걸쳐 노력을 요하는 문제입니다.
 - 따라서, 오늘 저는 한국측, 일본측, 그리고 양측공동으로 기울어야 할 세 가지 노력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한국의 노력 >

- ☐ 먼저 한국측의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한국은 오랫동안 운영해 오던 수입선다변화제도를 지난해 6월에 해제하였습니다.
 - 그 이후 수입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만, 다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을 인위적으로 막는 제도를 만들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 이것은 한국시장을 글로벌 경쟁의 장으로 변모시킴으로써 양국간 투자협력을 통해서 확대 균형이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 ☐ 지금까지 한국이 일본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산업의 허리인 부품과 소재, 그리고 자본재 산업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한국정부는 금년중 부품·소재산업발전특별법 제정을 통해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 ☐ 이 과정에서 한국은 특히 일본기업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보고, 일본 부품·소재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사절단 파견, 투자환경조사단 유치 등의 노력을 전개하는 한편,
- 일본기업이 한국에 와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외국기업 전용단지를 일본기업에 우선 배정하고, 노사안정을 위한 전담 근로감독관을 각 지방노동관서에 파견함은 물론, 일본기업이 다수 입지해 있는 천안 외국인 기업 전용공단에는 특별히 전담근로감독관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 ☐ 한국정부는 지난 98년이래 외국인투자 유치를 중점정책으로 삼아, 그 동안 외국인에 대한 차별철폐, 제도정비, 행정지원, 인센티브 확대 등 노력을 적극 경주해 왔습니다만,
- 앞으로도 한국정부는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며, 금년에는 특히 교육·주거 등 생활환경개선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 ☐ 최근 金大中 대통령께서 21세기 한국경제의 비전으로 제시하신 「개방형 신통상국가」야말로 이러한 한국정부의 의지와 노력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개방형 신통상국가는 자본, 기술, 정보, 인력 등 생산요소를 보다 자유롭게 하고, 모든 기업들이 모여 가장 자유롭게 기업을 할 수 있는 국제 비즈니스의 중심지를 뜻하며,
 - 이는 단순히 소극적인 개방이나 투자환경 개선만으로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정부와 국민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부문에 걸친 광범위한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일본의 노력 >

- ☐ 그러나, 한국의 이러한 對日 우호적인 조치가 일방적으로 진행되어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 ☐ 우선, 일본기업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은, 한국의 투자유치 노력에 화답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 지난해 일본으로부터 한국으로의 투자액은 17.5억불을 기록하였고, 이는 그 전해에 비해 무려 250%나 증가한 수치입니다만,
- 한국내 외국인 투자비중으로는 10%에 불과하여, 과거 70~80년대 일본기업이 한국내 외국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62%에 비해 무척 낮은 수준입니다.
- ☐ 두 번째는 한국의 부품·소재, 기계류를 글로벌 소싱차원에서 더욱 많이 구매토록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 한국제품은 지난날과 같이 더 이상 싸구려들이 아닙니다. D램 반도체, TFT-LCD 등 일본의 제품에 크게 손색이 없는 품목도 있으며, 자리적으로 가압기 때문에 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합니다.
- ☐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 국민의 일본에 대한 태도가 크게 변했다는 점을 인식해 달라는 것입니다.
- 즉, 金大中 대통령의 방일시 합의에 따라 일본문화개방이 추진된 이래 한국민의 일본에 대한 우호도는 급속히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한국에 파견된 일본기업 지사, 지점장들의 모임인 Seoul Japan Club이 여러 번에 걸쳐 확인한 바 있습니다.

< 공동의 노력 >

- ☐ 우리 모두는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Win-Win이 되는 동북아 번영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화해와 협력'이며,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작은 이익에의 집착'이라고 생각합니다.
- 국제사회의 공통된 물에 맞는 투명한 사회를 건설하고 공정한 경쟁원리를 정착시키는 것은 바로 21세기를 맞이하는 한국의 선택입니다.
- ☐ 마찬가지로 일본도 합리적인 선택을 해 나가기를 기대하는 바이며, 지금이라도 폐쇄적인 상관습, 수입제한적인 제반 사회 시스템이 있다면, 이를 찾아내어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 ☐ 이러한 합리적인 Consensus를 바탕으로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은 양국의 보다 자유로운 투자·무역환경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 투자협정을 체결하여 자본이동을 원활히하고, 모든 제도부문에 걸친 상호 인정 협정을 통해 인력, 물자교류를 원활히 하며, 표준을 같이하고, 지적재산권 보호에도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상호 신뢰기반을 형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이와 더불어 21세기에 새롭게 대두되는 전자상거래부문에서도 한국과 일본이 아시아를 주도할 수 있도록 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맺음말 >

- ☐ 한국과 일본은 지난 수천년을 이웃으로 지내왔습니다만, 최근과 같이 가까워진 것은 역사상 그 선례가 없습니다.
- 한국 속담에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이는 먼 친척보다 이웃이 더 낫다는 말입니다. 21세기에 한국과 일본이 먼나라가 아닌 '이웃사촌'으로 공동 번영을 이룩하는 세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꼭 한가지만 강조 드리고자 합니다.
- ☐ 그것은 “한국이 변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주변의 기업인들에게도 널리 전달해 달라는 것입니다.
-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국이 그동안 엄청나게 변화했지만, 아직도 지난 80년대의 시각으로 한국을 평가하는 일본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한국을 최근에 방문하신 기회가 없으신 분은 꼭 방문하셔서 한국의 변화된 경제환경을 직접 보고 느끼시기 바랍니다.
- ☐ 그리고, 금년 11월말에 일본 동경에서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KOREA SUPER EXPO'가 개최됩니다.
- 금번행사는 산업·기술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한국을 일본인 여러분께 소개하는 대규모 행사입니다. 일본기업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 한·일 경제인 여러분들 모두의 건승을 빌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꼬또니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따

〈合同分科會〉

(日本側 主題發表 ②)

日韓 海峽交流의 現狀과 展望



九州旅客鐵道(株)
會長 石井 幸孝

【머리말】

<인사말씀>

JR큐슈회장 이시이 요시타카(石井 幸孝)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과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큐슈의 인적교류를 비롯하여 관광, 경제, 문화 등 다양한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서 『한일 해협교류의 현상과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가까운 해협을 사이에 둔 지역이 일체적인 교류권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긴밀한 교류와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발표의 취지>

먼저 본 발표의 취지를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한일의 민간차원에서 교류의 중요성입니다. 현재 한일 양국은 전에 없는 양호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등의 면에서 더욱 밀접한 연대를 하기 위해서는 양국 국민이 서로 더욱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문화, 관광, 시민교류 등의 민간차원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둘째는 이러한 국민 상호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교류가 종래와 같은 일방적

인 경제진출만이 아니라 공존공영을 목적으로 한 쌍방향의 경제교류에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큐슈와 한국간에서는 대등한 경제교류의 추진이 실현되기 시작하는 단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이러한 큐슈와 한국의 활발한 교류권역이 일체적인 국제경제권으로서 전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호 기능을 보완하는 경제권역이 큐슈와 한국의 지역활성화를 추진할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의 관계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큐슈와 한국과의 시민차원 교류의 전망】

먼저 큐슈와 한국에서는 시민차원의 교류가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큐슈는 200km거리로 한국과 인접해 있으며, 이키(壹岐), 쓰시마(對馬)등의 섬을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배를 왕래시킬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관계에 있는 큐슈와 한국은 지리적인 인접성뿐만 아니라 역사적, 심정적으로도 가까워 매우 많은 분야에서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4가지 정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적교류>

첫째는 빈번한 왕래를 가리키는 인적교류입니다. 상호이해를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을 서로의 문화, 풍습 등을 접할 수 있는 인적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JR큐슈와 한국철도청과의 연대)

JR큐슈가 1987년 국철민영화에 의해 발족했을 때, 이웃 철도를 살펴봤더니 JR서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 국철이 있었습니다. 그 후 큐슈와 한국의 철도활성화를 전제로 기술교류, 철도민영화 등 많은 의견교환을 거쳐, 1991년 양측의 인적교류 촉진을 위해 공동으로 하카타(博多)·부산간 제트호일 항로를 개설하였습니다.

(하카타(博多)~부산간 제트호일 항로)

이 항로는 후쿠오카, 부산이라는 양국의 주요도시의 중심부를 2시간 55분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마치 국내처럼 왕래할 수 있으며, 현재 연간 21만명 이상이 이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후쿠오카를 떠나서 점심은 부산에서 삼계탕을 먹고 자갈치시장에서 맛있는 게 등을 사서 저녁에는 후쿠오카의 자택에서 그것을 요리하는, 그

런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일치기로 망년회나 꽃놀이를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은 여행이라기보다 오히려 일상적인 왕래라 할 수 있습니다. 질 높은 수송기관의 충실이 인적교류 촉진을 가능하게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광교류>

둘째로, 인적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해 가장 쉽고 유효한 수단은 관광교류입니다. 한일 양국은 국제여행수지가 공히 적자입니다. 산업활성화의 면에서도 양국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한일해협관광진흥회의)

그러나 관광진흥을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과 민간의 구체적 노력이 자동차의 두 바퀴가 나란히 굴러가듯이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측의 카운터 파트너와 공동으로 1996년부터 매년 큐슈와 한국남부의 관광관련의 민간사업자를 한 자리에 모아 「한일해협관광진흥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토의된 결과는 양국 참가자들의 일상적인 노력이 되어 역, 길, 안내표지판, 거리 가이드 북, 숙박시설에서의 의사소통문제 등에 있어 이미 많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사나 문화를 서로 배우는 여행의 기획)

양국 국민이 서로의 역사나 문화를 배우는 기회를 여행이라는 장르로 만들어 가는 것은 민간이 할 수 있는 큰 역할입니다. 구체적인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JR큐슈는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하여 「한일 양국의 역사를 공유하여 서로의 문화를 배우는 것」을 컨셉으로 한 여행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종래 터부시되어왔던 「임진왜란(임진왜란, 징유제란)」을 있는 그대로 접할 수 있는 여행을 기획하여 지금까지 1000명이 넘는 참가자들에게서 많은 좋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이 달부터는 17세기 이후 260년 동안 이루어진, 문화를 축으로 한 우호교류 「조선통신사」의 루트를 양국국민이 함께 따라 가보는 기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문화, 학술교류>

셋째는, 문화, 학술에서의 교류도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16세기말에 전해져 사쓰마(甞攰), 아리타(階憐) 등 큐슈각지에서 일본문화와 융합해 오늘날에 내려오는 도자기를 주제로 한 교류나 예능, 식문화 등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1998년 김종필 국무총리(당시)의 큐슈대학에서의 역사적인 강연을 계기로 금년 1월 한국정부의 협력을 얻어, 동 대학에 「한국연구센터」가 개설되었습니다. 한일 양국의 연구자에 의한 연구나 강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스포츠교류>

마지막 넷째는 청소년교류, 스포츠교류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청소년교류는 자매결연을 맺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공동생활을 하거나 평소에 서로의 언어에 대한 공부를 하는 등 알찬 교류를 실현하기 위해 양국의 친선협회가 협력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분야에서도 양국의 청소년을 중심으로 축구, 미식축구, 농구 등 많은 친선경기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상호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교류】

이러한 시민차원 교류의 진전이 경제교류의 형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프라자합의 후, 한국으로 진출한 많은 일본기업이 서로의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괴로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적교류를 비롯해 시민차원의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거래의 습관, 풍습, 문화의 차이를 서로가 이해하고 있으며, 기술연대, 생산연대, 합병에 의한 생산거점의 설립 등 다양한 형태의 교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기업도 대표자를 한국사람에게 부탁하거나 한국에서의 상거래습관을 미리 잘 연구하여 한국의 풍습에 맞는 운영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큐슈와 한국간의 추진상황을 봐도 생산기반기술의 축적이 높은 큐슈와 조립가공, 첨단기술의 축적이 높은 한국과의 상호보완 등을 목적으로 한 「큐슈·한국 경제교류회의」를 1993년부터 큐슈 통산국과 산업자원부가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정부의 지방기관이 단독으로 외국과의 협력을 행하고 있는 유일한 예이며, 서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대등한 추진입니다.

【한일해협교류권의 전망】

끝으로 이렇게 일체화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일 해협교류권의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만명 경제권>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큐슈와 한국남부를 저는 「2000만명 경제권」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큐슈측에는 일본이 3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IC를 비롯해서 조선,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생산거점이 많이 있으며, 한국남부에도 중화학공업의 생산거점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품의 공유화나 생산공정의 연대, 해외판로확대를 위한 노력 등에 따른 큰 성과를 기대

할 수 있습니다.

<고속교통체계>

이 「2000만명 경제권」의 골격이 되는, 양국을 잇는 고속교통체계도 현재 정비작업이 진행중입니다. 앞으로 큐슈신칸센, 경부고속철도가 완공되면 서울-부산 약 2시간, 하카타(博多)-가고시마(鹿児島)가 약 1시간거리가 되며, 이것을 잇는 제트호일과 아울러 큐슈와 한국에 하나의 고속교통체계가 정비되는 셈입니다. 현재의 주요도시간 중심의 교류에서 양국(지역)의 중소도시나 풍부한 자연이 보존된 지역까지 포함한 다양한 교류가 촉진됩니다. 큐슈와 한국을 해저터널로 잇자는 구상도 논의되고, 기술적인 검토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21세기의 보다 긴밀한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유익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2002년 월드컵>

이 해협권의 형성은 큐슈와 한국간의 교류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의 우호관계증진에 크게 기여합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2002년 6월에 한국과 일본이 공동개최하는 월드컵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일 양국이 하나가 되어 열리는 최초의 세계적인 이벤트입니다. 대회의 성공에 대해서는 양국이 공동으로 세계에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많은 나라에서 많은 팬들을 한번에 받아들여 원활한 이동, 체류, CIQ, 수송계획, 안내표지 등 많은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회 스타디움 이외의 과제가 어렵고, 현실적으로는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큐슈와 한국은 지금까지의 일체화된 교류성공을 살려서 원활한 수송체제 등 일차 협력해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월드컵처럼 양국이 직면하는 과제로 같은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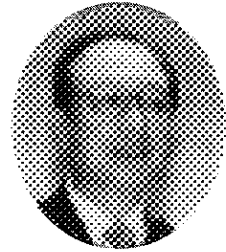
【맺은 말】

오늘은 「큐슈를 대표해서 한일교류와 관련된 경험이나 포부를 밝혀달라」는 의뢰를 받았기 때문에, 큐슈와 한국이 서로 협력해서 어떤 교류를 하며 어떤 권역이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한일 경제교류에 힘쓰시는 여러분의 이해를 얻어, 양국의 우호관계 증진에 노력해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合同分科會〉

(韓國側 主題發表 ②)

서둘러야 할 韓日 地域間 交流



三星・HOTEL新羅

相談役 李 吉 鉉

“地域間 交流의 必要性”

2000년에 들어가서 韓日 兩國도 새로운 時代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規制 안에서 限定된 交流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만, 이제야말로 兩國의 사이에는 自由롭게 交流할 수 있는 環境이 가지런해져 왔습니다. 더하여, 過去 實施되어 온 觀光・文化・스포츠 등 以外에, 最近에는 經濟交流가 현저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韓日의 貿易收支改善을 위해 實施되어 온 對口輸出促進團은 1985年 5월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63회에 걸쳐 日本의 37個 都市에 2,307社(3,249名)을 派遣, 兩國産業協力 채널構築에 막대한 貢獻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傾向은 今後的 韓日關係를 점치는 데 있어서 대단히 希望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經濟交流가 많아질수록 兩國의 關係는 보다 깊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事業이나 市場을 만들어 내어 결국은 國力の 증대에 連結되기 때문입니다.

그 一例로서, 韓國에서는 昨年の 日本文化開放宣言 以後 많은 日本映畫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映畫[love letter]는 50萬名の 觀客을 動員, 日本映畫의 將來性を 證明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經濟效果를 가져왔습니다.

한편, 日本에서는 韓國에서 대 히트한 映畵[쥬리]가 豫想을 훨씬 넘는 200萬名의 觀客을 動員하여 兩國의 映畵關係者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것은 單純한 映畵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經濟交流의 成功이라는 觀點에서 생각하면, 대단히 興味 깊은 內容입니다. 앞으로는 2002年의 world cup soccer大會를 시작으로 經濟效果 높은 交流가 더욱 증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6月의 南北頂上會談에서는 緊張緩和와 南北交流가 進展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만, 이 會談도 韓日地域經濟 活性化에 막대한 效果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1965年의 國交正常化 以後 활발히 實施되어 온 韓日交流가 韓國의 市場開放政策에 따라 크게 꽃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大都市를 中心으로 한 交流로부터 地方都市에 經濟效果를 가져오는 交流가 必要하게 됩니다.

그래서 韓日의 地域間交流인 LOCAL-TO-LOCAL을 進行시켜, 經濟交流를 더욱 活性化시키는 것을 提案하고 싶습니다. 兩國間の 重要 經濟據點地域을 中心으로 地域間交流를 全國의으로 擴散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표 1> 參考) 그것도 지금까지의 一方的으로 依存하는 關係가 아니고, 대등한 “相生善緣”의 關係로 兩國이 豊富해지는 經濟基盤을 造成, network화해 나가는 것이 目的입니다. “相生善緣”이란 글자와 같이 “善한 因緣을 맺으면서 함께 산다”라는 意味입니다.

韓日의 地域間交流를 進行시켜야 할 큰 理由로서,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世界가 블록 經濟圈으로 移行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이나 美國의 地域과 比較해 보면 아시아地域은 相當히 늦은 편입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通貨統合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이와 比較하여 아시아에서는 아직 經濟危機에 허덕이고 있는 狀況입니다.

두 번째는 兩國이 이제 地方自治 時代를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좋은 結果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점입니다. 地方自治經濟의 活性化를 進行시키고 있는 兩國에서는, 都市마다 여러 가지 事業을 展開하고 있습니다만, 以前부터 地方化를 進行시키고 있는 日本의 現況을 보더라도 그렇게 簡單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1980年代 後半以後에 設立된 第3섹터에 막다름을 보이기 시작하여, 많은 都市가 그 負債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韓國도 1995年에 地方自治時代가 시작되었을 뿐, 經濟基盤이 아직도 確立되어 있지 않은 狀況입니다. 또한, 總生産額의 50%가 首都圈에 集中하고 있기 때문에 地域經濟의 活性化에는 首都圈의 機能分散과 地域産業을 特化産業으로서 키울 必要가 있습니다. (<표 2> 參考) 이 2가지 理由는 兩國이 解決해야 되는 課題이기도 합니다.

<표 1> 韓日 經濟交流 重要 地域

地 域 名	概 況
九州地域	環東海(日本海)經濟圈의 據點地域으로서 韓國과 經濟交流가 가장 活潑的이고 成長性이 대단히 높다. - 후쿠오카 및 역내 지방 據點都市를 對象에, 마케팅 強化가 必要함.
東海(日本海) 地域	東아시아 및 太平洋을 連結하는 環東海經濟圈의 據點地域으로서 러시아 極東地方, 中國東北地方, 北韓과의 關係 改善에 潛在力이 豊富한 地域 - 야마구치, 시마네, 돗토리 : 水産物 加工分野에 重點 - 호쿠리꾸, 니가타 : 中小機械類, 金屬 製品, 纖維에 重點
大都市圈 (東京, 大阪)	日本經濟의 中心地이며, 巨大한 臨海工業團地, 日本의 代表的인 國際港 保有 - 東京, 카와사키, 요코하마 : 尖端 中小 機械工業 分野에 重點

資料 : 社團法人 日韓經濟協會 提供

<표 2> 韓國, 都市別 産業表

地 域	産 業	地 域	産 業
서 울	流通業, 情報通信, 金融, 保險, 影像廣告	慶 南	自動車部品, 航空産業, 造船
京 畿	印刷, 半導體, 醫療機器, 玩具	全 北	農業, 펄프, 종이
仁 川	金屬, 컴퓨터, 事務機器	全 南	有機化學, 합纖纖維, 돌연유제품
江 原	建設用資材, 세라믹, 유리,酪農, 觀光레저	光 州	食料品, 衣服
忠 北	담배, 木材家具, 陶磁器	大 丘	衣服, 光學機械, 自動車部品
忠 南	化學肥料, 醫藥品, 飲料	釜 山	구두, 自動車部品
慶 北	特殊産業用機器, 電子, 自動車部品	濟 州	觀光

資料 : 社團法人 日韓經濟協會 提供

“文化・觀光交流 活性化에 絶好의 時期”

世界는 Internet의 發達과 함께, 瞬間에 온 世界의 情報를 모을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클릭 하나로 韓國의 名品을 사거나, 日本의 技術을 살 수 있는 時代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地方都市에서도 競爭力을 높이면 充分히 經濟的으로 豊富 해질 수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차차 國境概念이 없어져 世界가 글로벌化되는 가운데, 地域間의 依存性이나 連携性이 要請되게 되었습니다. 더욱, 韓國을 訪問하는 日本人 旅行客이 1997년에는 167萬名인 것이, 해마다 늘어나고 去年은 200萬名, 올해도 3月까지 60萬名으로 過去 예가 없는 韓國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韓國 내에서도 日本文化의 開放으로, 제작년 80萬名인 日本 訪問者도 去年은 100萬名을 넘어 앞으로는 점점 日本에 대한 關心이 많아 질 것 같습니다.

걱정되는 言語 問題도, 韓國에서는 2001년부터 日本語가 大學 修能試驗의 第2外國語 科目에 選擇되었고, 日本의 大學入試에도 韓國語를 選擇科目에 포함하는 것을 올해 3월에 實施된 韓日教育長官會談에서도 檢討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兩國의 國民이 서로 好感을 갖기 시작한 이 時期가 地域間 交流를 擴大하는 데 最高의 時期입니다. 이 時期에 地域間 network를 단단히 造成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을 우리들은 過去의 敎訓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歷史적으로 지난 2000년을 되돌아 보더라도 韓日 兩國이 文化나 經濟적으로 사이 좋게 交流하고 있었던 時代는 실로 크게 서로 繁榮했습니다. 反對로 서로 紛爭한 不幸한 時代는, 서로 後退하여 괴로운 經驗을 했습니다. 論語의 敎訓인 『賢者は 歷史에 배우고, 愚者は 범하더라도 깨달을 수 없다』라는 말을 記憶시킵니다.

무슨 일이든 서로 서로 도와주는 것이 重要하지만 南北統一의 기운도 높아져, 아시아 各國의 和解 무드가 造成되어 있는 이 시기가 最高의 機會입니다.

“地方自治經濟의 波及效果”

地域間의 經濟交流를 進行시킴으로서 여러 가지 波及效果가 생각됩니다. 우선은 密接한 地域經濟交流를 통하여 窮極의으로는 러시아 極東地域, 北韓 및 中國 東北地方을 포함한 “環東海經濟圈”의 形成에 發展할 可能性이 있습니다. 이것은 北韓과의 政治問題가 있습니다만, 6월에 北韓과의 頂上會談이 豫定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經濟協力은 더욱 活潑化될 것으로 보입니다.

經濟圈에서 생각하면 九州와 釜山の 隣接地域은 距離로 보면 200 마일 밖에 안 되고 후쿠오카에서 히로시마로 가는 것보다 가까워, 經濟圈을 形成하는 데 대단히 有利합니다. 九州와의 姉妹都市交流는 이미 10年을 넘어, 地域적으로도 充分히 익숙해진 느낌이 듭니다. 以前, 후쿠오카, 쓰시마(對馬島), 釜山을 맺는 韓日 해저터널의 構想이 發表된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와 같이 人的, 物的交流를 순조롭게 하는 具體的인 프로젝트가 實行되면 兩國에 막대한 經濟效果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아시아나 世界에 影響을 미치게 하는 經濟圈의 形成이 可能합니다.

다음에, 地方自治經濟의 活性化를 進行시키고 있는 兩國에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問題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韓日 地域交流를 進行시키는 것은 沈滯하고 있는 日本의 地方經濟에 活力을 넣은 것뿐만 아니라, 基盤造成中인 韓國에도 技術적으로 막대한 效果를 가져옵니다. 이미 韓國의 飲食物인 冷麵이나 김치 등, 食文化의 紹介로 日本의 地方都市에서는 “市街復興”을 進行시키고 있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러한 地域經濟가 發展해 나가면, 더욱 親密한 關係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未來永劫에 繼續되는 韓日關係를 남길 수 있습니다.

“産業構造 大都市集結이 問題點”

지금까지 地域間 交流는 姉妹結緣을 맺어 觀光·文化·스포츠交流를 열심히 實施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實際로 經濟效果를 겨냥한 地域交流를 進行시키기 위해서는 몇가지 問題가 있습니다. 韓國의 경우 地方自治의 역사가 짧고 對外交流의 經驗이나 know-how가 모자란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交流地域의 産業 構造나 特化産業을 어떻게 補完·發展시켜 雙方の 需要와 供給을 balance 좋게 해야 하는 問題도 있습니다. (<표 3> 參考) 製品의 品質차이, 食文化의 차이 등도 克服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또한, 姉妹都市간의 交通便 問題도 大都市를 除外하고 순조롭게 移動할 수 없는 것이 現實입니다.

이러한 問題點을 克服하기 위해서는 地方都市간의 努力은 물론 國家的인 事業으로서 政府도 政策을 세워야 합니다. 21世紀는 世界의 움직임이 地域社會에 미치는 影響이 擴大되는 글로벌화 時代이고, 地方都市가 獨自의으로 世界의 여러 地域과 交流하는 時代입니다. 政府는 분명히 提示하여 地方都市가 經濟體制를 確立할 수 있도록 支援하는 것이 重要합니다.

<표 3> 韓國 中小企業의 對日經濟交流의 需要

業種別 \ 交流希望形態		計	技術 提携	合作 投資	輸出	輸入	代理店	기타
事例數 合計		239 (100.0)	62 (25.9)	49 (20.5)	89 (37.2)	11 (4.6)	22 (9.2)	6 (2.5)
企業數 合計	117社							
飲食料品 製造業	9社	20	1	6	9	1	3	
石油 化學	11社	20	7	5	8			
機械	42社	88	27	17	29	3	10	2
金屬	13社	25	6	5	13			1
建築	2社	2	1		1			
自動車部品	6社	11	2	3	5		1	
電機電子	26社	58	15	9	19	6	8	1
木材	1社	1		1				
서비스業	1社	3	1	1				1
기타	6社	11	2	2	5	1		1

資料：中小企業振興公團，「日本企業과의 協力を 구하는 韓國의 中小企業」1998

“北九州와의 結緣成功 모델은 훌륭하다”

地域間の 經濟交流을 成功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은 하나의 모델 케이스를 設定한 뒤 거기에서 얻은 成功事例를 각 姉妹都市 交流에 適用해 나가는 것이 생각됩니다. 하나의 예로서 北九州市와 仁川市の 交流을 들 수 있습니다. 兩市는 1988年 12月에 姉妹結緣을 맺고 나서, 行政・文化・科學・經濟 등이 넓은 範圍로 交流하고 있습니다. 經濟交流로서는, 仁川市の 8,500 製造業社의 90% 以上이 中小企業인 것을 勘案하여 技術輸出, 工程分業化, 費用節減達成 등의 모델事業을 造成하는 事業도 推進되어 있습니다. 또한, 地域間の 經濟發展을 促進하기 위한 構想으로 韓・日・中을 經濟的으로 連結하는 東아시아 都市會議를 結成하여 活潑한 活動도 展開하고 있습니다.

經濟交流의 內容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됩니다만, 그 하나로 農・水産技術의 移轉, 提携擴大를 말할 수 있습니다. 世界進出을 目的하여 韓日共同으로 협

브랜드 開發에 着手하면 대단히 좋은 結果를 낼 지도 모릅니다.

또한, 韓日 貿易收支는 1997년의 -40억불로부터 1998년에는 -80億불로 貿易量이 불어난 분만큼 惡化되는 惡循環의 問題를 안고 있습니다만, 韓日共同開發로 地方企業의 技術力을 높여 가면 이러한 問題도 解決의 단서가 보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서 資本投資에 의해 尖端技術을 開發하는 벤처企業의 共同育成이 생각됩니다. 韓日의 共同開發을 成功시켜 아시아의 優秀한 技術을 導入하여 中國 등에 벤처團地를 造成하면 極東 아시아經濟圈의 形成에 크게 貢獻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서는 自由 貿易都市 構想입니다. 이제부터는 世界가 가깝게 된 만큼 차차 自由롭게 거래할 수 있는 環境이 要求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規制로 굳혀진 市場에서는 차차 魅力을 잃어 갑니다. 昨年 10월 28일에는 濟州島에서 韓日頂上會談이 열렸습니다. 거기서 合意된 것이 自由貿易地域의 構想이었습니다. 韓國에서는 이미 濟州道를 自由貿易都市構想에 넣고 있고 여러 가지 投資를 募集하고 있습니다. 濟州島는 아시아에서 觀光資源이 豊富한 리조트地域이지만 이것에 九州나 釜山地域을 自由 貿易의 據點으로서 投資해 나가면 世界的인 觀光・貿易地域으로서 浮上할 것입니다.

이러한 經濟交流를 순조롭게 進行시키기 위해서는 言語와 文化的 理解의 問題를 解決해야 합니다만, 兩國이 이 時代圈을 移用하여 더 大膽한 政策을 進行시켜 가면 지금까지 100年 걸린 것을 10年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1世紀 아시아 共存共榮의 길”

이 世紀를 되돌아보고 戰爭후의 東아시아 各國의 經濟發展을 보면 日本의 資本이나 技術이 흘러 그것이 輕工業으로부터 시작되어 重化學工業의 순으로 成果를 거둔 것은 事實입니다. 특히 아시아全體에 걸쳐 日本이 다한 役割은 偉大하고 影響力은 대단히 큰 것이었습니다. 아마 北東 아시아의 21世紀도 日本과 美國을 축으로서 韓國, 中國, 러시아, 몽골 등이 相互經濟協調體制를 維持하면서 모든 面에서 提携해 나가는 것이 不可缺합니다.

이러한 흐름을 볼 때 兩國의 地域間에서 經濟交流를 깊이 하는 것이 아시아 發

展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韓日의 地域經濟 交流가 活潑해지면 그것을 基盤으로 아시아에 큰 經濟圈을 形成할 수가 있기 때문에 世界的으로도 막대한 貢獻을 다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經濟는 자기 나라의 利益만을 追求하여 왔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어떻게 共存共榮하는가를 念頭に 두고 交流關係를 맺어 가는 것이 重要합니다. 20世紀에는 그것을 理解하지 못해 무턱대고 다툼을 펼쳐 왔습니다만, 21世紀에는 後孫들을 위해서도 共存共榮의 길을 開拓하여 놓는 것이 우리들 經濟人이 努力해야 하는 義務라고 생각합니다.

〈合同分科會〉

(日本側 特別講演)

21세기의 바람직한 韓日 經濟關係

(21세기 한일 경제관계 연구회 보고서 : 총론)



日本貿易振興會 아시아經濟研究所

所長 山澤 逸平

1. 한일경제관계연구회의 경위

- 1990년대, 한일간 무역투자는 상대적으로 疎遠化
- 經濟停滯로 부터의 회복과정에서 제김토의 機運
- 金大中 대통령 방일 「21세기의 파트너십」
- 오부치 전총리 방한 「한일경제 아젠더 21」
- 아시아경제연구소 ·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공동연구 발족

2. 한일자유무역협정의 틀

- GATT/WTO 24조 : 2국간의 관세 · 비관세조치의 상호철폐를 容認(최혜국대우의 예외)
 - 제3국과의 무역장벽을 더 높여서는 안된다
 - 실질상 모든 분야를 포함
 - 약 10년간에 달성
- 현실적으로는 투자촉진, 무역원활화, 기준인증 상호승인도 포함한 포괄적인 틀
- 한일 동시 새로운 시도, 포괄적 틀로 시장일체화를 꾀한다.

3. 한일자유무역협정의 효과 : 정태적추정
 - 관세 · 비관세조치의 상호철폐
 - 한국으로 부터의 의류 · 수산물의 대일 수출 증가, 일본으로 부터의 정밀한 기계 · 금속제품의 대한 수출 증가
 - 평균관세율 : 일본 2.9%, 한국 7.9%인 고로, 일본의 대한 수출 증가가 윤희되고 한국의 대일 무역수지적자 확대
4. 한일자유무역협정의 동태적효과
 - 한일간에는 동일산업내에서 서로간의 수출입하는 산업내분업이 활발(기계 · 금속 · 화학 · 서비스, 關稅小)
 - 시장일체화 밑에서의 산업분업 더욱 활성화
 - 한일기업간의 경쟁격화
 - 한일기업간의 전략적 제휴
 - 구미기업의 한일시장으로의 參入
 - 투자협정, 무역원활화, 통관절차, 기준인증, 지적소유권 등의 공동화에 의해, 동태적효과는 더욱 강화된다.
5. 산업기술협력 추진
 -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에 의한 한국중소기업의 산업기술 · 인재육성 · 생산성 향상으로 전실한 성과
 - 어업면에서도 공동자원의 공동관리와 이용면에서의 협력
 - 금융 · 자본시장의 통합화노력도
 - 円 · 원 상장의 안정화협력도
6. 아시아태평양, 세계에서의 한일관계
한일자유무역협정은
 - 한일간의 경제긴밀화촉진의 틀
 - 한일양국의 경제활성화와 자유화촉진
 - APEC 자유화와 세계규모의 자유화에도 공헌
 - GATT/WTO와 정합적으로 실시
7. 한일자유무역협정 체결에의 경로
 - 「한일경제 아젠더 21」에 따라, 개별협정교섭
 - 조세협정 (1999년 11월 발효)
 - 투자협정 (교섭중)
 - 기준인증의 상호승인 (교섭중)

- 자유무역협정은 포괄적인 제도적 틀을 부여
- 한일경제관계 긴밀화며멘텀유지를 위한 비전
- 공동연구성과 발표, 공개심포지움 개최

보다 緊密한 韓・日 經濟關係의 摸索： 21세기 파트너십 構築을 위한 提言 (共同宣言文)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아시아경제연구소(IDE, JETRO)

1. 한・일 양국은 2000년 이상 가까운 이웃국가로 존재해 왔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양국간 무역, 투자, 그리고 인적교류가 극적으로 증대되어 왔으나, 1990년대에 들어 무역과 투자는 침체된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1997년 하반기에 발생한 아시아 통화위기의 확산으로 한국은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었으며 일본도 역시 1992년 이후 지속된 장기적인 경기불황에서 벗어나는데 실패함에 따라, 양국은 1998년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후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양국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났다. 1998년 10월 일본 순방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20세기의 문제들은 20세기 내에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21세기 새로운 韓・日 파트너십 행동계획”을 제안함으로써 많은 일본인들의 심금을 자극하였다. 이에 따라 동년 연말까지, 수 차례의 각료급 회의와 내각차원의 회담 및 韓・日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자는 견해가 제의되었다. 1999년 3월 방한도중 오부치 게이조 당시 일본 수상은 기존의 경제협력의 범위를 넘어서 “韓・日 경제협력 의제 21”을 통하여 양국 관계를 강화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이어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일본무역진흥회(JETRO) 산하 아시아경제연구소(IDE)가 韓・日 FTA에 관한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여 왔으며, 최근 완료된 연구결과를 이 자리를 통하여 발표하게 되었다.
2. 무차별 원칙 및 최혜국대우 원칙에 대한 예외조치로서, GATT/WTO는 FTA를 글로벌 차원의 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첫 단계로 인정하면서 회원국들간에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호혜적으로 철폐되는 것을 승인하고 있다. 단, 이에 대한 조건으로 FTA체결로 인해 제3국에 대한 관세 장벽이 강화되어서는 안되며, FTA가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부문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과 약 10년의 기간내에 협정이 완결되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의 주요 통상국으로서 한국과 일본은 FTA 체결을 위하여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3. 본 연구는 韓·日 자유무역협정의 실행가능성에 대해 한·일간에 시도된 최초의 공동연구이다. 이제까지 한·일 양국은 글로벌차원에서만 자유화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EU 및 NAFTA의 경우와 같이 현재 많은 국가들이 인근 국가들과 경제통합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다자무역체제하에서 자유무역협정이 글로벌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한 실용적인 접근 방법이라는 인식이 증대하고 있다. 한·일 자유무역협정은 양국간 잔존하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에만 그 목표를 두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투자촉진, 무역원활화, 양국의 무역 및 투자관련 제도 및 기준의 조화 등 시장통합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망라하는 포괄적 협정체계에 목표를 두는 바이다.
4. 한·일 자유무역협정은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우선 관세 및 비관세 조치의 철폐를 통하여 양국간 무역이 확대될 수 있다. 양국이 각각 분명한 비교우위를 갖는 분야에서는 수입개화의 국내가격이 하락할 것이고 그 결과 수입량이 증가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역창출효과이다. 한편 한·일 자유무역협정은 관세 및 기타 무역장벽이 계속 존재하게 될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무역전환효과도 발생시킬 것이다. 한국은 의류, 가죽제품, 농수산물 등에서 對日 수출이 증가할 것이고, 일본의 對韓 수출은 고성능 기계, 금속제품 및 화학제품의 분야에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對日 수입제품에 대한 평균관세율은 7.9%인 반면, 일본의 對韓 수입제품에 대한 평균관세율은 2.9%에 불과하다. 따라서 일본의 對韓 수출증대가 한국의 對日 수출증대분을 초과함으로써 한국의 對日 무역적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5. 그러나 무역적자의 증가만이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효과라고는 할 수 없다. 한·일 양국간에는 부품과 완제품뿐만 아니라 저급제품과 고급제품을 상호 수출하고 수입하는 산업간 무역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또한 여행, 운송, 건설, 통신, 금융 등의 서비스 산업에서도 산업내 교역이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분야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존재하지 않거나 매우 낮아서 앞서 언급한 정태적 분석을 통하여 그 효과가 추정될 수 없다. 동 분야에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한·일간 시장통합으로 양국기업간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고, 전략적 제휴도 확대될 것이다. 아울러 한·일 양국의 통합된 시장은 양국에 대한 미국과 유럽기업들의 투자도 증대시킬 것이다. 생산성이 제고되고 비용이 하락함으로써 양국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유무역협정의 동태적 효과이다. 이러한 동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KIEP와 IDE의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적으로는 앞서 언급한 정태적 효과보다 동태적 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이러한 동태적 효과는 기본적으로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실현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시장이 진정으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양국간 상품, 서비스, 금융자본 및 인력자원의 이동이 활성화되도록 조세조약, 투자협정, 표준·인증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을 타결하고, 통관절차, 기타 무역원활화 조치,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표준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KIEP의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조치에 따른 무역창출효과를 부분적으로 추정하였는데, 그 중 투자촉진이 핵심적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분명히 양국 기업들이 상대국의 시장에 투자하는데 있어서 신뢰도를 제고시킬 것이다. 이중 대다수 사안들이 「한·일 경제협력 의제 21」에 이미 포함되어 있고, 양국간에 이미 협상이 진행중이다. 조세조약은 이미 1999년 11월부터 발효되었으며, 투자협정 및 상호인정협정은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7. 한·일 FTA체결을 통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양국간 협력이 확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1992년 양국에 각각 설립된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과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은 중소기업간의 산업기술육성, 인적자원개발 및 생산성제고 등의 측면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양국이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분야, 비효율적인 과잉설비가 존재하며 산업내 무역이 발달하지 않은 분야에서 특히 요구된다. 협력을 달성하기 위하여 KIEP보고서에서는 민간 기업들로 구성된 한일산업기술협력위원회(ITCC)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IDE보고서는 수산업분야에서도 양국 자원의 공동관리와 활용을 통한 상당한 협력의 여지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한·일 양국의 금융 및 자본시장의 통합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요구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 기업들은 상호 협력과 제휴를 통한 경쟁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8. KIEP보고서는 한·일 FTA로 한국의 대일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서비스부문의 무역에서 대일 무역수지흑자를 기록함으로써 상품부문에서의 대일 무역수지적자 증가분의 일부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한국의 대일 무역수지적자 증가분이 동태적 효과와 다양한 무역원활화조치 등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KIEP의 보고서는 이러한 결과가 확실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FTA의 동태적인 효율성을 실현하기 위한 일본으로부터의 직접투자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한일투자개발은행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9. 아·태지역의 국가들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한·일 FTA 연구 제안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였다.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국가들이 지역무

역협정에 가입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국가들의 지역무역협정 결성 움직임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국가들에게 다음의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첫째, 한·일 FTA는 양국경제의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며, 동시에 아·태지역의 다른 모든 국가들의 경제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동 FTA는 양국의 자유화 노력을 촉진시키는 것은 물론, 아·태지역의 무역자유화 구조 및 다자간 무역체제하에서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한 양국의 선도적 조치들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 둘째, 한·일 FTA는 GATT 제24조 조항에 일치하여 추진될 것이다.

10. 양국간에 다양한 원활화조치들과 제도적 협력을 위한 협상이 이미 시작되었으나, 한·일 FTA는 이러한 모든 협상을 포괄하는 체계적인 틀이다. 이와 동시에 한·일 FTA는 개별협상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비전을 보여줌으로써 한·일 양국간에 한층 기밀한 경제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추진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일 FTA의 구도는 개별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촉진하는 행태가 바람직하다. 급일 양측 공동연구의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우리는 양국 국민들간에 보다 긴밀한 양국 경제관계를 위한 논의가 촉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 첫 단계로 우리는 2000년 5월 2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공개적으로 한·일 공동 심포지움을 개최할 계획이다.

〈合同分科會〉

韓日 共同提案



社團法人 日韓經濟協會
常務理事 井野 正義

일한경제협회의 사무국장인 이노(井野)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에서 한일양국간의 협력관계를 추진하는 세 가지 안전에 대해 제안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日韓・韓日中堅經濟人交流促進團 派遣」

먼저 중견경제인교류촉진단의 일본으로부터의 파견에 대해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 중견경제인교류촉진단의 파견은 89년에 시작한 이래, 일본측에서 한국에 3회, 한국측에서 일본에 7회 상호 파견하여 세미나 및 간담회의 개최, 그리고 학자·최고경영인 초청 강연회 등을 통한 양국의 협력방안에 대한 진지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져 양국 경제인의 상호이해와 교류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중견경제인교류는 한일관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차세대를 짚어질 젊은 경영인간의 교류강화사업으로서 중요한 것이며, 한일관계를 더욱 돈독한 관계로 이어 줄 것이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일본측에서 파견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한국측에서 수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靑少年交流 韓日大學生 相互訪問」

다음으로 청소년교류 한일대학생 상호방문에 대해서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 청소년교류사업은 한일국교정상화 20주년 기념행사로서 1985년에 시작되어 이후 작년까지 한국에서 총 658명, 일본에서는 1988년 이후 총 11회, 346명, 양국을 합쳐 1,004명의 대학생이 상호방문을 해왔습니다.

이 사업은, 한일 양국의 상호이해를 심화시키고 우호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양국의 미래를 짊어지게 될 대학생에게 서로를 방문하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것이며, 감수성이 풍부한 젊은 세대에 상대국을 방문하여 얻은 경험이 양국관계의 여러 가지 면에 반드시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학생교류에 참가한 양국 학생의 감상문을 읽어보면, 같은 또래인 학생들간의 교류에서 생기는 서로에 대한 계발과 우정, 나아가 홈스테이 생활, 문화에 대한 이해촉진 등 「사람」과 「사람」간의 접촉, 커뮤니케이션이 보다 깊은 교류를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98년 10월 金大中 대통령께서 일본을 방문하시어 양국간에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파트너십을 위한 행동계획」이 합의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민교류 및 문화교류의 증진이 다루어졌으며, 청소년교류의 중요성이 재창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3월에는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 弘文) 문부성대신과 문용린 교육부장관은 앞으로 10년간 1년에 100명의 규모로 한국학생을 일본의 공과대학에 유학시키기로 합의하는 등 양국정부도 학생교류의 발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참가하는 학생들에게도 귀중한 연수여행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다시금 강조할 생각이며, 사업내용이 더욱 충실해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러므로 올해도 양국경제계 및 양국의 회원사의 지원과 협력을 얻어 청소년교류 한일대학생 상호방문사업을 여름방학기간 중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韓國訪日輸出促進團・産業技術交流促進미션 誘致」

마지막으로 한일 양국의 경제관계가운데 계속 대응해야 할 과제인 무역·산업기술협력에 관한 한국방일수출촉진단·산업기술교류촉진미션의 두 가지 사업에 대해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방일수출촉진단에 대해서는 1985년부터 「한국방일수출촉진단」을 지금까지 중견중소기업 약 2,307개사 3,249명을 받아들이며 서로 협력해왔습니다만, 그 결과 26,384건의 수출상담 및 일본현지상공인과의 교류활동을 전개하여 수출확대는 물론 상호협력관계를 한층 심화시켜 왔습니다. 올해도 2회에 걸쳐 일본을 방

문할 계획으로 있으며, 1차 추진단은 30개사 45명으로 구성되어 6월 12일부터 17일까지 후쿠오카와 동경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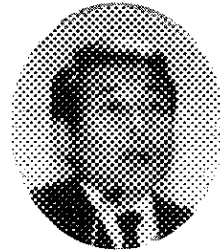
다음으로 양국 중소기업간의 교류촉진 및 기술협력강화를 위한 산업기술추진사업의 일환인 「산업기술협력미션」 사업에 대해서는 1993년부터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에서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1999년부터는 양국재단의 공동사업이 되어 내용이 더욱 확대, 충실해지고 있습니다. 99년 10월에는 제9회 산업기술교류촉진미션이 일본을 방문하였는데 앙케이트조사 결과 참가인원의 약 97%가 유익했다고 응답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다른 목적을 가진 두 추진단이 올해도 더욱 유익한 성과를 거두기를 희망하며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세 건을 한일 공동제안으로서 제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全體會議 ②

第 1 分科會 報告 (日本側)



麻 生 社 會 士 (株)
代表取締役社長 麻生 泰

제1분과회 코디네이터를 맡았던 아소시멘트의 아소라고 합니다. 제1분과회는 “새로운 일한 협력”이라는 전체테마로써 시이노 노무라종합연구소 주식연구원에서부터 『일한 Business alliance의 전망과 과제』라는 테마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한간의 관계를 비즈니스의 역사적인 배경을 간단히 설명하신 후 경쟁이란 측면에서 컨페티션이란 경쟁에서 함께 만드는 공창이라는 생각을 갖고 함께 나가자, 정보통신이라든지 아시아 시장에 있어서의 환경 비즈니스 같은 새로운 분야에서 같이 일을 할 수 없을까, 또는 일본에서는 상당히 보급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시작되고 있지 않는 서비스 분야, 이러한 분야가 공창의 분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일한 양국에서 중국이란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의미로 함께 만든다, 공창한다, 그것을 위해서 기본적인 고려의 요소들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이노씨께서는 한국에 5년이나 주재를 하셨고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생각으로 일본의 경제계의 속도가 상당히 느리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메시지로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한국이 IMF 이후 2년 사이에 상당히 회복을 했는데 일본은 10년 동안 회복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시대에는 이 스피드라는 것이 제품의 효과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구미의 자본 기술이라는 것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구미의 기술력을 갖는 한국이 앞으로

는 상당히 매력적이고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한 메시지 속에는 일본의 비즈니스도 더 속도를 가지고 변혁기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용경 한국통신프리텔 사장님으로부터 『인터넷을 활용한 한일 양국 기업간 협력』이라는 테마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인터넷을 활용함으로써 제 3국과 비교해서 양국이 타협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큰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몇 가지 요소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산업 영역이 거의 공통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지리적으로 언어 장벽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 중국 등 새로운 시장의 존재 등등이 IT의 여러 가지 발전과 더불어 공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가운데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놀랐던 것이 현재 한국에서 이동통신전화 발전도의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것입니다.

6천만명의 한국민 중 2천 7백만명이 이동통신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속도가 일본이 9,600bps의 속도인데 한국은 이미 64Kbps라는 빠른 속도로 액세스할 수 있다는 것, 물론 코스트도 일본보다 상당히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용경 사장님께서서는 콘텐츠는 일본이 보다 많다, i 모드 등과 비교를 해볼 때 일본이 만개 정도의 콘텐츠가 있는데 한국은 아직 모자라다, 1 대 5 정도이다, 그러나 속도와 코스트는 상당히 빠르고 싸다는 것입니다.

플로어에서도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질문 가운데서 최근 3~4년 사이 한일간 비즈니스를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과거의 일들, 지금까지는 말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최근에 와서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의 실패 사례라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한일간에서의 실패 사례와 현재 한국과 구미와의 성공적인 사례와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한일간에는 다소 애매한 가운데서 대화가 진행되는데 최근에 한국과 구미와의 계약은 상당한 분량의 계약 자료를 작성함으로써 애매성이 없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잘 되어가고 있다, 한일간에는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좋은 지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저는 코디네이터로서 그러한 디지털 측면에서 비즈니스를 해야 하지만 한일간에는 아날로그적인 부분도 남겨 두어야 한다, 이러한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는 부분도 있어야 한다, 공동으로 비즈니스를 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1분과회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第 1 分科會 報告 (韓國側)



(株)HANWHA 流通
代表理事 金 正

제1분과회 한국측 코디네이터를 맡았던 김정입니다. 제1분과회에서의 내용은 아소 사장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피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분과회를 통해 양국 기업인들은 과거 한일 경험 실행의 문제점을 되돌아보고 향후 기대감과 과제에 대해 점검해 보았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및 인터넷을 통한 기술혁신의 결과로서 양국 기업들이 성취할 수 있는 잠재적 시너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특히 시이노 주식연구원에서 말씀하신 한일 양국 관계가 공창의 시대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당위성과 이에 수반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뜨거운 논의가 있었습니다. 과거부터 이어져온 현안 문제점, 예를 들면 기술 이전의 비용이나 지적재산권, 경영실패성 등은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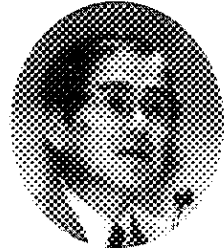
그렇지만 양측 모두 정보통신, 인터넷 등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였습니다. 기술 로열티나 지적재산권 등의 이슈가 양국이 21세기의 새로운 혁신체제를 만들어 가는데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국통신프리텔 이용경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미국 자동차 업계 빅3의 경쟁과 협력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이제 정보통신 분야에서 표준화를 얘기할 때 미국형이나 유럽형이나 하는 논쟁이 뜨겁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용경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디지털화 사회가 누리는 신경체체제의 새로운 형태에 합의 과시가 될지도 모른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회의에 전례 없이 솔직한 얘기가 많았고 특히 플로어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여러 가지 희망적 사항에 대해서 솔직하고 진지한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플로어 중에서 특히 한국외국어대학 이종윤 교수께서는 한일간 수평적 분업의 확대를 위한 한국 부품의 품질 향상, 이를 위한 일본에서 한국으로의 기술이전, 이 기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일본 기술에 대한 정당한 로열티 지불 및 기술복제 방지를 위한 프로젝트팀에 대한 제의가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팀은 일본의 기술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 및 이를 통한 한일간 수평적 확대가 실현되면 한일간에 조화로운 발전을 실현시킬 것이며, 이와 더불어 한일간의 협력은 물론 동아시아의 협력체제를 강화시킬 수 있는 추진 주체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의가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월 12일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예상되고 있고 양국간 FTA 협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현안들이 좋은 결실을 맺어 한일간 협력에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第 2 分科會 報告 (日本側)



石川島播磨重工業(株)
副社長 大慈彌 省三

제2분과회 코디네이터를 맡은 이시가와지마하리마중공업의 오지미라고 합니다. 제2분과회에서는 한국측의 발표자이신 임동순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센터 수석 연구원으로부터 「뉴라운드시대에 있어서의 환경협력 : 한일 양국의 산업부문 환경협력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가 있었습니다. 발표 내용을 요약하면 95년에 WTO 뉴라운드를 계기로 하여 국제적인 환경규제, 무역자유화의 문제를 세계적으로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역의 자유화와 경제개발이 환경보호를 유지하면서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를 바탕으로 해서 기업은 생산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국제적인 환경기준에 합치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소위 국제적인 동향이 어떤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서 그러한 국제적인 환경추세에 기업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는 마이너스적인 측면이 있다, 즉 환경문제는 기업의 경쟁력에 대해서 환경보호를 위한 지출이 늘어난다, 자원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이 생긴다, 그러한 마이너스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우치 하면 생산활동이 위축되는 등 기업 자체의 존속이 어려워진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한편 관점을 달리하면 환경문제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기기에 대응을 함으로써 예컨대 공정자유화라든지 투입원료의 효율화라든지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통한 제품 믹스를 고부가가치화 시킬 수 있다든지 하는 일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 새로운 환경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다는 그러한 플러스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 환경에 대한 비즈니스라는 것이 21세기의 하나의 큰 비즈니스가 될 것이다 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치로 말씀드리면 2010년에는 전세계에서 92억달러, 한국에서는 1~3억달러, 일본에서도 신문보도에 따르면 40조엔 정도의 시장규모가 될 것이다 라고 분석되고 있고, 환경비즈니스라는 것이 앞으로 커다란 비즈니스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일한간에는 어떤 협력체제를 생각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소위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산업적으로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철강분야, 시멘트 분야 등과 같은 분야에서는 산업이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야에서 약간 일본측이 앞서가고 있는 환경기술을 기술 교류를 통해서 일본의 비즈니스가 한국에서 활용된다, 그것을 또한 협조를 하면서 세계로 진출한다,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의 장에서 서로가 협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측으로부터는 第一勸銀종합연구소의 특별연구원 카즈다 사토루씨로부터 『환경정책 실현을 위한 사회기반 정비 - 환경경영 추진 및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내용적으로 소개해 드리면 상당히 공통된 내용이었습니다만, 우선 92년의 브라질 뉴선언, 환경과 개발에 있어서의 선언이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그 행동계획과 자금협력을 정한 아젠다 21 등 환경문제에 관한 국제적인 추세에 대해서 소개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환경문제는 지구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구체적으로 선진국인 독일, 영국, 미국 등에서 어떤 환경대응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가 있었고, 그에 대해서 일본과 한국이 구미 각국의 환경규제 수준에 대응하면서 그것을 캐치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경경영이라는 부분에서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발표가 있었고, 21세기를 향해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 기업경영에 있어서 에너지 절약, 또는 자원 절약 등 환경 효율성을 추구하자, 환경 부하를 낮추는 노력, 또는 환경산업의 확대를 위한 기업전략 등이 기업으로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러한 내용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개발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또한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측의 발표와 공통되는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일간에 있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접근해야 하는가, 다섯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는 환경이라는 관점을 가진 비즈니스의 창조와 확대, 두 번째로 환경규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전문가 등 인재의 육성이 필요하다, 네 번째는 공통된 정보의 정비, 기초정보의 개발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로 환경 비즈니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양국이 협력하면서 추진함으로써 아시아의 중심이 되고 경제발전을 유지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받아서 플로어에서도 활발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7명으로부터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간추려서 3명 정도의 의견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공유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영의 TOP, 즉 CEO를 포함해서 각계 각층에서의 환경에 대한 인식과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 한가지 지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환경 비즈니스라는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환경 비즈니스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의 코스트가 필요합니다. 그 코스트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기술교류를 하면서 국제협력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 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북아시아에 있어서의 월경적인 오염이라는 문제, 산성비라든지 황사의 문제, 해양오염의 문제에 대해서 현재 정부간에서는 여러 가지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좀더 민간차원에서 협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이 경제인회의에서도 이 부분에 관한 의제를 기론하면 어떠하겠는가, 구체적으로는 연구개발 활동을 위한 TASK FORCE를 만들면 어떨까, 환경기술 상담회 같은 것을 실시하면 어떠냐, 그리고 환경에 초점을 맞춘 교류사업을 해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구체적인 제안도 나왔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번 세션을 통해서 생각한 것이 네 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문제는 국제적인 관점에 서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당연한 일이겠지만 다시 새삼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문제는 기업에 있어서 코스트 증가라는 마이너스 측면이 확실히 있습니다만, 그것을 소홀히 하면 기업이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히려 마이너스 측면보다도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가 발생한다는 플러스 측면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 있어서 한일 양국이 협조를 하면서 보다 높은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고, 세계의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만, 동남아시아에 있어서의 월경적인 환경오염에 대해서 한일 양국이 협조를 하면서 환경보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 제2분과회에서의 환경에 관한 논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第 2 分科會 報告 (韓國側)



東洋物産企業(株)
副會長 金 熙 勇

앞에서 너무나 발표를 잘 해주셨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서
요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분과회는 오지미 코디네이터를 모시고 또
한국측의 임동순 박사님, 일본측의 카즈다 특별연구원과 함께 대단히 잘 준비되
신 연구 보고서를 들었습니다. 크게는 저희들이 뉴라운드에서 문제되고 있는 대
기오염 문제부터 해서 북한의 식수문제, 그리고 어제 저희들이 갔었던 깨끗한 스
미다강의 물고기 얘기까지 했습니다.

저에게 제일 강하게 와 닿았던 것으로 우리 기업인들이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
겠다, 환경문제를 제대로 인식을 해야 하겠다, 그래서 나아가서 환경경영, 환경감
사, 환경회계 까지도 해야 하겠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둘째는 인접국인
한일 일한 두 나라의 국제교류, 협력을 통해서 서로 도와 가면서 문제를 풀어나
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 30년 동안에 고성장에 밀려 외면되었던 환경문제가 이제는 보이지
않는 무역의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나라가 민간차원에서 물론 큰 문제
도 해결해야 하겠지만 우선 실질적이고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서 공동연구를 하자
는 데에 또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제2분과회는 저희들 나름대로 앞으로의 환경협력을 해 나가는데 대한 비전을 설정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잘 준비되었고 날카롭지만 건설적인 의견을 내어 주신 일본측의 적극적인 참여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분과회 한국측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閉 會 式

〈閉會式〉

團 長 人 事



日 本 側 代 表 團
團 長 藤村 正哉

어제와 오늘 양일에 걸쳐 개최된 제32회 한일경제인회의도 이제 마지막 순서인 폐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부터 시종일관 회의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심심한 감사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에 관하여 여러분들께서 좋지 않았다는 감상을 갖고 계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이번 회의는 참 좋았다고 생각하시고 훈훈한 가슴으로 이 자리를 떠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년 전에 金大中 대통령께서 방일하신 이후 한국과 일본간의 분위기가 정말 팔목할 만큼 좋아졌습니다. 이번 회의도 그와 같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폐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제가 느꼈던 점은 이와 같은 소프트 무드라는 감각뿐 아니라 이 제부터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하면 될 것인가 하는 아주 적극적인이고 전향적인 마음가짐이 회의의 도처에서 느껴졌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우호적인 분위기가 역행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더욱 더 심도 있게 이런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경제인들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의를 폐막함에 있어서 내년 4월에 다시 33회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金相廈 회장님께서는 많은 폐를 끼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149명의 한국 대표단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에 비해 일본측은 오히려 11명이 적은 138명이 참석하셨습니다. 金相廈 회장님께서도 내년에는 150명의 일본측 대표단의 방한을 기대한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대표단을 모시고 한국을 찾아뵙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심심한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폐회 인사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통역을 해 주셨던 분들께서는 오늘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역을 잘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閉會式〉

團 長 人 事



韓國側 代表團
團長 金相廈

존경하는 藤村 正哉(후지무라 마사야) 團長님을 비롯한 日本側 代表團 여러분,
그리고 韓國側 代表團 여러분.

먼저公私多忙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번 會議에 參席하시어 이틀 동안 始終一貫
진지하고도 活潑한 討議를 하여 주신 兩國 代表團 여러분께 眞心으로 感謝말씀
드립니다.

또한 이번 會議가 많은 成果를 거두고 成功裡에 마칠 수 있게 된 것은 藤村 正
哉 團長님을 비롯한 日本側 關係者 여러분의 積極的인 協力과 支援의 德分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甚深한 感謝와 敬意를 표하는 바입니다.

尊敬하는 兩國 代表團 여러분.

오늘 本 會議에서 진지한 討議가 이루어져 그 成果는 방금 共同聲明을 통해서
發表된 바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製造業中心의 協力は 向後에도 여전히 産業協
力の 基本이 되며, 두 나라의 産業構造 再編過程에서의 部品・素材 企業間協力の
必要性에 共感하였습니다.

그리고 벤처企業간의 協力과 인터넷이나 電子商去來 等 새로운 協力需要도 大舉 創出되리라는 것에 認識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새로운 천년기의 韓日 關係는 빠르게 激變하고 있는 새로운 環境에 걸맞는 보다 強化된 協力關係 構築에 주력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確認할 수 있었던 뜻깊은 會議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韓日經濟協會는 本 會議의 成果와 그 동안 쌓아온 相互信賴를 바탕으로 韓日 兩國의 協力增進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아부조록 많은 支援과 協力を 付託드립니다.

끝으로 兩國 代表團 여러분의 더 한층 發展과 健勝을 祈願하면서, 내년 봄에 韓國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期待합니다.

대단히 感謝합니다.

**第32回 韓日・日韓經濟人會議
報 告 書**

2000年 7月 25日 發行

編輯兼發行人 申 德 鉉
發 行 處 社團法人 韓日經濟協會
KOREA-JAPAN ECONOMIC ASSOCIATION

135-729 서울特別市 江南區 三成洞 159-1

(韓國貿易會館 1504號)

TEL : 02-551-1531, 1541 FAX : 02-551-1530, 1540